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 훈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시연구 2020-16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urrent Indicators in the Cultural Sector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책임

---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

---

이학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구개요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 근거기반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 증가
  -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미흡한 상태이며, 근거기반 문화정책의 요구가 증가함
- 정책의 민첩성에 대한 요구 증가
  - 급격하게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민첩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 대부분의 문화예술분야 지표는 1년 단위 이상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짐
- 문화생태계의 통합 현실 반영 필요
  - 문화 분야의 확장으로 인해 부분적인 통계만으로는 생태계 전체를 진단할 수 없으며, 각기 다른 영역에 산재해 있거나 외부 거시지표에 숨겨져 있는 동향지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지표체계가 필요함
  - 문화예술생태계의 실시간 진단을 비롯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 및 처방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의 개발이 필요함

## 나. 연구 목적

- 문화예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시범적으로 적용함
  - 문화예술분야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검토하여 동향지표를 선별하고 사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시범적용을 진행함
-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안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의 생산과 유지,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함

##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 ■ 연구 범위

- (지표구축) 문화체육관광부 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상황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동향지표체계를 구축함
- (시범적용) 구축된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를 중심으로 지표의 우선순위, 수집 가능성, 기존에 발표되고 있는 지표와의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일부 지표를 시범 적용함

### ■ 연구 방법

- (문헌검토)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설정, 동향지표체계의 방향 설정
- (현황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내·외부 통계자료와 통합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지표들을 검토하여 문화예술 동향지표 통합 인벤토리를 구축
- (의견수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함
- (시범분석) 수집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를 고려하여 도출된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를 중심으로 시범적인 동향분석 진행

## 2.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안) 도출

### 가.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정의

- (조작적 정의) 1년 미만의 단위기간(주간, 월간, 분기, 반기)에서의 문화예술의 변화추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 문화예술 동향지표 조작적 정의

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도서출판, 시청각/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의 상황을 1년 미만의 기간에서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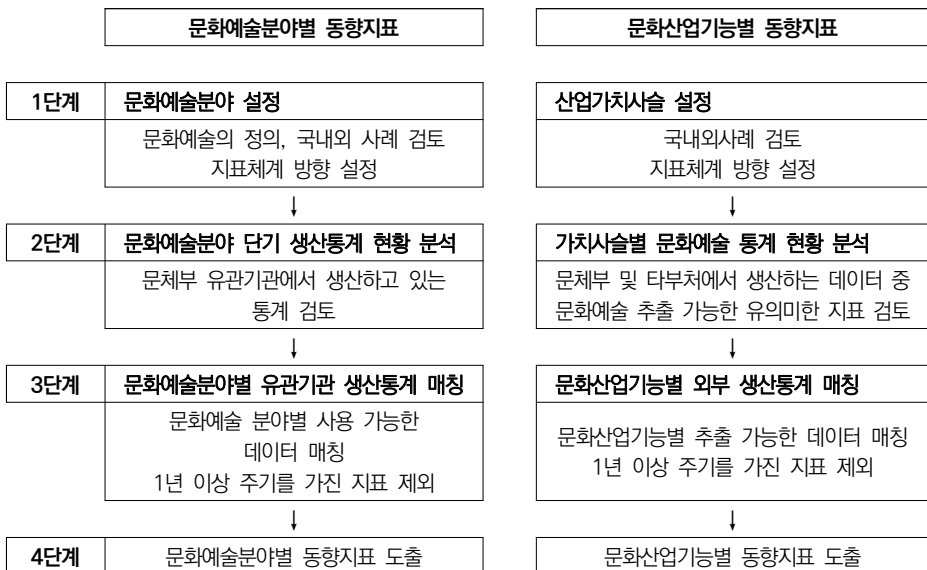
## 나.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구성 방향

-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는 문화예술영역과 순환주기를 교차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문화예술분야별 특성과 산업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동향지표의 경우, 시의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데이터의 생산 주기 및 발표 주기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동향지표를 선정해야 함
- 기존에 이미 생산·공표 되고 있는 지표를 바탕으로 추가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함

## 다. 문화예술 동향지표 추출과정

-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먼저 문화예술 분야를 설정하고 현재 생산되고 있는 분야별 통계를 검토하여 문화예술 분야별 동향지표 도출
-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 동향지표를 기초로 신규 지표를 추가함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추출 흐름도



## 라. 문화예술 종합 동향지표체계(안)

-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지표추출 과정을 통해 최종 15개의 지표를 제안함
-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지표 추출 과정을 통해 최종 22개 지표를 제안함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안)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화분야	지표명	가치기능	문화예술 분야 추출대상 지표명
문화 유산	공·능·원 관람객수	공급	시가총액
			주가지수
도서 출판	도서보유권수, 도서대출건수		생산자물가지수
	ISBN 발급 동향		서비스업생산지수
공연	공연건수, 매출액, 공연예매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지역 문화축제 현황		사업자 수
영화	영화개봉편수, 매출액, 영화관객 수		사업장수
			신규성립사업장수
시각	미술관 방문객 미술작품 거래건 수, 매출액		소멸사업장수
	박물관 관람 동향		신용카드 지출액
시청각/ 미디어	스마트폰·PC 이용실태	소비자심리지수	
창조 서비스	저작권 등록 동향	소비자물가지수	
		온라인쇼핑 거래액	
인력	예술활동증명자 수	가계동향 (가구당 소비지출액)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취업자 수	
	문화자원봉사 매칭건수	1인당 평균 임금	
교육	문화예술교육참여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	
		수출입	피보험자수
온라인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피보험취득자수	
		피보험상실자수	
기초 공통		수출입통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지역별 인구동향			

## 마. 문화예술 핵심 동향지표

- 도출된 종합지표(안)에 대해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성과 유용성이 높은 지표 도출

문화예술 핵심 동향지표

	핵심지표
문화예술분야별	공연 동향, 영화동향, 미술관 방문동향, 예술인 동향, 저작권등록동향, 문화예술교육 참여 동향
문화산업기능별	신용카드 지출액, 취업자 수, 사업장 수, 소멸사업장 수, 소비자심리지수, 1인당 평균임금, 가구당 소비지출액, 1인당 평균 근로시간, 소비자물가지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 3. 문화예술 동향지표 시범적용

### 3.1. 문화예술 동향지표 시범적용 지표 도출

- 지표의 우선순위, 자료의 수집 가능성, 지표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범적용 할 지표를 선정함

### 가.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시범적용(안)

- 기존 발표지표들과 데이터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수집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여 시범적용을 진행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별 안배를 고려하여 도서관 대출 동향, 박물관·미술관 관람동향, 스마트폰·PC 이용 동향, 주요 문화예술 분야 검색동향 등이 포함됨

문화예술분야별 시범적용 지표

문화예술분야별 시범적용 지표		내용
문화분야	지표명	
도서출판	도서관 대출 동향	도서관 정보나루에 가입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 도서관의 대출 일별 현황
시각	박물관·미술관 관람동향	박물관 미술관의 방문, 관람 등의 일별 현황
시청각/미디어	스마트폰·PC 이용 동향	스마트폰·PC의 월별 사용 현황
온라인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네이버 기준 주요문화서비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일별 검색 현황

## 나.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시범적용(안)

- 기존에 생산 공표되고 있는 중복 지표를 제외하고 문화예술 사업체 동향, 문화예술 소비지출동향, 문화예술산업 고용의 질 동향, 지식재산 수출입동향으로 설정하였음

문화산업기능별 시범적용 지표

구분	동향 내용	세부지표
공급	문화예술 사업장 동향	사업장수
		신규성립사업장수
		소멸사업장수
	문화예술 생산자 물가	문화예술 생산자 물가
수요	문화예술 소비지출 동향	가계동향(가구당 소비지출)
고용	문화예술산업 고용의 질 동향	1인당 평균 임금
		1인당 평균 근로시간
		피보험자수
		피보험취득자수
		피보험상실자수
수출입	지식재산 수출입 동향	디자인권,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 3.2.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시범적용 결과

### 가. 도서관 대출동향

- 분석 범위는 2019년과 2020년 각 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도서관 정보나루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범적용을 진행함
  - (전국 도서대출수) 전국적으로 2,899만 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으며, 2019년에 비해 약 46.8%감소함
  - (지역별 도서대출수) 2019년 대비 수도권의 도서대출수는 약 79.6%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약 86.3%감소함
  - (코로나 19의 영향) 코로나19의 확진자수가 도서관 가동중단과 도서대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주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명 증가할 때, 약 22,097권의 도서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약 여섯 곳의 도서관이 가동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인 것으로 나타남

## 나. 박물관·미술관 관람동향

- 분석 범위는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이며, 경기도 소재 박물관·미술관에 한정하여 시범적용을 진행함
  - (총입장객수) 박물관의 입장객수는 8.1만 명, 미술관 입장객수는 1.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2019년 대비 67.1%, 75.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유료·무료입장객수) 박물관의 유료·무료입장객수는 각각 26,999명(△57.8%)과 54,090명(△70.5%)으로 나타났으며, 미술관 유료·무료입장객수는 각각 587명(△72.5%)과 16,273명(△75.4%)으로 나타남
  - (개인·단체입장객수) 박물관의 개인·단체입장객수는 각각 74,169명(△57.9%)과 6,920명(90.2%)으로 나타났으며, 미술관 유료·무료입장객수는 각각 14,195명(73.5%)과 818명(92.7%)으로 나타남

## 다. 스마트폰·PC 이용동향

- 분석 범위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PC이용시간 동향을 시범적으로 적용함
  -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이용 시간은 3월(각각 8,263분, 1,316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 라. 주요 문화서비스 검색 동향

- 민간 검색어 트렌드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관련 검색어 동향을 시범적으로 적용함
  -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등의 문화예술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검색추이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과 미술관은 전년 대비 검색이 증가한 반면, 박물관, 영화관 등은 검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3.3.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시범적용

#### 가. 문화예술 사업체 동향

- 분석 범위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사업체 동향을 시범적으로 적용함
  - (사업장수) 문화예술분야 사업장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 4월(24,170개)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3.7% 감소함
  - (신규성립사업장수) 문화예술분야 신규성립사업장수가 가장 적은 시기는 5월(535)개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21.0% 감소함
  - (소멸사업장수) 문화예술분야 소멸사업장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 2월(502개)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31.4% 증가함

#### 나. 문화예술산업 생산자 물가 동향

- 분석 범위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생산자물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함
  - (신문 및 출판서비스) 전반적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7월에 전월대비 0.2%감소함
  - (영상·오디오물 제작배급) 전반적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4월부터 7월 까지 전년 대비 0.1%감소함
  - (문화 및 여행관련 서비스) 2월에 전월 대비 4.7%감소하였으며, 이후 증가하는 추세와 감소를 동시에 보인 후, 7월에 5.9%증가함

#### 다. 문화예술 소비지출 동향

- 분석 범위는 2019년 1/4분기부터 2020년 2/4분기까지이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구당 문화예술 소비지출동향을 시범적으로 적용함
  - 오락·문화에 대한 가구당 소비지출액의 경우, 2019년 3/4분기에는 157,471원이었으나 2/4분기(128,852원)까지 지속적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라. 문화예술인력 고용의 질 동향

### 1) 임금 및 근로시간

- 분석 범위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 1인당 평균 임금과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의 동향을 시범적으로 적용함
  - (1인당 평균 임금) 전반적으로 감소와 증가추세가 반복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달은 4월(263.1만원)로 나타남
  - (1인당 평균 근로시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은 7월(163.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 고용보험 가입

- 분석 범위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고용행정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내 문화예술분야 피보험자수, 피보험취득자수, 피보험상실자수, 문화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율추이도 함께 분석함
  - (피보험자수) 1월(13.1만 명)부터 9월(12.6만 명)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피보험취득자수) 1월(7,267명)부터 5월(3,234명)까지 감소한 후, 9월(5,115명)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피보험상실자수) 1월(7,036명), 3월(7,192명)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피보험자 비율) 취업자 대비 피보험자 비율은 2월 대비 3월에 5.4% 증가하였으나, 4월과 5월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후 증가와 감소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 마. 문화예술 지식재산 수출입 동향

- 분석 범위는 2019년 1/4분기부터 2020년 2/4분기까지이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동향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음
  - (디자인권) 2019년 3/4분기와 2020년 1/4분기를 제외한 모든 분기에서 적자를 나타냄
  - (문화예술저작권) 음악·영상의 경우, 2019년 1/4분기부터 2020년 1/4분기까지 적자를 이어왔으나 2020년 2/4분기 흑자로 전환됨

### 4. 결론 및 정책 제언

#### 가.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적용과 한계

##### 1)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 (도서관) 도서관 대출 데이터는 도서관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므로 데이터의 품질을 담보할 방안 강구가 필요함
  - (방문객 데이터) 도서관 방문이 책을 대출하는 것 외에도 많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필요
-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 데이터는 통합데이터가 부재하므로 통합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국립 박물관·미술관 데이터 단계적으로 수집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온라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 동향은 일종의 현실 선행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 필요

##### 2)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 (공급)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관련동향은 지표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현재는 현황지표만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추가적인 연구 필요

- (고용) 고용지표도 핵심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지표로 보이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수준으로만 분석이 가능하여 추가적으로 소분류 수준까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필요
- (소비) 신용카드 소비지출액 지표는 많은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 꼽은 지표지만, 품목기준이 일반적으로 경제 지표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달라 이를 조정할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수출입)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분야는 현재보다 세부 분야별로 분류해서 보아야 해당 영역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동향지표 체계를 위한 과제

##### 1) 문화예술 데이터 수집 및 공유 강화

- 주요 문화예술 분야인 공연, 영화, 도서 분야는 거래데이터가 축적되고 공유되고 있지만, 전시와 관련된 데이터는 축적도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우선 문화예술 전시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분야별로 방문객 데이터와 서비스 이용 데이터의 표준 집계 방식 등을 마련하여 횡단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2) 문화예술산업분류의 명확화

- 산업적 관점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동향지표를 지속적해서 생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자료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범위에 속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체 분류에서 어떤 영역이 문화예술분야인지가 중요하고, 해당 값들이 조사 원자료에 존재해야 함
- 현재는 문화예술산업분류가 모호하고, 조사마다 공표하고 있는 분류 수준이 다르기도 하며, 연구자마다 문화예술분야의 범위, 추출이 상이하여 일관된 값을 도출하기 힘든 구조임

### 3)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모니터링 체계 개발

- 다양한 데이터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영역이 온라인 영역임에도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지고 있음
- 최근 온라인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지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타당성도 검증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함

### 4) 문화예술 동향지표 관리 전담조직 필요

- 문화예술분야의 데이터가 취약한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등이 분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임
- 데이터 주도 문화정책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데이터를 지속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체계가 시급함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b>제2장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개념 및 방향</b> .....	<b>9</b>
제1절 동향 지표의 개념 및 필요성	11
1. 지표의 개념	11
2. 지표의 필요성과 의의	19
3.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구축에 대한 시사점	20
제2절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개념 검토	22
1. 문화예술의 개념적 정의	22
2. 문화예술의 범위	23
제3절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방향 설정	27
1. 문화예술분야의 설정	27
2. 문화예술 동향지표 목적 검토	33
3.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구성 방향	37
<b>제3장 문화예술 동향지표 관련 현황 분석</b> .....	<b>39</b>
제1절 문화예술분야 지표 현황	41
1. 문화분야 지표 현황	41
2. 산업관점의 문화예술 지표 현황	44

제2절 문화예술 신규 동향지표 검토	53
1. 문화예술분야 생산데이터 현황	53
2.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가안 도출	58
3. 주요 경제 및 사회 동향지표 현황	60
4.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가안 도출	70
5. 문화예술분야 종합 동향지표 도출	78
제3절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의견 수렴	81
1. 조사 개요	81
2. 조사 결과	83
3. 요약 및 시사점	91
<b>제4장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시범적용</b> .....	<b>93</b>
제1절 문화예술 동향지표 시범적용안 도출	95
1. 문화예술 동향지표 시범적용안 도출 기준	95
2.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시범적용안	98
제2절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시범적용	100
1. 도서관 대출 동향	100
2. 박물관·미술관 관람 동향	107
3. 스마트폰·PC 이용 동향	118
4. 주요 문화서비스 검색 동향	120
제3절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시범적용	123
1. 문화예술분야 추출 기준 설정	123
2. 문화예술 사업체 동향	124
3. 문화예술산업 생산자 물가 동향	131
4. 문화예술 소비지출 동향	132
5. 문화예술인력 고용의 질 동향	134
6. 문화예술 지식재산 수출입 동향	141
<b>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b> .....	<b>143</b>
제1절 결론	145
제2절 정책 제언	159

참고문헌 / 163

ABSTRACT / 167

부록 / 169

【부록1】 전문가 의견조사지 양식 / 171

---

# 표 목차

〈표 2-1〉 지표의 목적별 유형	13
〈표 2-2〉 지표의 측정 형태별 유형	14
〈표 2-3〉 좋은 지표의 요건	15
〈표 2-4〉 지표의 설계 및 산출 과정의 유의사항	18
〈표 2-5〉 국내법에 근거한 문화예술의 정의	22
〈표 2-6〉 국제기준에서 문화예술의 개념적 정의	23
〈표 2-7〉 국내 주요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서의 문화예술의 정의	23
〈표 2-8〉 문화예술산업분류체계	25
〈표 2-9〉 문화분야 특수산업분류체계	25
〈표 2-10〉 유네스코 문화통계 매트릭스	28
〈표 2-11〉 유네스코 문화지표 현황	30
〈표 2-12〉 OECD 동향지표 현황	30
〈표 2-13〉 주요국의 문화예술 범위	31
〈표 2-14〉 OECD 국가발전 및 삶의질 주요 지표	34
〈표 2-15〉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35
〈표 2-16〉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속성	36
〈표 2-17〉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의 구성방향	37
〈표 3-1〉 문화체육관광부 승인통계 현황	41
〈표 3-2〉 e-나라지표에 제공되는 문화지표	42
〈표 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44
〈표 3-4〉 문화센터에 제공되는 문화지표	45
〈표 3-5〉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공표하는 산업관점의 동향지표	46
〈표 3-6〉 한국표준산업분류 구성체계	47
〈표 3-7〉 산업연관표 상품분류표 내 문화예술산업	48
〈표 3-8〉 소비자물가품목 내 문화예술품목	50
〈표 3-9〉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 체계	51
〈표 3-10〉 가계동향조사 항목분류체계 내 문화예술상품	51



〈표 3-11〉 HS 코드 내 문화예술상품	52
〈표 3-12〉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53
〈표 3-13〉 공연예술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54
〈표 3-14〉 시각 예술 및 공예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54
〈표 3-15〉 시각 예술 및 공예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55
〈표 3-16〉 시청각 및 미디어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55
〈표 3-17〉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56
〈표 3-18〉 인력 및 단체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57
〈표 3-19〉 교육 및 기타 생산 데이터	57
〈표 3-20〉 문체부 유관기관 생산 데이터	58
〈표 3-21〉 문화예술분야 부분별 동향지표 가안	59
〈표 3-22〉 신용카드 지출액 데이터 개요	61
〈표 3-23〉 통계청 소관 주요 동향지표	61
〈표 3-24〉 기획재정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64
〈표 3-25〉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65
〈표 3-2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66
〈표 3-27〉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67
〈표 3-28〉 한국은행 소관 주요 동향지표	67
〈표 3-29〉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69
〈표 3-30〉 교육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69
〈표 3-31〉 가치사슬 별 주요부처 동향지표 현황	70
〈표 3-32〉 서비스업동향조사 내용	72
〈표 3-33〉 소비자물가지수 내용	72
〈표 3-34〉 온라인쇼핑 동향조사 내용	73
〈표 3-35〉 가계동향조사 내용	73
〈표 3-36〉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	73
〈표 3-37〉 고용행정통계 공급분야 지표 현황	74
〈표 3-38〉 고용행정통계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영역 지표 현황	74
〈표 3-39〉 생산자물가지조사 내용	75
〈표 3-40〉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내용	75
〈표 3-41〉 외부 데이터 활용 문화예술 지표	76
〈표 3-42〉 외부 데이터에서 문화예술분야 추출 기준	77
〈표 3-43〉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안)	80

〈표 3-44〉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타당성 조사	82
〈표 3-45〉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82
〈표 3-46〉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의견수렴	85
〈표 3-47〉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추가의견	87
〈표 3-48〉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의견수렴	88
〈표 3-49〉 문화예술 동향지표 우선순위	91
〈표 3-50〉 문화예술분야별 주요 동향지표 항목	91
〈표 3-51〉 문화예술분야 추출이 필요한 지수	92
〈표 4-1〉 문화예술분야별 시범지표 선정 기준 적용	96
〈표 4-2〉 문화산업기능별 시범지표 선정 기준 적용	97
〈표 4-3〉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및 시범적용 지표	98
〈표 4-4〉 문화예술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시범적용 지표	99
〈표 4-5〉 2018~2020년 상반기 도서대출수	101
〈표 4-6〉 2020년 지역별 도서대출수	102
〈표 4-7〉 2018~2020년 상반기 남녀별 도서대출수	103
〈표 4-8〉 2019년 대비 2020년 연령대별 도서대출 추이	104
〈표 4-9〉 도서대출 관련 기초통계량	106
〈표 4-10〉 코로나 19의 도서대출 영향 분석결과	107
〈표 4-11〉 2019~2020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총입장객 추이	108
〈표 4-12〉 2019~2020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총수입 추이	109
〈표 4-13〉 2019~2020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유료 입장객 추이	112
〈표 4-14〉 2019~2020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 입장객 추이	112
〈표 4-15〉 2019~2020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개인 입장객 추이	115
〈표 4-16〉 2019~2020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단체 입장객 추이	116
〈표 4-17〉 스마트폰 이용시간 동향	118
〈표 4-18〉 PC 이용시간 동향	119
〈표 4-19〉 문화예술분야 검색어 트렌드 현황	121
〈표 4-20〉 본 연구의 문화예술산업분류 기준	124
〈표 4-21〉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 사업장 동향	125
〈표 4-22〉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신규사업장 동향	127
〈표 4-23〉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소멸사업장 동향	129
〈표 4-24〉 2020년 문화예술분야 생산자물가지수 동향	131
〈표 4-25〉 문화예술분야 가구당 소비지출액 동향	133

〈표 4-26〉 2020년 문화예술분야 1인당 평균 임금 동향	134
〈표 4-27〉 2020년 문화예술분야 1인당 평균 근로시간 동향	135
〈표 4-28〉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피보험자 동향	136
〈표 4-29〉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피보험취득자 동향	137
〈표 4-30〉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피보험상실자 동향	139
〈표 4-31〉 2020년 문화예술 분야 피보험자 비율 추이	141
〈표 4-32〉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동향	142
〈표 5-1〉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보완사항	145
〈표 5-2〉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보완사항	147
〈표 5-3〉 데이터주도 정부의 목표	150
〈표 5-4〉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정책 활용(예시)	151
〈표 5-5〉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의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152
〈표 5-6〉 주요 문화상품/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현황	153
〈표 5-7〉 문화예술산업분류와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비교	155

---

# 그림 목차

[그림 3-1]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추출 흐름도	78
[그림 3-2] 동향지표의 필요성	83
[그림 3-3] 동향지표의 구성요소(1+2순위)	84
[그림 3-4] 동향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문화예술 분야	84
[그림 3-5]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IP분석 결과	86
[그림 3-6]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IPA분석 결과	89
[그림 3-7] 정책적 고려사항(1+2순위)	90
[그림 4-1] 2018~2020년도 상반기 도서대출 추이	101
[그림 4-2] 2019년 대비 2020년 도서대출 감소율	101
[그림 4-3] 수도권/비수도권 2020년 상반기 도서대출 추이	102
[그림 4-4] 지역별 2020년 상반기 도서대출 추이	102
[그림 4-5] 2020년 남녀 도서대출 추이	103
[그림 4-6] 2019년 대비 남녀 도서대출 감소 추이	103
[그림 4-7] 코로나19 이슈 및 도서대출 추이	105
[그림 4-8] 2019년 대비 2020년 도서대출 및 도서관가동 중단율 추이	106
[그림 4-9] 2019~2020년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총수입 추이	110
[그림 4-10] 2019~2020년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총수입 추이	110
[그림 4-11] 2019~2020년 상반기 경기도 미술관 총수입 추이	110
[그림 4-12] 2019~2020년 경기도 박물관 유·무료입장 추이	113
[그림 4-13]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유·무료입장 추이	113
[그림 4-14] 2020년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유·무료입장 추이	113
[그림 4-15] 2019~2020년 경기도 미술관 유·무료입장 추이	113
[그림 4-16]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미술관 유·무료입장 추이	114
[그림 4-17] 2020년 상반기 경기도 미술관 유·무료입장 추이	114
[그림 4-18] 2019~2020년 경기도 박물관 개인·단체입장 추이	116
[그림 4-19] 2019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개인·단체입장 추이	117
[그림 4-20] 2020년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개인·단체입장 추이	117

[그림 4-21] 2019~2020년 경기도 미술관 개인·단체입장 추이	117
[그림 4-22]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미술관 유·무료입장 추이	117
[그림 4-23] 2020년 상반기 경기도 미술관 유·무료입장 추이	117
[그림 4-24] '19년 대비 '20년 문화예술 검색어 트렌드 증감율	122
[그림 4-25] '19-'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소멸사업장 추이 비교	130
[그림 5-1] 교육부 검색동향	156
[그림 5-2] 보건복지부 검색동향	156
[그림 5-3] 데이터 가치 거버넌스의 효과	157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 가. 근거기반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 증가

- (근거기반)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수립과 시행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미흡이 지속되고 있음
  - 문화분야가 국가 산업과 국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책의 객관성, 시의성, 적절성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그간 문화예술분야 정책수립 및 현황파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의 부재로 인해 정책 수립, 예산계획 등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나. 정책의 민첩성에 대한 요구 증가

- (정책 민첩성) 내·외부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처방을 위해 실시간에 준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 현대사회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여 정책의 민첩성이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니터링 지표체계의 부재로 인해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개입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문화 분야 지표는 대부분 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되고, 1년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함
  - 단적으로 문화분야의 동향지표의 부재로 코로나 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외부 요인으로 인한 피해 규모의 추정에 어려움이 있음

#### 다. 문화생태계의 통합 현실 반영 필요

- (통합 현실 반영) 문화예술 분야의 양적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문화예술관련 현실(현상, 변화, 성과 등)을 압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통합지표의 필요성 증가
  - 기존에는 부분적인 통계 의존이 높았지만, 문화 분야의 확장으로 인해 부분적인 현실뿐 아니라 전체적인 수준에서 문화예술 분야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음
  - 일부 문화예술 분야의 동향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는 각기 다른 곳에 산재해있거나 외부 거시지표에 숨겨져 있어 전반적인 수준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동향을 볼 수 있는 지표체계 자체가 부재한 상황임

#### 라. 실시간에 준하는 동향지표 필요

- (동향지표 체계 개발) 문화예술생태계의 실시간 파악 및 시의성 있는 정책 처방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의 개발이 필요함
  - 정책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향(모니터링) 지표체계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 적절한 문화서비스, 문화예술분야의 동향 분석 및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적절한 주기를 가진 문화예술생태계의 수요·공급 동향지표가 요구됨
  - 동향 지표를 통해 문화예술생태계 내의 생산, 소비, 고용 등의 변화, 진단 및 정책처방 가능하고, 특히, 급변하는 상황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부대응 및 보조 가능

##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탐색하고,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지표의 유지 및 발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본 연구는 개별 지표의 개발이 아니고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생태계의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동향지표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따라서 문화예술분야 내외부에 생산되거나 존재하는 다양한 통계, 데이터 등에서 문화예술분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하여 시범적용하고, 문화예술 분야 동향지표의 생산·유지·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시간적 범위

- 2020년 7월 3일 ~ 2020년 12월 3일

#### 나. 대상적 범위

- 문화예술분야 승인통계(문체부 소관 승인통계)
  - 문체부 소관 승인통계
- 문화예술분야 지표 및 데이터
  - 문체부 및 주요 산하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지표
  - 외부 유관지표(각 부처, 주요 공공기관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동향지표)

#### 다. 내용적 범위

- (지표검토) 문체부 내외에서 생산하고 통계, 지표, 데이터 등을 검토하여 문화예술분야 상황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동향지표체계 구축
  - (문화예술분야 지표검토) 문화예술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 데이터 등을 종합·검토하여 동향지표로 활용 가능한 지표설정
  - (외부 지표검토) 문화예술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활용하는 지표에서 문화예술분야 추출 가능성 검토
  - (시의성과 반영성) 동향지표로서 시의성과 문화예술분야 생태계 반영성을 검토하여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구축

- (지표적용) 문화동향지표체계를 중심으로 큰 변형 없이 데이터 추출 및 적용이 가능한 지표의 적용
  - 문화예술분야와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동향지표를 시범 적용
- (후속조치 제안) 문화예술동향 지표의 생산·유지·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의 주기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유지를 위한 후속과제 제안

## 2. 연구 방법

### 가. 문헌 연구 및 자료검토

-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개념 및 범위 확정
- 문체부 내·외부 통계, 통합시스템 지표 검토를 통해 문화예술 동향지표 통합 인벤토리 구축

### 나. 전문가 자문

- 지표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의 타당성 검토
-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운용가능성 및 보완점 검토

### 다. 지표 수요조사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향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향지표의 우선순위 등 결정

### 라. 지표 시범적용

- 의견수렴에서 나타난 지표의 우선순위, 수집가능성,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출된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를 중심으로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지표의 시범적용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제2장

##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개념 및 방향





# 제1절 동향 지표의 개념 및 필요성

---

## 1. 지표의 개념

### 가. 지표의 정의

#### 1) 지표의 정의

- 지표(指標)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방향이나 목표,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이지만, 물가지표, 주가지표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상태나 상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척도를 의미함(통계개발원, 2019)
-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표는 가치, 목표, 성과를 평가하고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 의식수준 등을 집약한 정보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사람들은 지표를 통하여 관찰 대상에 대한 과거의 추이를 파악하고, 현재의 위상을 진단하며, 그리고 미래에 대해 전망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관찰 대상의 현 위상과 변화추이를 특정 기준점 또는 주변 집단 간에 동일한 척도로 파악하는 것은 복잡한 경쟁 환경에서 대내적인 목표 설정과 외부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오늘날 국가 또는 민간부문이 성과평가, 정책적인 의사결정이나 전략수립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단순하게는 실업자수, 이자율과 같은 단일 통계치로 된 지표에서부터 물가지수, 주가지수와 같이 여러 가지의 대상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표시하는 지표 그리고 행복지수, 경쟁력지수 등 척도가 다른 다양한 변수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복합적인 지수도 있음

- 특히, 정책적 지표는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시행 및 결과 평가 단계에서는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등의 의사결정의 주요한 근거로서의 유용성이 높음

- 따라서 '지표는 특정한 주체의 추세나 방향 또는 차원 등의 상태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고안된 표지, 수치, 통계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2) 지표와 지수

- 지표가 반드시 통계 또는 수치적으로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의 복잡다단한 인문사회, 경제 등의 현상을 표현하고 상호이해와 소통의 수단으로서 지표는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지표가 훨씬 더 유용하고, 활용도도 높음(통계개발원, 2019)

- 특히, 사회경제적인 현상을 표시하는 대부분의 지표는 척도가 다른 여러 요소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수화하고 있음

- 즉, 여러 지표를 통합하여 하나의 상위 지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표의 통합을 위한 수리적 과정이 필요하므로 하위지표의 지수화를 통해서 상위 지표 또한 지수로 표시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접하는 지표 중 하나인 물가지수(price index)의 예를 들면, 다양한 일정 기간 또는 시점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통합적으로 압축한 지표임

- 동일한 단위를 적용하는 가격지표들(물가지수, 주가지표)과는 달리 여러 가지 다른 척도로 이루어진 하위 지표들을 통합하여 만드는 지표(국가경쟁력 지수, 부패지수 등)도 있음

- 지표라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는 목적과 용도를 의미하며, 지수는 지표의 구체적인 표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음

- 체계상으로 보면, '통계자료 ⊆ 지수 ⊆ 지표'의 관계이므로 하나 이상의 통계가 지수가 될 수 있으며, 지수가 지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지표와 지수의 의미를 용어상으로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나. 지표의 유형

### 1) 지표의 목적별 유형

- 사회과학분야에서 개발 및 활용하고 있는 지표는 그 자체가 학문적인 대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현상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지표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이론보다는 지표 개발자의 의도와 목적에 의하여 정의되고 설계됨

〈표 2-1〉 지표의 목적별 유형

구분	목적
성과지표	• 사업, 정책, 조직/개인의 성과 측정
평가지표	• 정책, 현상, 실태 등을 평가
동향지표	•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관찰대상의 움직임 파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보건복지부(2016)

- 지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성과지표, 평가지표, 동향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개별 지표가 반드시 어느 한 영역으로만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님
- 성과지표는 특정사업, 정책, 조직이나 개인의 성과 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적합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관리는 성과관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학생의 학점,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업무성과, 특정사업의 결과 등이 있음
- 평가지표는 성과지표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주로 정부정책, 국제기구의 사회적 현상이나 실태를 평가하는 지표임
- 동향지표는 1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관찰대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로서 물가지수, 주가지수, 소비자동향지수 등이 있음

### 2) 지표의 측정 형태별 유형

- 정성지표와 정량지표, 그리고 이를 혼합한 혼합지표(복합지표)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이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세부지표 또는 단위변수들의 측정단위와 관련된 구분임

〈표 2-2〉 지표의 측정 형태별 유형

구분	목적
정량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량적인 단위 값을 반영한 지표</li> <li>객관성 확보 가능</li> </ul>
정성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측정 단위가 특정되지 않고 상대적 위상으로만 표시되는 서수적 지표</li> </ul>
혼합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 구성한 지표</li> </ul>

출처: 국무조정실(20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정량지표는 정량적인 단위의 값을 반영한 지표로 주로 물가지수, 주가지수 등이 해당함

  - 서로 다른 단위의 정량지표를 통합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단위로 환산한 지표를 사용하기도 함. 석탄,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경우 동일한 열량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환산한 지표 단위를 사용하기도 함
  - 대표적인 정량지표인 가격지수는 물가지수, 주가지수 등과 같이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지표들의 체계적인 조합이므로 기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즉, 물가지수가 10% 상승하였다는 것은 5% 상승의 두 배 상승한 것을 의미함
- 정성지표는 지표를 구성하는 값의 단위가 특정되지 않고, 상대적인 위상으로 표시되는 서수적인 지표임
- 혼합지표는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들을 혼합하여 구성한 지표이며, 최종적으로 표시되는 지표의 단위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정성지표의 형태로 표시됨

  - 혼합지표를 시스템지수라고도 함. 여기에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대부분의 지표들, 예를 들면 국민행복지수, 부패지수, 생활환경지수, 오염지수, 국가경쟁력지수, 정보화지수 등이 포함됨
  - 이는 다양한 성격의 변숫값이나 지표들을 종합하여 단일한 수치로 보여주는 지수임

## 다. 지표의 기본 요건

- 지표개발 관련 국내외의 연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지표는 사회과학적인 분석 및 평가수단이므로 지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표 2-3〉 좋은 지표의 요건

구분	내용
목적의 명확성	• 지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 적용 대상의 범위의 명확성
타당성	•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현상)을 반영할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신뢰성	• 측정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타당성 있는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유용성	• 관찰 대상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지 여부
일관성	• 장기간 동안 문항 및 기준들이 일정한지 여부
비교성	• 표준단위에 의거하여 타 지표와 직접비교가 가능한지 여부
시의성	• 통계치가 조사 및 작성되어 배포되기까지의 기간

출처: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20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첫째, 지표는 명확한 개발 목적을 가져야 함
  - 지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임
  - 지표가 지향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변수 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생기고, 이는 최종적으로 지수화 대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기능을 제약하게 될 것임
- 둘째, 지표의 적용대상이 구체적이어야 함
  - 지표의 적용대상이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면 개발된 지표의 효과와 유용성은 크게 낮아질 것임. 일반적으로 지표의 적용대상이 특정한 조직이나 지역일 수도 있고, 특정한 산업분야나 사회분야 또는 인구집단일 수도 있음. 지표의 목적에 따라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여야 함
- 셋째, 지표 자체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함
  - 대부분의 지표개발과 관련된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표의 타당성 확보는 지표 그 자체보다 분석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 이론체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함

- 경제 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라면, 경제학 이론을 근거로 한 타당한 지표개발이 이루어져야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다는 것임
- 이는 계층적인 지표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계층변수 간의 인과관계 (causality)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지표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넷째, 지표의 신뢰성이 있어야 함. 지표체계를 구축한 후 반복 측정 시에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함
  - 실태조사에 의한 통계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오차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표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변숫값의 측정과 표준화 과정에서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함
- 다섯째, 지표의 현실적으로 유용해야 함
  - 이는 측정된 지표값이 관찰 대상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용한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시의성이 높아야 하며, 추세의 확장성, 지역, 시기 등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임
- 여섯째, 지표의 문항 및 기준들의 변동이 적어야 함
  - 지표가 장기간 조사 및 발표될 경우, 지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항 혹은 기준들이 수정·보완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 등과 같은 추이 분석을 위해서는 문항 및 조사단위, 기준들의 변동이 적어야 함
- 일곱째, 지표는 다른 지표와 직접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조사 및 공표 단위가 표준화되어 있는 기준을 사용하여 다른 지표들과 비교가 가능해야 함.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 산업 및 직종의 경우, 표준분류체계를 사용하더라도 공표되는 단위가 다르면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발생함
- 여덟째, 지표는 시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지표를 생산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사회현상과 같은 측정 대상의 상태와 수준, 변화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 및 방지

하기 위험이다. 따라서, 조사 및 공표 주기가 짧을수록 측정 대상의 진단 및 해결 처방 등에 유익이 될 수 있음

- 결국 좋은 지표란 지표체계가 이론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하고 동시에 지표의 산출 과정이 과학적이어야 하며, 나아가 지표의 내용과 구성에 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임

## 라. 지표의 설계 및 산출

- 지표 자체가 생산자의 목적에 따라 설계되고, 도출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지표라고 하더라도 지표를 설계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연구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
- 따라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지표일지라도 지표의 생산자에 따라 지표가 설계되어 산출되는 과정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지표의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이처럼 유일한 기준은 존재할 수 없지만, 지표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표를 개발해온 많은 학자가 논의를 전개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표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든 지표는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의 척도로서 지표가 구비해야 할 논리적 체계와 과학적인 방법론이 필요함
  - 여러 지표개발 관련 실무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면 지표의 생산관점과 지표의 활용관점에서 활용되는 지표설계의 프로세스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표의 생산관점에서는 개념적 기초, 지표 산출의 프로세스, 세부지표의 측정 가능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함
  - 지표의 활용관점에서는 지표의 신뢰성, 시의성, 유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표 2-4〉 지표의 설계 및 산출 과정의 유의사항

	항목	주요 내용
지표 생산관점	개념적 기초 (이론적, 논리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에 충실한 이론적 근거로부터 출발하여 지표의 산출에 이르는 전과정이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함</li> <li>• 지표 고안의 목적과 지표의 목표가 최종 산출된 지표와 일치해야 지표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li> </ul>
	지표 산출의 합리적인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개발 과정과 측정 단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와 참여는 지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유용</li> </ul>
	세부지표의 측정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지표 또는 이를 구성하는 변수들이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함</li> <li>• 이상적인 형태의 지표 또는 세부 변수일지라도 측정할 수 없는 변수이거나 측정의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면 지표의 원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li> <li>• 측정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한 데이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함</li> </ul>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하고 있는 지표의 설명력은 세부지표 또는 변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됨. 하위 설명변수들을 다양하게 포함하는 것이 설명력을 제고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하위지표와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지표의 산출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초래함</li> <li>• 지표의 목적을 달성 수준에 적합한 정도에서 지표 구성의 간결함을 유지</li> </ul>
활용관점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계층의 지표의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신뢰성이 구비되려면, 산출된 지표 값이 신뢰할 수 있는 값이어야 함</li> <li>• 지표체계의 구축과정, 산출과정에서의 신뢰성은 물론이고, 도출된 결과에 대한 지표 소비자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필요성과 생산과정에 대한 지표 대상과의 소통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li> </ul>
	시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공표된 지표는 다음 지표의 공표 시까지 시기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함</li> <li>• 지표의 발표주기는 지표의 설명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소비자물가, 경기변동 등과 같이 월간, 분기별 모니터링이 필요한 동향지표일 수록 시의성이 중요함</li> </ul>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활용의 효과가 있어야 함</li> <li>• 시간, 지역, 국가, 업종 등 다양한 지점에서의 비교 가능해야 함</li> </ul>

출처: 김정석 외(201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지표의 설계 및 산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지표가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주장도 있음
  - Cobb and Rixford(1998)는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징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드러내는 지표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주장은 최종적으로 도출된 지표가 현상적인 결과를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의 배경이 되는 원인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다른 한편으로 지표가 간결할수록 지표를 접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많은 세부 지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표의 유용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
  - 지나치게 간결한 지표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표 값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
  - 지표체계가 다양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면 할수록 결과물의 정교함이 높아지겠지만, 복잡한 체계를 이해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데이터의 측정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2. 지표의 필요성과 의의

- 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한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조직이나 기관이 요구하는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 즉, 대상 주체의 현재 상태를 측정하여 상대적 위상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지표가 필요함
- 어떤 사회적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표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모두 관찰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파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잘 개발된 지표가 존재할 경우, 그 지표를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비교 대상과의 관계와 상대적 위상을 파악하기 용이할 것임
- 도량형과 같은 물리적인 척도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척도로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현상을 측정하여 조직이 올바른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함
-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지표는 단일 통계수치는 물론이고, 여러 다양한 통계를 통합하고, 체계화한 복합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그 활용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지표체계의 유용성은 어떤 정책이나 투입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현상을 이해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하며, 지표의 활용에 의해서 정책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국제기구, 정부 또는 여러 민간 조직이 각종 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은 정책수요 파악, 정책수행 과정의 모니터링, 정책성과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상 사업에 내포된 다양한 문제와 그 과제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함

### 3.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구축에 대한 시사점

- 기존의 지표개발 관련 연구로부터 문화예술동향지표 개발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표개발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 문화예술동향지표가 문화예술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지 또는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지 또는 이를 모두 아우르는 지표체계를 지향할 것인지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
- 둘째, 지표의 대상(지표의 산출대상)과 지표의 주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하여 세부지표와 변수의 선정에 최적화해야 함
  - 지표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총체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화예술을 구성하는 기본조건들(인력, 인프라, 콘텐츠, 소비자 등)을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지수의 소비대상은 정책당국, 문화예술 분야의 공급주체, 문화예술 소비자까지 아우르게 될 것임
  - 지표가 지향하는 바가 미시적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문화예술시장동향, 문화예술소비심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분야라면, 지표의 명칭 또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지표체계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야 함. 문화예술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은 주된 공급자와 수요자가 되어 시장을 형성하는 산업의 영역이기도 함
  - 특히, 경제성장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보임
  -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 분야와 비교하여 문화예술 시장은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공급자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하는 전형적인 독점적 경쟁산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그러므로 문화예술 동향지표는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넷째, 지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활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개발된 많은 지표 중에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신뢰성의 부족, 지표 적용대상의 무관심 등으로 사장되는 사례도 적지 않음
  - 개발된 지표가 정부의 정책수립, 대국민홍보 등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과 발전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지표의 유용성을 제고해야 함
  - 문화예술 동향지표는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에 있어서 소득 및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적 속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지표 체계 구축에서부터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제2절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개념 검토

### 1. 문화예술의 개념적 정의

#### 가. 국내법 정의

- 문화예술에 대한 합의가 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률적 정의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을 정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문화는 예술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표 2-5〉 국내법에 근거한 문화예술의 정의

법률	특징
문화기본법	• 문화(가치, 지식, 양식 등)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장 광의적 정의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분야에 한정된 협의의 개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구분하는 장르보다 포괄적인 장르를 포함

#### 나. 국제기준의 정의

- 유네스코에서는 협의와 광의의 문화예술을 정의하고 있음
  - 협의의 문화예술 정의는 문화예술 장르영역을 의미함
  - 광의의 문화예술 정의는 문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작활동 외에 일반적으로 가치, 지식, 기술, 개인과 집단의 신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유럽연합 문화민주주의지표는 협의 개념으로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활동 및 상품, 서비스 개념 등을 의미함

〈표 2-6〉 국제기준에서 문화예술의 개념적 정의

구분	내용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 인간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창의성과 관련된 활동 영역</li> <li>• (광의)가치, 규범, 지식, 기술, 개인·집단의 신념</li> </ul>
유럽연합 문화민주주의지표 (IF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의 개념으로 문화의 자유, 평등, 문화적 다원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활동 또는 상품·서비스</li> </ul>

출처: UNESCO, Council of Europe Portal

## 2. 문화예술의 범위

### 가. 국내법에서의 문화예술의 범위

- 국내 주요 법률에서의 문화예술의 정의는 개념적 정의보다는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2-7〉 국내 주요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서의 문화예술의 정의

	범주 내용
문화기본법	•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포함
문화예술진흥법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영화, 음악, 출판/인쇄/정기간행물, 방송, 문화재,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 대중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문화상품대상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축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후 재구성함

#### 1) 문화기본법

- 문화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의미

#### 2)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에 정의하는 문화예술은 장르를 의미하며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의미함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산업과 문화시설도 각각 정의하고 있음
  -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 문화시설이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이 복합된 종합 시설, 창작공간, 창작물을 공연/전시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과 대통령령에 의해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 시설 포함

###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을 먼저 정의하고, 문화산업에 포함되는 영역을 정의하고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의미
  - 문화예술진흥법이 장르 특성에 맞는 순환주기 개념을 사용한 반면, 문화산업 기본법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순환주기에서 사용하는 가치사슬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제시한 문화예술범위 외에도 산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를 보다 폭넓게 제시하고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는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

## 나. 문화예술분야 산업분류

### 1) 문화예술산업분류

- 문화예술분야의 구체적인 구분과 규모를 산출하는 산업분류는 문화예술의 정의와 범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임
  - 현재 공식적인 문화예술산업 분류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에 존재하는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문화예술분야를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추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다만,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자체 생산한 자체 문화예술산업분류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문화센터에서는 문화예술산업분류에 의거 문화예술분야 데이터를 추출 및 생산하고 있음

〈표 2-8〉 문화예술산업분류체계

구분	영역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문화예술 산업 분류	문학 및 출판, 공연, 시각예술,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4	12	37	10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원(2015)

### 2) 문화분야특수분류체계

- 범 문화분야에서는 저작권특수분류, 콘텐츠산업특수분류가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표 2-9〉 문화분야 특수산업분류체계

구분	내용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핵심, 상호의존, 부분, 저작권 지원	4	12	56	308

구분	내용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산업, 방송 산업, 게임산업, 공연 산업, 공예품 및 디자인업, 광고 산업, 정보서비스업, 지적재산권 관리업	12	51	13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2011), 문화센터

- 저작권특수분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4가지 대분류 영역을 핵심 저작권산업, 12가지 중분류 영역을 상호 의존 저작권 산업, 56가지 소분류 영역을 부분 저작권 산업, 308가지 세분류 영역을 저작권 지원 산업으로 분류
- 콘텐츠산업특수분류는 OECD 콘텐츠미디어산업 분류와 UNESCO(2009)가 작성한 국제기준을 참조하여 12개 영역 대분류영역과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특수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핵심 산업영역을 어느 범위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문화분야의 범위가 변할 수 있음

#### 다. 문화예술분야의 모호성

- 문화예술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문화예술의 정의와 범위가 가변적일 수 있는 구조
- 문화예술의 개념과 산업적 정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
  -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저작권산업분류는 각각 문화예술분야와 거의 흡사하므로 각 분류를 문화예술분류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다른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정의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현재 콘텐츠산업 특수분류로도 문화예술 산업을 보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어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임
- 문화예술 분야 동향지표체계를 만드는 것은 분류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통계 및 데이터를 동향지표로써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문화예술분야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3절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방향 설정

### 1. 문화예술분야의 설정

- 문화예술동향지표에 관한 논의는 ‘문화예술’과 ‘동향지표’라는 두 개의 개념에 대한 의미를 탐색해봄으로써 이들 두 개념이 결합한 문화예술동향지표의 정의 및 목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음
- 문화예술분야의 개념적 모호성 제거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예술분야를 살펴보았음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의 의미에 정확히 부합하는 지표체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문화예술분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가. UNESCO 통계 프레임워크

- UNESCO 문화예술 통계 프레임워크는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는 틀임
- UNESCO 문화예술 통계 프레임워크에서는 문화예술의 영역 구분과 순환주기(가치사슬)를 제시하고 있음

##### 1) 문화 영역

- UNESCO(2009)에서는 문화영역을 아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박물관, 역사유적, 문화경관, 자연유산 등
  - 공연 및 축제: 공연예술, 음악, 페스티벌, 축제 등
  - 시각예술 및 공예: 순수예술, 사진, 공예 등

- 도서 및 출판: 도서, 출판물, 도서관, 북페어 등
- 시청각 및 쌍방향 미디어: 영화, 비디오, TV, 라디오, 인터넷, 비디오게임 등
-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 패션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경관 디자인, 건축 서비스, 광고 서비스 등

## 2) 문화순환 주기

- UNESCO(2009)에서는 문화를 기능별로 창작, 생산, 전파, 전시, 참여로 구분하고 있음
- 창작: 복제가 불가능한 작품이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
- 생산: 문화라는 형태로 복제나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
- 보급: 대량생산체계를 통해 소비자나 전시자에게 전달되는 것
- 전시/수용/전달: 문화활동을 통해 청중 또는 관객들에게 지식과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권리 교환을 경험하는 것
- 소비 및 참여: 관객과 참여자들이 문화적인 제품을 소비하거나 문화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 3) 문화통계 매트릭스

〈표 2-10〉 유네스코 문화통계 매트릭스

	문화영역					
	문화 및 자연유산	공연	시각예술	도서 및 출판	동영상 매체	디자인 및 창작
창작						
생산		지표		지표		
전파						
전시			지표			
소비 및 참여					지표	

출처: UNESCO(2009)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문화순환주기와 문화의 영역을 교차하여 문화통계 매트릭스가 구성될 수 있고 30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가 구성될 수 있음

#### 4) 횡단 범주

- UNESCO(2009)에서는 분야별 범주 외에도 모든 분야를 가로지르는 무형의 문화유산 범주도 따로 제시하고 있음
  - 무형문화유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 의례, 언어, 사회관습
  - 교육 및 훈련: 문화분야별 교육 및 훈련
  - 아카이빙 및 보존: 문화분야별 아카이빙 및 보존
  - 지원 기자재: 문화 분야별 지원 기자재

#### 5) 관련 영역

-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영역으로 관광과 스포츠 및 오락이 제시되고 있음
  - 관광: 전세 여행 및 여행객 서비스, 숙박 및 집객 서비스
  - 스포츠 및 오락: 스포츠, 신체건강 및 웰빙, 놀이/테마 공원, 도박
- 관련영역의 횡단범주도 무형문화유산, 교육 및 훈련, 아카이빙 및 보존, 지원 기자재로 제시됨

### 나. UNESCO 문화지표

- 유네스코 통계원을 통하여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등 다양한 국제기관의 보고서 및 여러 국가의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유네스코 통계원에서 발표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통계지표는 문화산업에서의 고용과 영화산업 지표,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 등이 있음
  - (문화예술 공급) 문화산업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영화산업에 한정하여 제작편수와 상영관 수, 영화제작 시 사용되는 주요 언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예술 수요) 각국의 영화관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집계하여 수요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예술 고용) 문화 산업 및 직종에 대한 비중을 성별·연령·교육 수준별로 조사하여 고용 관련 통계현황을 제공하고 있음
  - (문화예술 수·출입) 국가별 문화 상품의 수·출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표 2-11〉 유네스코 문화지표 현황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및 상세구분	주기
유네스코 통계원	공급	제작편수, 제작언어, 상영관 수	영화 산업	국가별로 상이
	수요	매출액	영화관	
	고용	종사자 수, 종사자의 교육 수준, 여성 종사자 수	문화 산업 및 직종	
	수·출입	수출비중, 무역수지,	문화상품	

출처: UNESCO UIS

#### 다. OECD 문화지표

- OECD는 세계경제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며, OECD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환경·교육·치안·보건·의료·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예술 혹은 여가로 영역이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며, 정부 및 교육, 고용 등의 영역 하위에 문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제공되고 있음
  - (문화예술 공급) 중앙 정부 및 일반(전체) 정부의 지출액 중 여가 및 문화, 종교에 대한 지출액 등의 공급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예술 수요) 하루 중 5종류의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 비중과 같이 여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예술 인력)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를 비교함으로써 고용영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표 2-12〉 OECD 동향지표 현황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및 상세구분	주기
OECD 통계국	공급	중앙정부지출비율, 일반정부지출비율	여가 및 문화, 종교	국가별로 상이
	수요	여가시간 비율	여가행사 참석·참여, 스포츠, 친구 방문·접대, TV 및 라디오 청취, 기타여가활동	
	고용	전공자 수	전문대 이상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수	

출처: OECD Statistics

## 라. 주요국의 문화지표

-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에서 구분하는 문화예술분류는 기본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음
- 다만, 국가별로 관심영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류의 위계는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한 영역으로 대분류상에 존재함
- 문화예술 영역에 따라 문화 순환주기 전반에 대한 지표를 생산하기보다는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 수출입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3〉 주요국의 문화예술 범위

구분	핵심 범위	규모 추정
영국	창조산업, 문화산업, 디지털 산업, 카지노, 스포츠산업, 통신산업, 관광산업	부가가치액 고용 수출액
캐나다	문화유산 및 도서관, 라이브 공연, 시각예술, 도서 및 출판, 시청각 및 양방향 미디어, 녹음	총생산 고용 생산량
미국	박물관/도서관 및 문화센터, 라이브 공연과 음악, 시각예술, 출판, 시청각 및 양방향 미디어	부가가치액 생산량
호주	문화유산, 예술(문학, 라디오, TV, 영화, 디지털 콘텐츠, 비주얼 아트, 공예, 디자인, 음악, 퍼포먼스 아트)	산업 상품 직업
프랑스	공연예술, 시청각예술, 문화유산, 문화예술교육, 시각예술, 건축, 광고, 도서출판, 신문잡지	부가가치 수출액 수입액 고용

출처: 박근화(2017). 문화체육관광산업의 규모 추정 방안 연구

## 바. 시사점 및 문화예술분야 도출

### 1) 문화예술분야 영역구분

- 각 지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유네스코의 문화예술 영역구분이 통용되고 있음

## 2) 순환주기 구분

-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지표에서는 각 영역의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순환주기가 구성되고 있고, OECD 및 주요국에서는 유사하지만, 국가의 경제관점, 경제주체 관점에서 생산, 노동, 수출입 등의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음

## 3) 문화예술분야의 조작적 정의

-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를 유네스코 통계프레임워크를 차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문화예술이란 **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도서 및 출판, 시청각/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로 구분
  - 자연유산 등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인지 불분명하여 제외

## 4) 동향지표의 조작적 정의

- '동향지표'는 1년 미만의 단위기간(주간, 월간, 분기, 반기)에서의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문화예술적 속성에 대한 지표 성격보다는 경제산업적 속성에 대한 지표의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예술 동향지표 조작적 정의

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도서출판, 시청각/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의 상황을 1년 미만의 기간에서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

## 2. 문화예술 동향지표 목적 검토

### 가. 문화예술의 역할 및 미션

- 문화예술 분야 동향지표를 생성하고 지속적으로 참고하는 이유는 동향지표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해당 부처는 이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함임
- 문화예술분야의 미션 및 방향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미션과도 일맥상통하는 영역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션을 살펴보았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션은 따로 공표되고 있는 것이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기본법에 문화예술분야의 국가에서의 역할이 나타나 있음
  - **(국가발전)** 문화예술분야는 국가발전에 기여해야함
  -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함

#### 문화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상의 문화예술분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기여, 삶의 질의 기여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구성되어야 함

### 나. 국가발전과 삶의 질 영역 구성

- 문화예술분야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지표를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발전 지표와 삶의 질 지표를 살펴보았음

1) OECD 통계

- 세계 주요국의 국가발전 영역과 삶의 질 영역에 대해 통합적인 방향성은 OECD에서 제공하는 지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국가발전 영역과 삶의 질 영역 구성이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OECD는 보편적인 수준에서 공통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표 2-14〉 OECD 국가발전 및 삶의질 주요 지표

국가발전		삶의 질	
구분	범위	구분	범위
경제 전망	현재 상황인식 및 전망	소득	가계자산, 가계 가처분 소득
산업별 생산	주문, 생산, 판매, 생산개시	고용	고용안정성, 개인소득, 장기적 실업률, 고용률
고용 시장	고용률, 실업률 등	일과 삶의 균형	여가시간, 초과근로시간
소비자 물가	주요품목 물가	교육	교육연한, 학생 역량, 교육이수
구매력(PPP)	환율조정 구매력	공동체	공동체의 질
기타	생산자 물가 분기별 국가계정	시민참여	투표율 등
		삶의 만족	주관적 삶의 만족도
		기타 (문화예술분야와 직간접 관련성이 적은 영역)	건강, 안전

출처: OECD Statistics

- 국가발전 영역
  - OECD에서 관리하는 주요 국가발전 지표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경제지표이고, **생산, 고용, 물가, 경제전망이 주요 구성요소임**
- 삶의 질 영역
  - OECD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예술분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은 일과 삶의 균형 영역임
  - 일과 삶의 균형영역에서도 문화예술분야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음



- 다만, 여가시간지표는 문화예술 참여의 가장 중요한 여건 지표이므로 문화예술 참여, 참여를 통한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음

## 2) 한국의 국가지표체계

- 통계청에서는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책모니터링 지표인 e-나라지표와 별개로 국가발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국가지표체계를 제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표 2-15〉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국가발전 지표	삶의 질 지표
지표수	16개 영역 주요지표 93개, 보조지표 107개	11개 영역 총 71개 지표
경제영역	성장, 안정, 고용과 노동, 소득/소비/ 자산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사회영역	인구, 가족, 건강, 교육, <b>여가</b> , 주거와 교통, 범죄와 사법정의,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 생활환경과 오염, 자연자원, 기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b>여가</b> , 주거, 안전,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환경영역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특징	경제, 사회, 환경 포괄	객관적 생활조건, 주관적 인식
각 여가영역 세부영역	문화여가지출률, 여가시간, 문화예술관람률, 생활체육참여율, 여가생활 만족도	문화여가지출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여가생활만족도, 여가시간, 여가시간 충분도, 1인당 여행일수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 ■ 국가발전지표

- 국가발전지표는 국가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제, 사회, 환경으로 구성
- (체계 구성) 투입이 아닌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고, **국가발전,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포괄**하여 구성하였으며,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가 가능한 지표로 구성함

### ■ 삶의 질 지표

-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지표로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됨

- 삶의 질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주관적인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됨

■ 국가지표체계 내 여가 지표

- 국가발전영역, 삶의 질 영역 모두 수요자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대동소이함

3) 문화예술분야 국가발전과 삶의 질 차원의 역할

■ 문화예술과 국가발전

- 전체적인 의미의 국가발전을 전반적으로 국가총생산과 관련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OECD 경제지표, 통계청의 국가발전 지표는 총량적인 의미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문화예술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량적인 방식은 국가총생산에 문화예술 분야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 여부와 관련됨

-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산업의 주요 지표들이 구성되는 것이 필요함. 주요국에서도 이미 문화예술의 경제 기여율이 주요한 지표로 모니터링 되고 있음

- 다만, 문화예술은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정성적 측면도 간과될 수 없음

■ 문화예술과 삶의 질

- 삶의 질 측면에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의 삶의 질에서의 역할을 모니터링하는데 국민의 문화 예술 참여와 관련된 지표들이 구성되어야 함

〈표 2-16〉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속성

구분	국가발전	삶의 질
지표의 목적	경제의 한 축으로서 GDP 기여도	문화예술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주요 속성	문화산업 생산 문화산업 고용 문화상품 가격 문화 소비지출 문화산업 전망	문화예술 영역별 문화 참여

### 3.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구성 방향

- 문화예술분야의 범주 및 문화예술분야의 역할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구성방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기본적으로는 유네스코 문화통계의 틀과 유사하게 **문화예술영역과 순환주기**를 교차한 방식으로 구성됨
  - 다만 순환주기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대체하여 관련 통계를 외부 통계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함

〈표 2-17〉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의 구성방향

문화예술분야	국가발전						삶의 질	
	생산	고용	가격	지출	수출입	전망	참여	지출
전체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문화유산								
공연예술	지표						지표	
시각예술								
도서 및 출판		지표					지표	
시청각 및 미디어							지표	
디자인 및 창조서비스								
기타								

- 동향지표체계의 특성 고려
  - 본 연구는 동향지표(current indicator)임을 고려하여 통계 및 **데이터의 생산주기를 고려하여** 최종 동향지표를 선정해야 함
  - 그리고 유네스코의 통계 프레임워크가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최근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최근의 데이터 활용 지표들도 고려하여 최종 동향지표를 선정해야 함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제3장

## 문화예술 동향지표 관련 현황 분석



# 제1절 문화예술분야 지표 현황

## 1. 문화분야 지표 현황

### 가. 문화 통계

#### 1) 승인통계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에 근거한 승인 통계를 문화예술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19의 승인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중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통계조사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 문화체육관광부 승인통계 현황

분야	통계명	조사대상	조사초점	조사주기
문화예술 콘텐츠	전국도서관통계	기타	공공 도서관	1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가구	문화체육관광 수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개인	문화예술 수요	
	콘텐츠산업조사	사업체	콘텐츠 산업	
	공연예술조사	기타	공연 산업	
	국민독서실태조사	개인	독서 수요	2년
	예술인실태조사	개인	문화예술 인력	3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기타	지역별 공공문화서비스 수요 공급	
	광고산업조사	사업체	창조 산업	1년
	근로자휴가조사	개인	수요 여건	1년
한국수어활용조사	개인	기타	3년	
관광	외래관광객조사	개인	수요	월
	국민여행조사	개인	수요	
	주요관광지접입장객통계	기타	수요	분기
	관광사업체조사	사업체	산업	1년
체육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개인	수요	1년
	스포츠산업조사	사업체	산업	
	국민생활체육조사	개인	수요	
	국민체력실태조사	개인	수요	2년

- 문화예술관련 승인통계는 분야별 국가발전 영역과 삶의 질 영역을 측정하고 있으나, 생산주기가 1년 이상인 통계조사로 이루어져 단기 동향지표에 맞지 않음으로 제외함

### 나. e-나라지표 내 문화지표

- e-나라지표 제공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는 승인통계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비승인 통계, 현황 파악 자료들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임
- 협의의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하면, 공공 문화서비스 영역이 주요 지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광의로 확대하면, 문화산업/미디어/콘텐츠 영역에서 산업적 관점의 문화예술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승인통계와 마찬가지로 공표 주기가 1년 이상이므로 단기 동향지표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표 3-2〉 e-나라지표에 제공되는 문화지표

분야	가치사슬	지표명	출처	주기
문화예술	공급	공연장/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문체부 (시도자료)	매년
	인력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자격위원회)	매년
	공급	공공도서관 현황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매년
	공급	등록박물관/미술관 현황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매년
	수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문체부 (내부행정자료)	매년
	공급	공연/전시횟수	문예연감	매년
	공급	전통사찰 지정등록 현황	문체부 (내부행정자료)	매년



분야	가치사슬	지표명	출처	주기
문화산업/ 미디어/ 콘텐츠	종합	문화산업현황 (매출, 수출, 고용)	콘텐츠산업통계	매년
	생산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매년
	생산	출판현황	한국출판연감	매년
	생산	광고현황	광고산업조사	매년
	수출입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매년
	인력	사이버방송영상 아카데미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실적 보고서	매년
	기타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 점유율 현황	한국영화연감	매년
관광	수요	국민여행총량	국민여행실태조사	매년
	수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관광정보지식시스템	매년
	수출입	관광수지 실적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출입	외래관광객수	한국관광통계	매달, 매년
	수출입	해외여행자수	한국관광통계	매달, 매년
	수요	국제회의 개최 현황	UII 보고서	매년
체육	인력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실적	
	공급	체육시설업 현황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매년
	공급	프로스포츠 운영 현황	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체 통계자료	매년
	공급	공공체육시설 현황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매년
	수요	국민생활체육 참여현황	국민생활체육조사	매년
	인력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	

출처: e-나라지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분야 동향지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문화체육관광 주요 지표 내에 문화예술분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공연통계, 영화통계, 궁능원 관람객수입 - 위 세 지표는 데이터의 완결성, 시의성, 획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수준에서 공표하고 있는 지표로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다만, 위 지표들은 단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기존의 1년 단위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음

〈표 3-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지표	주요 내용	출처	주기
공연통계	공연매출액, 관객수, 장르별 통계, 예매동향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매월
영화통계	영화매출액, 관객수, 지역별 통계	영화통합전산망	매월
공능원관람객수	유료관람객, 무료관람객, 외국인 관람객	문화재청	매월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2. 산업관점의 문화예술 지표 현황

### 가. 산업관점 문화예술 지표 현황

#### 1) 문화센터

- 문화체육관광부는 승인통계 외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문화센터는 영역을 기준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분류 기준을 가지고 타 부처 통계 시스템에서 문화예술영역을 추출해서 동향을 제공하고 있음**
  - (공급) 공급과 관련된 지표는 문화예술 기업경기실사지수, 문화예술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제공하고 있음
  - (고용) 고용부에서는 문화예술 고용동향을 제공하고 있음
  - (수요) 수요측면에서는 문화예술 소비자물가지수, 문화예술 소비자동향지수, 문화예술 가계지출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음

〈표 3-4〉 문화센터에 제공되는 문화지표

구분	지표	문화분야 추출	기준	주기
공급	기업경기실사지수 (현황 및 전망)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문학 및 출판, 공연, 시각예술, 공예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관광/여행 출판, 방송 미디어, 광고/디자인, 스포츠 레저/오락, 문화서비스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매월
고용	고용동향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인쇄 및 기록매 체 복제업, 스포츠 오락 관련 서비스업, 수 상운송업, 항공운송업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매월
수요	소비자물가지수	문화서비스, 스포츠, 레저/여가, 관광/ 여행, 출판, 방송/미디어, 예술용품, 학원비	소비자물가지수 대표품목 중분류	매월
	소비자동향지수 (현황 및 전망)	오프라인 문화생활비, 온라인 문화생활비, 스포츠시설 이용료, 스포츠기구 구입비, 스포츠경기 관람료, 아웃도어 용품 구입비, 미디어기기 구입비, 관광여행비, 국내여행 비, 해외여행비, 도서구입비, 오락용품구입 비, 오락시설 이용료, 음악미술학원비, 스포츠학원비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 분류	분기
	가계지출동향	문화서비스, 영상음향, 출판, 오락용품 오락시설, 오락문화내구재, 스포츠용품 스포츠시설, 아웃도어용품, 관광/여행 학원비, 문구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 분류 소분류	분기

출처: 문화센터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현재 문화센터에서 추출하고 있는 통계는 국가발전 영역에 포함된 생산, 고용, 가격, 수출입, 전망을 포함하고 있으나, 포괄적 소비지출 부분이 빠져 있음
  - 해당 지표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의 국가발전 기여 쪽 단기지표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 주요지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센터의 자료,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 동향지표를 생산·공표하고 있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예술 산업관점의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신용카드 소비지출액을 제외하면, 문화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지표들과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됨

〈표 3-5〉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공표하는 산업관점의 동향지표

구분	지표	문화분야 추출	기준	주기
생산	기업경기실사지수 (현황 및 전망)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문학 및 출판, 공연, 시각예술, 공예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관광/여행 출판, 방송 미디어, 광고/디자인, 스포츠 레저/오락, 문화서비스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매월
고용	고용동향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스포츠 오락 관련 서비스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매월
수요	소비자물가지수 (현황 및 전망)	문화서비스, 스포츠, 레저/여가, 관광/여 행, 출판, 방송/미디어, 예술용품, 학원비	소비자물가지수 대표품목 중분류	매월
	소비자동향지수 (현황 및 전망)	오프라인 문화생활비, 온라인 문화생활비, 스포츠시설 이용료, 스포츠기구 구입비, 스포츠경기 관람료, 아웃도어 용품 구입 비, 미디어기기 구입비, 관광여행비, 국내 여행비, 해외여행비, 도서구입비, 오락용 품구입비, 오락시설 이용료 음악미술학원비, 스포츠학원비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 분류	분기
	신용카드 지출액 (내국인, 외국인)	음악감상(음반 테이프), 악기연주(악기, 피아노대리점), 사진촬영(사진기, 광학제품, 사진관, DPNE), 미술공예참여(골동품, 예술품, 화랑, 표구사, 화방, 수제용품점), 공연관람(공연장, 극장)	문화관광연구원, 카드사 분류	매월
수출입	품목별 수출입 통계	게임, 공예, 레저, 미술용품, 스포츠, 악기, 영화사진, 예술품, 오락, 완구, 출판	HS 코드 세분류	매월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나. 문화예술분야 추출에 사용되는 분류 기준

### 1) 한국표준산업분류

- 표준산업분류란, 산업과 관련된 통계 작성 및 현황 파악의 기준을 동일시하기 위하여 산업활동 및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체계를 의미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1963년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에 제10차 개정을 진행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 5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대분류 기준, 21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산업(A), 2차 산업(B~F), 3차 산업 및 기타(G~U)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구성되어 있음
- 대분류의 경우, 영문대문자 1자리로 표기되며, 중분류는 2자리 숫자, 소분류 3자리 숫자, 세분류 4자리 숫자, 세세분류 5자리 숫자로 표기됨
  - 산업의 수준이 내려가도 앞자리는 동일하므로 해당 산업이 속해있는 상위 수준의 산업을 파악하기에 용이함
  - 세세분류(5자리) 중, ‘연극단체(90121)’를 예로 들면, ‘연극단체’는 대분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중분류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소분류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세분류 공연시설 운영업(9011)의 하위산업으로 분류됨

〈표 3-6〉 한국표준산업분류 구성체계

(단위: 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3	8	21	34
B	광업	4	7	10	12
C	제조업	25	85	183	477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3	5	9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6	14	19
F	건설업	2	8	15	44
G	도매 및 소매업	3	20	61	184
H	운수 및 창고업	4	11	19	48
I	숙박 및 음식점업	2	4	9	29
J	정보통신업	6	11	24	42
K	금융 및 보험업	3	8	15	32
L	부동산업	1	2	4	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14	20	51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11	22	32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5	8	25
P	교육 서비스업	1	7	17	3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6	9	25
<b>R</b>	<b>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b>	<b>2</b>	<b>4</b>	<b>17</b>	<b>43</b>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8	18	41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2	3	3	3
U	국제 및 외국기관	1	1	1	2
합계	21	77	232	495	1,196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2) 산업연관표

- 산업연관표는 국가경제 내의 각 산업 간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과 판매과정을 담고 있는 통계표이며, 한국은행에서 조사 및 발표하고 있음
- 산업연관표는 산업분류표와 상품분류표로 구분이 되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생산자 물가조사는 상품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 산업분류표는 32개의 대분류와 78개의 중분류, 174개의 소분류, 278개의 세분류(기본부문)로 구성되어 있음
  - 상품분류표는 33개의 대분류와 83개의 중분류, 165개의 소분류, 381개의 세분류(기본부문)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연관표의 상품분류표 중에서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산업은 소분류 기준, 신문 및 출판 서비스, 영상·오디오물 제작배급, 문화 및 여행관련 서비스 등 3개의 산업이 있음

〈표 3-7〉 산업연관표 상품분류표 내 문화예술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서비스	신문 및 출판 서비스	신문 및 출판 서비스
	영상·오디오물 제작배급	영상·오디오물 제작배급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문화 및 여행관련 서비스	문화 및 여행관련 서비스

출처: 한국은행(2019). 2015년 산업연관표

### 3) 소비자물가지수 대표품목

- 소비자물가 대표품목이란, 국내 물가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들의 품목을 의미함
  - 실제 가구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는 무수히 많이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품목들은 비슷한 물가변동을 보이며, 조사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품목을 대표품목으로써 지정함
- 소비자물가 대표품목의 선정기준은 농어를 제외한 전국 가구 중에서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일정비율 이상이고, 동종 품목군의 가격을 대표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가격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 내에서의 소멸 가능성이 없어야 함
- 소비자물가 대표품목은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음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133품목), 주류 및 담배(7품목), 의류 및 신발(30품목),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6품목),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49품목), 보건(32품목), 교통(32품목), 통신(6품목), 오락 및 문화(55품목), 교육(20품목), 음식 및 숙박(44품목), 기타상품 및 서비스(36품목) 등
  - 오락 및 문화 55품목은 TV, 영상음향기기, 사진기, 컴퓨터, 컴퓨터수리비,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프린터, 컴퓨터소모품, 저장장치, 피아노, 현악기, 헬스기구, 장난감, 레저용품, 운동용품, 생화, 원예용품, 애완동물용품, 애완동물관리비, 수영장이용료, 스키장이용료,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영화관람료, 공연예술관람료, 전시관입장료, 독서실비, 문화강습료, 온라인콘텐츠이용료, 방송수신료, 사진서비스료, 유아용학습교재, 초등학교학습서, 중학교학습서, 고등학교학습서, 교과서, 대학교재, 서적, 신문, 공책, 스케치북, 복사용지, 기타문구, 필기구, 회화용구, 국내단체여행비, 해외단체여행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품목은 오락 및 문화가 있으며 55개의 품목수를 포함하고 있음

〈표 3-8〉 소비자물가품목 내 문화예술품목

지출품목	품목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133
주류 및 담배	7
의류 및 신발	30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6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49
보건	32
교통	32
통신	6
오락 및 문화	55
교육	20
음식 및 숙박	44
기타상품 및 서비스	36
합계	460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홈페이지 내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함

#### 4)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 분류

- 목적별 지출분류란 가구를 비롯하여 비영리단체, 정부, 생산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거래를 분류하기 위하여 작성된 분류체계임
- 목적별 지출분류는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 분류, 정부기능분류, 목적별 생산자 지출 분류 등 4가지의 대분류로 구성됨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 가구에 의한 모든 소비지출을 비롯하여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정부에 의한 개별적인 소비지출을 분류하고 있으며, 15개의 중분류와 63개의 소분류, 188개의 세분류, 353개의 세세분류로 나뉨
  -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 분류)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지출되는 최종·중간소비, 총자본형성, 경상·자본이전에 관한 거래를 분류하고 있으며, 9개의 중분류와 26개의 소분류, 30개의 세분류를 가지고 있음
  - (정부기능분류) 정부에 의하여 지출되는 최종·중간소비, 총자본형성, 경상·자본이전에 관한 거래를 분류하고 있으며, 10개의 중분류와 68개의 소분류, 108개의 세분류를 가지고 있음



- (목적별 생산자 지출 분류) 금융 및 비금융 기업의 중간소비지출과 자본 지출을 분류하지만,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개발이 보류된 상태임

(표 3-9)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 체계

(단위: 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3	17	76
	주류 및 담배	4	7	11
	의류 및 신발	2	6	14
	주택,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5	15	24
	가구, 가사 비품 및 기타 생활용품	6	13	32
	보건	4	11	19
	운송	4	16	33
	정보통신	3	13	18
	오락, 스포츠 및 문화	8	24	42
	교육 서비스	5	7	9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2	3	7
	보험 및 금융 서비스	2	8	10
	개인미용, 사회보장 및 기타 상품	4	8	18
	비영리단체 개별 소비지출	6	22	22
	정부기관 개별 소비지출	5	18	18
합계		63	188	353

출처: 통계청(2019).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의 대분류인 문화·오락 중 체육 및 관광, 화훼, 애완동물, 복권, 문구 등을 제외하여 문화예술상품을 도출함

(표 3-10) 가계동향조사 항목분류체계 내 문화예술상품

대분류	중분류	분류내용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TV,오디오 등 영상 및 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사진기, 캠코더 등 기록 및 광학장비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영상음향기기, 사진 및 광학장비, 정보처리기기 관련 수리 및 대여서비스
	오락문화 내구재	보트, 캠프카, 행글라이더, 열기구 등 야외용 내구재 오락기구 및 탁구대, 당구대 등 실내스포츠용 오락기구
	악기기구	피아노, 오르간, 플루트 등 악기기구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오락문화 내구재 및 악기의 유지보수 및 대여 서비스를 위한 비용
	문화서비스	전시시설,공연시설,방송수신료,문화용품의 대여료 등
	서적	교과서, 참고서, 교양서적, 전집류 등 모든 서적류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5) HS 코드

- HS 코드는 대외 무역거래를 위하여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한 것을 의미함
- HS 코드는 산업의 유형을 따르는 부, 상품의 군별을 구분하는 류(2자리), 동일 류 내 품목의 종류를 구분하는 호(4자리),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에 따라 분류된 소호(6자리), 국가별로 이하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세분류(10 자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는 10자리(세분류)의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음
  - 회화 작품을 예로 들면, 회화작품은 21부의 97류(예술품·골동품) 9701호(회화·데생과 파스텔) 9701.10소호(회화·데생과 파스텔)의 하위에서 최종적으로 분류되며, 회화(9701.10.1000)로 분류됨

〈표 3-11〉 HS 코드 내 문화예술상품

(단위: 개)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문화 예술 상품	게임	2	4
	공예	8	39
	레저	5	16
	미술용품	3	12
	스포츠	15	49
	악기	7	35
	영화·사진	2	10
	예술품	4	12
	오락	2	6
	완구	3	16
출판	3	13	
합계	11	54	212

출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제2절 문화예술 신규 동향지표 검토

### 1. 문화예술분야 생산데이터 현황

- 문체부 소속 및 유관기관의 생산 데이터 현황은 동향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문화예술 분야를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보았음
- 다만, 단기 동향지표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반기 이내로 생산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데이터는 문화재청이 생산하는 공능원 관람객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생산하는 방문객 현황이 존재함

〈표 3-12〉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지표	생산주체	대상	주요변수	주기
공능원 관람객수	문화재청	4대궁 및 종묘 15 조선왕릉 1개 유적(세종대왕)	유료관람객 무료관람객 외국인 방문객	일간
국립중앙박물관 입장객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본관 및 13개 지역 소속관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	일간

- 공능원 관람현황은 이미 e-나라지표 체계 내에도 존재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동향에도 포함되어 있음
- 박물관 입장현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13개 소속관 데이터를 동향지표로 활용 가능함

## 나. 공연예술

- 공연예술과 관련된 데이터는 크게 공연예술 거래현황과 문화축제현황으로 파악됨

〈표 3-13〉 공연예술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지표	생산주체	대상	주요변수	주기
공연예술현황	예술경영지원센터 (통합전산망)	공연장 운영자, 공연입장권 판매자 공연 기획 및 제작자	공연건수 매출액	일간
문화축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자치단체의 문화축제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	일간 (상시)

- 공연예술 현황은 공연법에 근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연의 거래를 공연 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수집되고 있음
- 문화축제도 공연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축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다. 시각 예술 및 공예

- 시각 예술 및 공예 관련 주요 생산데이터는 국립현대미술관 3개관의 통합 방문객 현황과 미술작품시장의 거래정보로 파악됨

〈표 3-14〉 시각 예술 및 공예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지표	생산주체	대상	주요변수	주기
국립현대미술관 방문객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	방문객 발권정보(유료/무료)	일간
미술시장 정보	예술경영지원센터 (통합시스템)	꼬모옥션, 마이아트 옥션, 서울옥션, 아이옥션, 에이옥션, 칸옥션, 케이옥션	출품작수, 낙찰작품, 낙찰액, 낙찰율	월간

- 국립현대미술관 3개 관은 공간 방문객, 티켓 발부 현황 정보를 매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 미술작품 거래 현황을 통합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라. 도서 및 출판

- 도서 및 출판 분야와 관련해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도서대출현황, ISBN 발급 현황, 출판산업 현황 등이 파악됨

〈표 3-15〉 시각 예술 및 공예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지표	생산주체	대상	주요변수	주기
도서대출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정보나루)	전국 1,157개 도서관(2020. 10. 29일 현재)	도서대출 현황 인기대출도서	일간
ISBN 발급현황	국립중앙도서관	시중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출판물	도서 내용 분류	일간
출판산업현황	출판문화 산업진흥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수집 및 재가공	생산동향, 유통동향 소비동향, 상장사 동향	반기

- 도서대출 현황은 전국 1,157개(2020. 10. 29일 현재) 도서관 정보나루 참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서대출 데이터를 의미함
- ISBN 발급현황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도서식별 기호로 도서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임
- 출판산업현황은 출판산업진흥원이 출판산업분류에 따라 외부데이터에서 출판산업 영역을 추출, 재가공하여 생산하는 데이터임

## 마. 시청각 및 미디어

- 시청각 및 미디어와 관련해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영화현황과 관련된 데이터, 스마트폰 PC 이용행태,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으로 파악됨

〈표 3-16〉 시청각 및 미디어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지표	생산주체	대상	주요변수	주기
영화현황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시스템)	전송사업자 12개 영화관 575개관	관객수, 좌석점유율 스크린점유율	일간
스마트폰·PC 이용행태	방송통신위원회	패널조사 (3,500명, 1,500명)	이용행태(이용시간, 이용서비스 등)	월간
영상물 등급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비디오, 예고편, 광고영화, 광고 선전물	등급분류 현황	일간

- 영화는 문화예술산업 영역의 핵심영역으로 국제적으로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이며, 영화진흥위원에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음
- 스마트폰·PC 이용현황은 방송통신위원에서 매일 스마트폰 패널 3,500명, PC 패널 1,500명을 대상으로 이용행태를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바. 디자인 및 창조서비스

- 디자인 및 창조서비스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는 저작권 등록현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17〉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지표	생산주체	대상	주요변수	주기
저작권등록현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저작 인접물(실연, 음반), 데이터베이스	분야별 저작권 등록현황	일간

- 저작권등록현황은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저작권 등록 현황을 의미함

## 사. 공통 및 기타 현황

- 분야가 특정되지 않고, 모든 문화예술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공통 및 기타현황으로 분류하였음
-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현황은 등록예술인현황, 문화예술교육사 현황, 예술강사현황, 전문예술인단체 현황, 문화자원봉사자 현황 등이 파악됨

〈표 3-18〉 인력 및 단체 관련 주요 생산 데이터

지표	생산주체	대상	주요변수	주기
등록예술인현황	예술인복지재단	등록예술인	장르별 등록예술인	상시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현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현황, 교육활동	상시
전문예술법인 단체현황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단체	지정유형, 법정유형 활동유형별 현황	상시
문화자원봉사현황	한국문화자원연합회	문화자원봉사자 문화자원봉사 활동	등록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매칭	상시

- 창작예술인, 문화예술매개자(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등 주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가 상시로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같은 맥락에서 문화예술 창작하거나, 매개하는 단체의 현황을 상시로 수집하고 있음
- 문화자원봉사 현황은 문화체육영역의 자원봉사자 등록, 자원봉사 매칭,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구성됨
- 교육 및 기타현황으로는 문화예술교육참여현황, 통합이용권 이용현황, 문화상품권 사용현황, 문화가 있는 날 행사 현황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19〉 교육 및 기타 생산 데이터

지표	생산주체	대상	주요변수	주기
문화예술교육참여 현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참여자	교육 참여자 장르별 참여자	상시
통합이용권 사용현황	문화예술위원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소지자	사용 영역, 집행률	상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현황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참여기관	지역별 행사	상시
문화상품권 현황	(주)한국문화진흥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판매/ 유통 현황 거래내역, 구입상품/서비스	상시

- 문화예술교육참여 현황은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서비스에 참여한 현황을 의미
- 통합이용권 사용현황은 카드소지자의 카드사용 관련 데이터 파악 가능
-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월별로 지역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조사 수집함
- 문화상품권 현황은 현재 문화상품권 판매, 유통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임

## 2.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가안 도출

- 문체부 차원에서 수집하는 승인통계, e-나라지표 제공 통계는 주기가 모두 1년 이상으로 단기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지표로 모두 제외하였음

〈표 3-20〉 문체부 유관기관 생산 데이터

분야	주요 통계	출처	특징	주기
문화유산	공능원 관람객수	문화재청	수요 정보	매월
공연예술	공연예술현황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민간/공공 통합 정보 수요/공급 정보	매일
	문화축제현황	공공데이터포털	공급 정보	매일
시각예술	미술시장정보	예술경영지원센터	민간 시장 정보	매월
	국립현대미술관 방문객	국립현대미술관	국립 미술관에 국한 수요 정보	매일
	국립중앙박물관 <sup>1)</sup> 방문객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박물관에 국한 수요 정보	매일
도서 및 출판	도서대출현황	도서관정보나루	공공 도서관 위주	매일
	ISBN 발급 현황	국립중앙도서관	유통되는 모든 서적	매일
	출판산업현황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기 다소 김	반기
시청각 및 미디어	영화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수요/공급 정보	매일
	스마트폰·PC 이용행태	방송통신위원회	패널 데이터 활용	매월
	영상물등급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급 정보	매일
	아리랑 TV 구독자 현황	아리랑 국제방송	한류 정보	매일
디자인 및 창조서비스	저작권 등록현황	한국저작권 위원회	창조산업 생산 정보	매일
인력 및 단체	등록예술인	예술인 복지재단	일간 변화량이 거의 없을 가능성 높음	매일
	문화예술교육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매일
	전문예술법인단체	예술경영지원센터		매일
	문화자원봉사현황	한국문화원연합회	시민 참여 정보	매일
교육 및 기타	문화예술교육 참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데이터 신뢰도	매일
	통합이용권 사용 현황	문화예술위원회	데이터 확인 필요	매일
	문화상품권 유통현황	(주)한국문화진흥	-	매일
	문화가 있는 날 현황	지역문화진흥원	국정사업이긴 하나 지표로서 활용성 낮음	매월
	문화 통합정보	문화포털	온라인 방문기록 확인	매일

1)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동향은 문화유산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각예술 영역으로 배치함



- 문화예술 분야별 동향 지표는 문체부 유관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분야별 통계는 주기가 빠른 지표들 위주로 구성함
  - 문체부 유관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세분화된 영역에 국한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즉 문화예술분야의 부분별 미시지표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일부 통계 데이터는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음
- 그리고 문화의 순환주기에 따라 공급, 수요, 고용을 볼 수 있는 틀에 따라 지표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1〉 문화예술분야 부분별 동향지표 가안

산업관점	문화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급	도서출판	도서보유권수	도서관정보나루	매일
		ISBN 발급 동향	국립중앙도서관	
	공연	공연건수, 매출액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지역 문화축제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영화	영화개봉편수, 매출액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매월
	미술	미술작품 거래건 수, 매출액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창조서비스	저작권 등록 동향	저작권위원회	매일
수요	도서출판	도서대출건수	도서관정보나루	매일
	공연	공연예매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영화	영화관객 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시각	미술관 관람동향	국립현대미술관(3개관)	매일
		박물관 관람 동향	국립중앙박물관(14개관)	
		시청각/미디어	스마트폰·PC 이용시간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유산	공·능·원 관람객수	문화재청	매월
인력		예술활동증명자 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매월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매월
		문화자원봉사 매칭건수	한국문화원연합회	매월
기타	교육	문화예술교육참여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매월
	온라인	문화포털 이용자	한국문화정보원	매일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신규	매월

- 다만, 지표의 특성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단기적으로 큰 의미를 주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지표체계에는 포함하되 단기적인 모니터링에서는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인력 부문은 거의 변화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문화예술 교육 참여자는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계획했던 인원을 참여인원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높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동향지표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은 주요 사회부처의 현황을 참고하여 추가함

### 3. 주요 경제 및 사회 동향지표 현황

- 현재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수준 외에 추가적으로 문화예술분야를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주요부처의 동향지표 현황을 살펴보았음

#### 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

- 현재 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문화동향지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화센터에 포함되지 않은 신용카드 소비지출액 동향이 존재함

##### 1) 신용카드 지출액 데이터

- 민간 신용카드 회사가 수집하고 있는 신용카드 지출데이터를 통해 국내 소비 지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
  - (분류) 문화예술과 관련된 상품군으로는 취미오락, 문화예술활동 등이 있음
  - (문화예술 수요) 문화예술과 연관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신용카드 지출액은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 분류의 품목과는 달라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표 3-22〉 신용카드 지출액 데이터 개요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상세구분	주기
신용카드 지출액 데이터	주요	신용카드 지출액	취미 오락	종합쇼핑(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슈퍼마켓, 쇼핑몰, 대량양판점, CATV상품판매, 농협(마트), 전자상거래(다품목취급), 결제대행(PG), 소셜커머스), 패션쇼핑(남·여 기성복, 양복, 양품점, 아동복, 캐주얼의류, 제화점, 가방·핸드백(가죽), 기성화(신발), 시계점, 귀금속·금·은·보석, 약세사리), 외식(제과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뷔페, 커피전문점, 일반대중음식(까페·생맥주·치킨), 패스트푸드), 유흥(룸싸롱, 칵테일·스텐드바), 극장식당,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인터넷게임(정보통신기기·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오락실, PC 게임방), 미용(안경·콘택트렌즈, 화장품, 이용·미용, 피부미용실, 미용재료, 스포츠마사지, 체형관리), 목욕(싸우나탕, 대중목욕탕), 독서(서적), 애완동물돌보기(애완동물, 동물병원), 교육훈련(일반전문학원, 자동차학원), 종교활동(종교상품점, 종교단체, 무속·철학관)	매월
			문화 예술 활동	음악감상(음반 테이프), 악기연주(악기, 피아노대리점), 사진촬영(사진기, 광학제품, 사진관, DPNE), 미술공예 참여(골동품, 예술품, 화랑, 표구사, 화방, 수제용품점), 공연관람(공연장, 극장)	

## 나. 통계청

- 현재 통계청에서 수집 발표하는 주요 지표 중에 특정영역에 특화된 조사를 제외한 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23〉 통계청 소관 주요 동향지표

지표 명	세부 항목	조사주기	공표방식
경기종합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행종합지수(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기준)</li> <li>• 선행종합지수(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선박제외),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기준)</li> <li>• 후행종합지수(생산자제품재고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서비스), 소비자수입액, 취업자수, CP유통 수익률 기준)</li> </ul>	매월	통계청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48개 항목</li> </ul>		

지표 명	세부 항목	조사주기	공표방식
국내인구이동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인구, 인구변동요인(전입, 전출, 출생, 사망 등), 전입지, 전입일자, 전출지,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li> <li>국내인구이동수, 국내인구이동건수(전입신고건수)</li> </ul>		
국제인구이동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인(출입국구분, 출입국일자, 출입국항구, 성, 연령)</li> <li>외국인(출입국구분, 출입국일자, 출입국항구, 성, 연령, 국적, 체류자격)</li> </ul>		
서비스업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업부문(월간 매출액, 영업일수, 종사자수, 특성항목 등)</li> <li>도매업부문(월간 영업일수, 월말 종사자수, 월간 상품판매액, 수출액, 국내 판매액, 월말 상품재고액, 증감사유, 사업체 일반 사항 등)</li> <li>소매업부문(월간 영업일수, 월말 종사자수, 매장면적, 월간 상품판매액, 상품군별 금월 판매액, 월말 상품재고액, 증감사유, 사업체 일반 사항 등)</li> </ul>		
소비자물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된 품목 460개 및 조사상품, 1,001개의 실제 거래가격</li> <li>집세(집세 종류, 집세 액, 주택특성 등)</li> </ul>		
소비자전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인식</li> <li>경기인식판단 및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li> <li>가구의 생활형편</li> <li>가구의 소비지출(소비지출, 외식여가문화생활관련 지출, 내구소비재지출)</li> <li>취업기회 여부</li> <li>향후 물가 전망</li> <li>가구의 자산가격 평가</li> <li>가구소득(가구의 월평균 소득, 가구 소득 평가 및 기대 등)</li> <li>가계의 저축과 부채 상황</li> <li>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수준</li> </ul>		
온라인쇼핑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쇼핑몰명, 운영회사명, 사이트주소, 모바일 앱 또는 웹 보유여부, 취급상품 범위별·운영형태별 상품 및 서비스 거래액 세부내역</li> </ul>		
인구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신고일자, 출생자 및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 신고인 등)</li> <li>사망(신고일자, 사망자 및 신고인에 관한 사항, 사망 원인, 사망종류 등)</li> <li>혼인(신고일자, 혼인당사자 관한 사항, 증인, 동의자,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국적, 혼인종류 등)</li> <li>이혼(신고일자, 이혼당사자 및 부모에 관한 사항, 재판확정일자, 친권자지정, 제출인, 19세 미만 자녀수, 국적 등)</li> <li>기타(실종신고, 기아발견, 혼인취소신고)</li> </ul>		

지표 명	세부 항목	조사주기	공표방식
전산업생산지수 <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업생산지수</li> <li>• 농림어업생산지수<sup>3)</sup></li> <li>• 광공업생산지수<sup>4)</sup></li> <li>• 서비스업생산지수<sup>5)</sup></li> <li>• 건설업생산지수<sup>6)</sup></li> <li>• 공공행정활동지수<sup>7)</sup></li> </ul>		

## 나. 기획재정부

- 현재 기획재정부 및 소속기관 업무 관련 주요 동향지표 작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획재정부의 부처의 주요 역할인 재정과 관련된 영역은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외부 테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 
- 2) 전산업생산지수(Index of All Industry Production; IAIP)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된 산업들의 생산 활동을 총합하여 지수로 작성한 것으로, 전체 산업생산활동의 단기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 되도록 하기 위해 작성
  - 3) 농림어업생산지수(Index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Production)는 농림어업의 연도별 생산 동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년도 농림어업별 국내 총생산액의 1/10,000 이상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을 지수로 작성
  - 4) 광공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는 국내 생산활동 동향을 월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생산실적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지수를 작성. 2010년 기준 광공업생산지수는 2010년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부문 총 생산액의 1/5,000 이상이 되는 613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0년 업종별, 품목별 부가가치를 가중치로 라스파이레스(Laspeyres)산식으로 산출
  - 5) 서비스업생산지수(Index of Service Industrial Production)는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핵심지표로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
  - 6) 건설업생산지수(Index of Construction Production)는 일반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기성액을 발주자별 및 공사종류별로 작성하는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의 공종별 불변건설기성액을 기초자료로 지수를 작성
  - 7) 공공행정활동지수(Index of Public administration activities)는 국가, 지자체, 사회보장기관 등이 제공하는 각종 공공행정활동을 월별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사업성격에 따른 산업분류를 원칙으로 집계(일반회계를 포함하고,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는 제외)

〈표 3-24〉 기획재정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지표 명	세부 항목	조사주기	공표방식
일일 경제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콜금리, CD, 국고채 등)</li> <li>• 주가(KOSPI, KOSDAQ, 외국인순매수)</li> <li>• 환율(원/달러, 원/엔, 원/위안 등)</li> <li>• 국제금리·주가·가산금리</li> <li>• 유가·곡물·원자재</li> <li>• 반도체(D램 현물가, 낸드 현물가)</li> </ul>	매일	부처 홈페이지
월간 경제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고용률, 실업률 등)</li> <li>• 물가 및 수출입 단가</li> <li>• 국민소득계정</li> <li>• 실물경제(생산과 출하, 투자, 소비)</li> <li>• 대외거래(국제수지, 수출입 등)</li> <li>• 통화·금리</li> <li>• 경기(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등)</li> <li>• 재정(통합재정지출, 통합재정수입 등)</li> <li>• 해외지표(주요국의 GDP규모, 국제금리·국제원유 및 1차 상품가격 등)</li> </ul>	매월	
통합재정수지 <sup>8)</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재정수입(경상수입, 자본수입<sup>9)</sup>)</li> <li>• 통합재정지출(경상지출, 자본지출<sup>10)</sup>)</li> <li>• 순융자<sup>11)</sup></li> <li>• 통합재정수지</li> </ul>	매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직접투자액</li> <li>• 순투자액<sup>12)</sup></li> <li>• 투자회수금액</li> </ul>	분기	

## 다. 고용노동부

- 현재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업무 관련 주요 동향지표 작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고용노동부는 정책 목표인 고용과 관련된 사업체, 실업, 고용, 산업재해 동향지표들을 제공하고 있음

8) 통합재정수입-통합재정지출

9) 고정·재고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수입 등

10) 고정·재고자산 매입비, 지방정부 등에 대한 자본이전

11) 융자지출-융자회수

12) 총투자액 - 투자회수액(지분 매각, 대부투자 회수, 청산)

〈표 3-25〉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지표 명	세부 항목	조사주기	공표방식
e-고용노동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시장(실업률, 취업자 수, 1인당 노동비용, 근로시간, 비정규직 임금수준 등)</li> <li>• 노동정책(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노조조직률 등)</li> <li>• 대상별정책(청년고용률, 여성실업률,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증사회적기업 수 등)</li> <li>• 일자리사업(재정지원일자리사업 예산액, 재직자훈련 수혜 인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자 수 등)</li> </ul>	매월 매년	별도 전용홈페이지
지역별 노동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지역 경제동향(서비스업생산지수, 대형소매판매액지수, 제조업 생산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액, 수입액)</li> <li>• 해당지역 고용동향(15세 이상 인구수, 취업자 수,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li> <li>• 해당지역 고용행정통계(구인·구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피보험자, 실업급여 지급현황 등)</li> </ul>	매월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구직급여 신청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 구직급여 신청 동향(구직급여 신청자·지급자·지급액)</li> <li>• 분기별 구직급여 신청자 수(성별·연령별·소정급여일수별, 반복신청별, 산업별·사업장규모별·지역별)</li> </ul>	매월	통계청 홈페이지
사업체 노동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 현황(사업체 명칭, 경영형태, 사업체형태, 소재지, 주요 생산품명 등)</li> <li>• 종사자 및 빈 일자리, 입/이직에 관한 사항(종사상 지위별/종사자 수 등)</li> <li>•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임금이 지급된 근로자수, 근로자수 변동사유,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 중 출근하지 않은 일수, 휴일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근로시간 변동사유, 임금총액, 정액/초과/특별급여, 고정 상여금, 임금변동사유 등)</li> </ul>	매월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산업재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산업재해 발생현황(업종별·규모별·지방청별 재해자 및 사망자)</li> <li>• 사고재해 발생현황(업종별·규모별·재해유형별 재해자 및 사망자)</li> <li>•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발생현황(업종별·규모별·재해유형별 사망자)</li> <li>• 질병재해 발생현황(업종별·규모별·질병종류별 질병자 및 사망자)</li> </ul>	매월	부처 홈페이지

## 다. 산업통상자원부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기관 업무 관련 주요 동향지표 작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의 가치사슬 중심의 지표가 생산되고 있으며, 산업군별 동향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표 3-2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지표 명	세부 항목	조사주기	공표방식
일일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가</li> <li>• 환율</li> <li>• 유가</li> <li>• 국내외 주요이슈</li> <li>• 해당일 발표보고서 목록<sup>13)</sup></li> </ul>	매일	부처 홈페이지
일일경제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율</li> <li>• 금리</li> <li>• 유가</li> <li>• 반도체</li> <li>• 유가</li> </ul>	매일	
원자재 가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두바이유, 액화천연가스 등)</li> <li>• 철강(철광석, 고철 생철 등)</li> <li>• 석유화학(나프타, 에틸렌)</li> <li>• 비철금속(알루미늄, 니켈, 아연 등)</li> <li>• 펄프&amp;종이(펄프, 폐골판지)</li> </ul>	매일 매주 매월	
소재·부품 산업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 생산수량·금액</li> <li>• 내수출하수량·금액</li> <li>• 수출출하수량·금액</li> <li>• 재고수량·금액</li> </ul>	매월	소재부품종합정보망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사항(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li> <li>• 매출동향 및 전망(전월·전년동월 매출실적, 구매고객 수, 고객1인당 구매단가, 대상점포수 및 지점명, 전체 매출신장 또는 부진사유, 구매고객수 및 구매단가 증감사유)</li> <li>• 상품군<sup>14)</sup>별 매출액 분석(전월·전년동월 각 상품군별 매출액, 매출변화 상품 및 사유)</li> </ul>	매월	통계청 홈페이지
제조업 경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일반현황</li> <li>• 경기 현황(전분기 대비 주력제품 업종 상황, 전분기 대비 경영실적, 전분기 대비 자금사정<sup>15)</sup>, 다음분기 주력제품 업종 상황, 다음 분기 경영실적 전망, 다음분기 자금사정 전망)</li> </ul>	매월	부처 홈페이지

## 라. 중소벤처기업부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관련 주요 동향지표 작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13) 수출입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타 기관에서 작성된 동향 및 전망 보고서

14) 조사표에 제시된 상품구분은 임의적임(실제 기업에서 구분 가능한 상품군 별로 재분류)

15) 일반적으로 회사채, 통안증권 등 채권수익률, 어음부도율, 요구불예금회전율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기 및 현재 각 개별 기업의 상대적 자금수급여건을 비교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의 대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류를 중심으로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최근 창업기업동향을 추가하여, 통계청 e-나라지표에 추가하기도 하였음

〈표 3-27〉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지표 명	세부 항목	조사주기	공표방식
소상공인시장경기 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 개요(업체명, 대표자, 주소, 시장여부, 시장명, 종사자수, 업태/업종, 전화번호)</li> <li>• 월간 경기동향 실적 및 전망(매출, 자금사정, 재고, 고용, 경기전반에 대한 평가, 평가의 호전/악화이유)</li> </ul>	매월	부처 홈페이지
창업기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의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조직형태별 창업 동향</li> <li>• 신규성립사업장수, 소멸사업장수</li> </ul>	매월	
중소기업경기 전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속성(일반형/혁신형 기업 여부, 수출 여부, 대기업납품 여부)</li> <li>• 경기전반(업황)에 대한 판단, 경기변화방향(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생산 또는 원자재 조달사정)</li> <li>• 수준판단(생산설비수준, 제품재고수준, 고용수준)</li> <li>• 기업경영상 애로요인, 중소기업평균가동률</li> </ul>	매월	

## 마.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모든 경제 지표를 체계화 하여 100대 경제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표 3-28〉 한국은행 소관 주요 동향지표

지표명	세부 항목	주기	공표방식
통화 및 유동성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화(협이통화, 광이통화)</li> <li>• 유동성(금융기관유동성, 광의유동성)</li> </ul>	매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홈페이지
가중평균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li> <li>• 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li> <li>• 여수신비중(정기예금 비중, 가계대출 비중)</li> <li>• 고정금리대출 비중(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li> <li>• 특정금리연동대출 비중(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li> </ul>		
국제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수지(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li> <li>• 금융계정(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li> </ul>		
기업경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경기실사지수(매출, 생산, 신규수주, 제품재고수준, 가동률, 생산설비수준, 설비투자실행, 채산성, 원자재구입가격, 제품판매가격, 자금사정, 인력사정)</li> </ul>		

지표명	세부 항목	주기	공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심리지수(매출, 생산, 신규수주, 제품재고수준, 가동률, 생산설비수준, 설비투자실행, 채산성, 원자재구입가격, 제품판매가격, 자금사정, 인력사정)</li> </ul>		
소비자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심리지수(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li> <li>소비자동향지수(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li> </ul>		
생산자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자물가지수</li> <li>국내공급물가지수</li> <li>총산출물가지수</li> </ul>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재산권 무역수지(유형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거래상대방 국가별)</li> </ul>	분기	
가계신용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계신용 잔액(가계대출 잔액, 판매신용 잔액)</li> <li>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li> </ul>		

## 바. 주요 사회부처

- 주요 사회부처는 경제적 관점의 지표와 부처의 역할과 관련된 영역 지표체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 1) 보건복지부

- 현재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업무 관련 주요 동향지표 작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경제관련 지표로는 수출입 동향 중 보건산업을 추출해서 살펴보고 있고, 보육산업 통계 등의 지표를 생산하고 있음
  - 부처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현황, 보건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현상이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표 3-29〉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지표 명	세부 항목	조사주기	공표방식
코로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발생 현황</li> <li>국외 발생 현황</li> <li>시도별 발생동향</li> <li>확진환자 이동경로</li> </ul>	매일	별도 전용홈페이지
소셜 데이터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관련 26개 키워드의 일일 검색량</li> </ul>	매일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
보건산업 수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산업 월별 수출액 및 증감율</li> <li>누적 수출액</li> <li>품목별(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보건산업) 수출액 및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li> <li>수출 상위 10개 국 현황</li> <li>수출 상위 10개 품목 현황</li> </ul>	매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보육사업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현황(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li> <li>아동재원 현황(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li> <li>보육교직원 현황(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li> </ul>	매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주요업무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기관 사용기관 및 사용자 현황</li> <li>지역별 보건기관 사용현황</li> <li>보건기관별 서비스 이용 현황</li> <li>진료 상병 상위 10개</li> </ul>	매월	

## 2) 교육부

- 현재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주요 동향지표는 다음과 같음
  - 교육부도 복지부와 유사하게 교육부 관련 키워드 정보발생 동향을 파악

〈표 3-30〉 교육부 소관 주요 동향지표

지표 명	세부 항목	조사주기	공표방식
주간 교육동향 카드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 교육부 10대 추진과제 관련 정보 발생량<sup>16)17)</sup></li> <li>상위 3개 과제 주간 정보량 발생추이</li> </ul>	매주	부처 홈페이지
등교수업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교수업일 조정 현황</li> <li>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li> <li>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li> </ul>	매일	

16) 교육부 10대 추진과제 관련 언론기사, 커뮤니티, SNS 게시물 분석

17) 빈도분석, 잠재 디리클레 할당분석(주어진 문서에서 어떤 주제가 존재하는 지 보여주는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

## 4.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가안 도출

### 가. 주요 부처 가치사슬별 동향 지표 검토

〈표 3-31〉 가치사슬 별 주요부처 동향지표 현황

	공급	수요	고용	수출입
문화체육 관광부		신용카드 지출액	-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서비스업동향조사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전산업생산지수	경기종합지수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소비자물가조사 소비자전망조사	경기종합지수 경제활동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경기종합지수 서비스업동향조사
기획 재정부	일일경제지표 월간경제지표	-	월간경제지표	월간경제지표 통합재정수지 해외직접투자동향
고용 노동부	지역별 노동시장 동향 사업체 노동력조사	-	e-고용노동지표 지역별 노동시장 동향 구직급여신청동향 사업체 노동력조사 산업재해현황	-
산업 통상 자원부	일일산업동향 일일경제지표 원자재 가격정보 소재·부품 산업동향조사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 조사 제조업 경기조사	-	-	소재·부품 산업동향조사
중소 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 조사 창업기업동향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 조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한국은행	통화 및 유동성 지표 가중평균금리 기업경기조사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동향지수 가계신용동향	-	국제수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보건 복지부	보육사업통계	소셜 데이터 통계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주요업무 통계	-	보건산업 수출 동향
교육부	등교수업 관련 현황	주간 교육동향 카드뉴스	-	-

- 앞서 검토한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생산·공표하는 주요 동향지표를 가치사슬별로 분류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추출가능여부를 검토함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발표하는 동향지표의 경우, 문화예술분야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거나, 문화예술분야를 분류하고 있더라도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등의 핵심 통계 기관의 동향지표와 중복되는 지표들이므로 세부검토에서 제외함

####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

- 수요영역에 해당하는 동향지표가 1개 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신용카드 지출액이 이에 해당함
  - 문화예술과 관련된 상품군으로는 취미오락, 문화예술활동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과 연관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있음

#### 2) 통계청

- 공급·수요·고용·수출입 영역에 총 15개의 동향지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종합지수와 서비스업동향조사의 경우 여러 영역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 공급영역의 경우, 경기종합지수, 서비스업동향조사,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전사업생산지수 등 4개의 공급동향지표로 구성됨
  - 수요영역의 경우, 경기종합지수,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소비자물가조사, 소비자전망조사 등 6개의 공급동향지표로 구성됨
  - 고용영역의 경우, 경기종합지수, 경제활동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등 3개의 공급동향지표로 구성됨
  - 수출입영역의 경우, 경기종합지수, 서비스업동향조사 등 2개의 수출입동향지표로 구성됨
- 통계청의 동향지표 중에서 문화예술분야가 추출가능하고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사용가능한 지표는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 온라인쇼핑동향

향조사, 가계동향조사(소비 및 지출),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5개의 지표가 있음  
 -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생산지수를 비롯하여 매출액, 종사자수, 수출액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13개의 문화예술관련 산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가 핵심인 것으로 판단됨

〈표 3-32〉 서비스업동향조사 내용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및 상세구분	주기
서비스업 동향조사	공급	서비스업생산 지수	인쇄 및 복제업, 기록매체 복제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제조업,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전문 디자인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매월

- (소비자물가지조사) 가구의 소비변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55개의 문화예술분야 대표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오락 및 문화 영역이 존재함

〈표 3-33〉 소비자물가지수 내용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상세구분	주기
소비자 물가지수	수요	소비자 물가지수	오락 및 문화	TV, 영상음향기기, 사진기, 컴퓨터, 컴퓨터수리비,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프린터, 컴퓨터소모품, 저장장치, 피아노, 현악기, 헬스기구, 장난감, 레저용품, 운동용품, 생화, 원예용품, 애완동물용품, 애완동물관리비, 수영장이용료, 스키장이용료,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영화관람료, 공연예술관람료, 전시관입장료, 독서실비, 문화강습료, 온라인콘텐츠이용료, 방송수신료, 서진서비스료, 유아용학습교재, 초등학교학습서, 중학교학습서, 고등학교학습서, 교과서, 대학교재, 서적, 신문, 공책, 스케치북, 복사용지, 기타문구, 필기구, 회화용구, 국내단체여행비, 해외단체여행비	매월

- (온라인쇼핑 동향조사) 문화예술과 관련된 상품은 서적, 문화 및 레저서비스 등 2가지의 상품군이 있으며, 온라인·모바일쇼핑 거래액, 종합·전문몰 거래액, 온라인·온/오프라인 병행몰 거래액 등의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표 3-34〉 온라인쇼핑 동향조사 내용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상세구분	주기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	수요	온라인쇼핑 거래액, 모바일쇼핑 거래액, 종합몰 거래액, 전문몰 거래액, 온라인몰 거래액, 온·오프라인병행몰 거래액	서적	e-Book을 제외한 각종 도서	매월
			문화 및 레저서비스	영화, 공연 등의 예약 서비스	

- (가계동향조사) 소득과 지출부문으로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지출부분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영역은 오락·문화영역으로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단체여행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3-35〉 가계동향조사 내용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상세구분	주기
가계 동향조사	수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매월
		소비 지출액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양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오락문화 내구재, 악기기구,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문화서비스, 서적	

-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 고용동향을 통해 산업별 취업자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취업자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표 3-36〉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상세구분	주기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용	취업자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자영예술가,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기록보존 소 및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매월

### 3) 고용노동부

- 공급영역과 고용영역에 총 7개의 동향지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노동시장 동향과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경우 공급영역과 고용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공급영역의 경우, 지역별 노동시장 동향과 사업체 노동력조사 모두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지역별 노동시장 동향의 고용행정통계의 경우, 신규성립사업장과 소멸사업장 등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표 3-37〉 고용행정통계 공급분야 지표 현황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및 상세구분	주기
고용 행정 통계	공급	사업장수, 신규성립사업장수, 소멸사업장수	인쇄 및 복제업, 기록매체 복제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약기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전문 디자인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매월

- 고용영역의 경우, 지역별 노동시장 동향에서는 피보험자수를 비롯하여 피보험 취득자와 상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는 고용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1인당 평균 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표 3-38〉 고용행정통계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영역 지표 현황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및 상세구분	주기
고용 행정 통계	고용	피보험자수, 피보험취득자수, 피보험상실자수	인쇄 및 복제업, 기록매체 복제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약기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전문 디자인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매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1인당 평균 임금, 1인당 평균 근로시간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4) 한국은행

- 공급영역과 수요영역, 수출입영역에 총 8개의 동향지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급영역의 기업경기조사와 수요영역의 소비자동향조사의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용을 진행하지 않음
- 공급영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상품의 수급상황을 비롯하여 경기 동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표 3-39〉 생산자물가지조사 내용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상세구분	주기
생산자물가지조사	공급	생산자물가지수	신문 및 출판서비스	신문 및 출판	매월
			영상·오디오품 제작 배급	영상·오디오품 제작배급, 영화상영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문화서비스(국공립), 연극·음악 및 기타예술, 기타 문화서비스,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	

- 수출입영역에서 문화예술분야를 가장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는 지표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이며, 산업재산권 내의 디자인권과 저작권 내의 문화예술저작권으로 구분되어 있음
-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한류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에서 저작권 역시 지속적으로 동향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예술저작권은 2020년 2/4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재산권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40〉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내용

지표출처	구분	지표명	영역	상세구분	주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수출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디자인권	-	매월
			문화예술저작권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음악·영상	

## 나.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가안

### 1)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가안

- 문화예술산업기능별 지표는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문화예술의 산업 기능적 측면과 주요 경제 주체(국가, 기업, 가계)의 관심 영역을 중심으로 **시장의 수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고용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시장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 후 해당 지표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산업 가치사슬 중심으로 공급, 수요, 고용, 수출입 영역**에서 문화예술분야를 추출할 수 있는 지표를 망라하여 통합적으로 구성하였음

〈표 3-41〉 외부 데이터 활용 문화예술 지표

	지표명	생산	출처	주기
공급 (기업)	시가총액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매일
	주가지수			매일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매월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	서비스산업동향조사	매월
	기업경기실사지수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매월
	사업자 수	국세청	사업자 현황	매월
	사업장수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	매월
	신규성립사업장수			매월
	소멸사업장수			매월
수요 (가계)	신용카드 지출액	신한카드	신한카드 데이터	매월
	소비자심리지수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매월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매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매월
	가계동향 (가구당 소비자지출액)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비부문)	분기
고용	취업자 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매월
	1인당 평균 임금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매월
	1인당 평균 근로시간			매월
	가계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분기
	피보험자수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	매월
	피보험취득자수			매월
	피보험상실자수			매월
수출입	수출입통계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매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분기

## 2) 주요 경제 지표의 문화예술분야 추출 기준

- 주요 경제 지표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지표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표들의 경우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 분류, 산업연관표, 자체분류 등 다양한 분류체계로 구축되어 있음
- 지표추출이 가능한 산업수준은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자체 분류체계 등 다양한 분류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소분류 수준의 지표가 9개(3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신용카드 지출액의 경우, 카드사 자체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상품 내에 다양한 상품군들이 혼재되어 있어 다른 통계지표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표 3-42〉 외부 데이터에서 문화예술분야 추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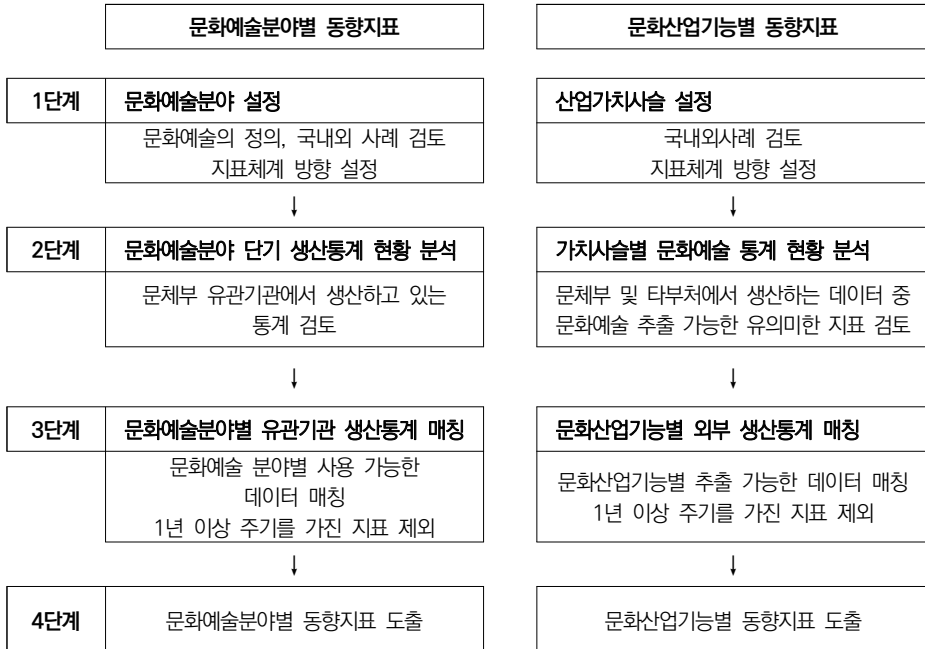
	지표명	문화예술분야 추출 가능
공급 (기업)	시가총액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주가지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생산자물가지수	산업연관표 상품분류표 세분류
	서비스업생산지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세분류
	기업경기실사지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사업자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사업장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신규성립사업장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소멸사업장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수요 (가계)	신용카드 지출액	카드사 자체 분류체계 일반적인 산업분류체계와 차이가 있음
	소비자심리지수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분류 중분류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대표품목 중분류
	온라인쇼핑 거래액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가계동향(가구당 소비지출액)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분류 중분류
고용	취업자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1인당 평균 임금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1인당 평균 근로시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가계소득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분류 중분류
	피보험자수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피보험취득자수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피보험상실자수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수출입	수출입통계	세계 관세 기구 데이터 모델 세분류(WCO DM3.0)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지식재산권 유형 세분류

## 5. 문화예술분야 종합 동향지표 도출

### 가. 문화예술 동향지표 추출 과정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별,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를 분리하여 추출하였음
- (분야) 문화예술분야는 연구자에 따라 분류를 달리 할 수 있지만, 유네스코 및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도서 및 출판, 시청각/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서비스로 구분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통계들을 검토하여 구성하였음
- (기능) 산업적 관점에서 문화예술분야 추출이 필요한 영역은 국외사례, 국내 주요 경제지표 등을 검토한 결과 생산, 공급, 물가, 경제전망, 수출입이 주요한 영역으로 각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동향지표체계 포함을 제안하였음

[그림 3-1]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 추출 흐름도



## 나.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의 전체적인 방향 설정 후에 1년 이상을 주기를 가진 지표는 단기 현황을 파악하는데 부적합하여 해당지표들은 제외하였음
  - 다만, 이는 동향지표에 부적합하다는 의미일 뿐 지표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함
-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분야별 지표는 유네스코 통계 프레임워크 유사하게 문화예술 영역을 구분하고 해당 영역에서 대표성을 갖는 지표 중 단기 추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설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대표성 및 수집 가능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하였음
  -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별 지표는 기본적으로 삶의 질 영역에 초점을 맞춰 해당 분야에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를 기본으로 하였음

## 다.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 동향지표를 기초로 신규 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였음
  - 이미 대부분의 지표가 구성된 관계로 신규지표는 생산, 가격, 소비, 고용, 전망 지표를 중 최근에 추가된 지표, 문화예술 고용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한 지표, 기존의 지표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였음
  - 문화예술 사업장 창업/폐업 지표는 문화예술분야 사업이 소규모 영세사업이 많은 관계로 해당 산업이 외부효과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시하였음
  - 문화예술 피보험 취득자 수는 예술인 고용보험등 주요 정책 현안을 감안하여 포함하였음
  - 가계 동향은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의 기본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제시하였음

〈표 3-43〉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안)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화분야	지표명	가치기능	문화예술 분야 추출대상 지표명
문화유산	궁·능·원 관람객수	공급	시가총액
			주가지수
도서출판	도서보유권수, 도서대출건수		생산자물가지수
	ISBN 발급 동향		서비스업생산지수
공연	공연건수, 매출액, 공연예매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지역 문화축제 현황		사업자 수
영화	영화개봉편수, 매출액, 영화관객 수		사업장수
			신규성립사업장수
시각	미술관 방문객 미술작품 거래건 수, 매출액		소멸사업장수
	박물관 관람 동향		신용카드 지출액
시청각/ 미디어	스마트폰·PC 이용실태	소비자심리지수	
창조 서비스	저작권 등록 동향	소비자물가지수	
		온라인쇼핑 거래액	
인력	예술활동증명자 수	가계동향 (가구당 소비지출액)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취업자 수	
	문화자원봉사 매칭건수	1인당 평균 임금	
교육	문화예술교육참여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	
		피보험자수	
온라인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피보험취득자수	
		수출입통계	
		수출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 본 연구에서는 큰 틀에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표를 문화예술 분야별 지표로 구성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산업지표로 구성하였지만, 사실상 둘은 분야와 기능으로 매트릭스에서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분야별 지표와 기능별 지표 모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예술분야별 지표는 보다 분야별 독립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현황파악과 정책적 접근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문화산업기능별 지표는 국가 경제에서 문화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제3절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의견 수렴

---

### 1. 조사 개요

- 보다 체계적이고 대표성 있는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연구진이 구성한 문화예술 동향지표(안)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 가. 조사 목적

-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지표의 도출과 전문가의 세부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체계 구축에 활용하고자 함

#### 나. 조사 내용

- 설문조사는 학계를 비롯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정책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진행함
- 총 22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주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응답자가 100명이 되었을 때 의견수렴을 종료함
-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집단을 문화, 예술, 콘텐츠, 체육 등의 분야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진행함

〈표 3-44〉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타당성 조사

구분	세부 내용
조사대상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모집단	총 227명
표본추출방법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체육 분야 전문가 비례배분 할당
유효 표본수	총 100명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기간	2020년 11월 4일 ~ 11월 24일 (약 20일간)
조사수행기관	(주)글로벌리서치

- 전문가 의견수렴은 동향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롯하여, 본 연구에서 예비로 구축한 문화예술분야별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에 대한 대표성, 유용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함
  - (일반 인식)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 및 포괄해야 하는 범위 등을 설문함
  - (동향지표 대표성, 유용성 인식) 문화예술분야와 문화산업기능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각 동향지표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표의 대표성(혹은 추출가능성), 유용성 등에 대한 인식을 설문함

〈표 3-45〉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측정
응답자 특성	소속 및 전문 분야	-	-
일반 인식	동향지표의 필요성 인식	매우 필요하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5점
	동향지표의 구성 요소	목적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타당성, 신뢰성, 유용성, 시의성 등	
	동향지표의 대상 범위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문화유산, 문화시설, 독립예술 등	
동향지표 타당성 인식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지표의 대표성, 유용성에 대한 인식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지표의 추출가능성, 유용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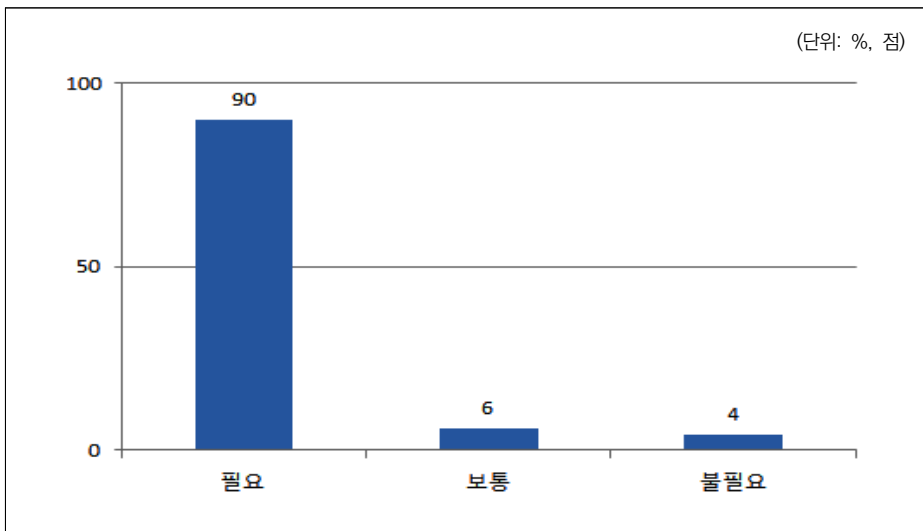
## 2. 조사 결과

### 가. 동향지표 일반 인식

#### 1) 동향지표 필요성 인식

-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동향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인식이 90.9%로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90.0%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보통 의견 6.0%, 불필요 4.0% 순으로 나타남
- 국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는 문화예술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동향지표의 필요성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동향지표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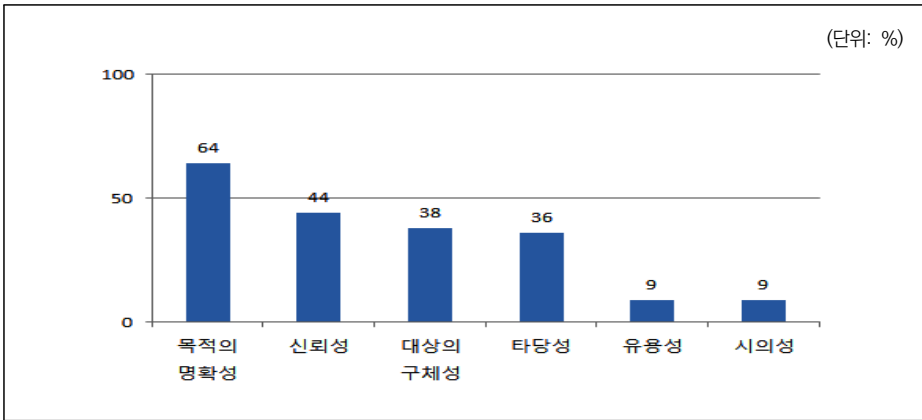


#### 2) 동향지표 구성 요소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체계의 구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순위 기준으로 ‘목적의 명확성’이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대상의 구체성’ 16.0%, 타당성 15.0%, 신뢰성 14.0% 순으로 조사됨

- 1~2순위 기준으로도 역시 목적의 명확성이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만, 지표의 신뢰성 44%, 대상의 구체성 38%, 지표의 타당성 36%도 동향 지표의 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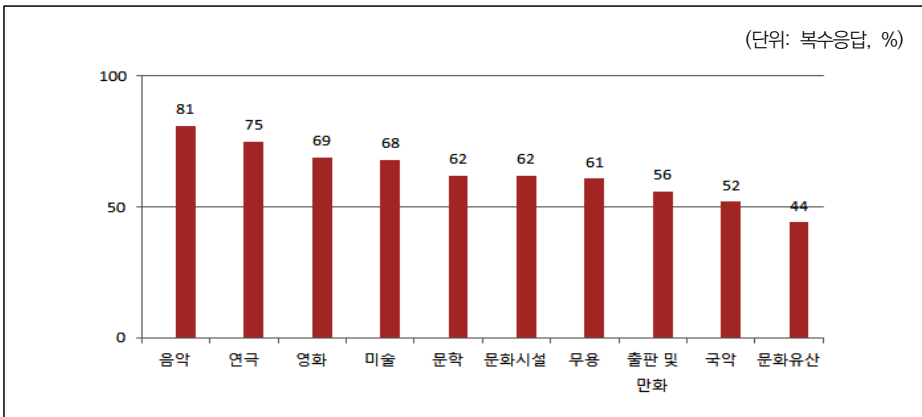
[그림 3-3] 동향지표의 구성요소(1+2순위)



### 3) 동향지표 대상 범위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체계 구축을 위해서 포함되어야 할 문화예술 장르로는 ‘음악’이 8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연극’ 75.0%, ‘영화’ 69.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 동향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문화예술 분야



주) 상위 10개 항목만 제시함

- 동향지표의 국민들이 주로 즐기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인 음악, 영화, 미술 등이 주요 분야로 나타났고, 공공분야에서 해당 영역들을 제공하고 있는 문화 시설 이용 관련 동향이 동향지표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음
  - 10순위 안에는 못 들었지만, 독립예술 43%, 사진 42% 등에 대한 동향지표 체계 포함 제안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나.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 1)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의견 수렴 결과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분야’에 대한 지표별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대표성 및 유용성 공통으로 ‘공연건수, 매출액, 공연예매수’ 자료가 전문가로부터 각각 4.36점의 높은 점수를 받음
- 기타 유용성 측면에서는 ‘영화개봉편수, 매출액, 영화관객 수’ 등이 4.13점, ‘미술관 방문객, 미술작품 거래건수, 매출액’이 3.95점으로 높게 나타남

〈표 3-46〉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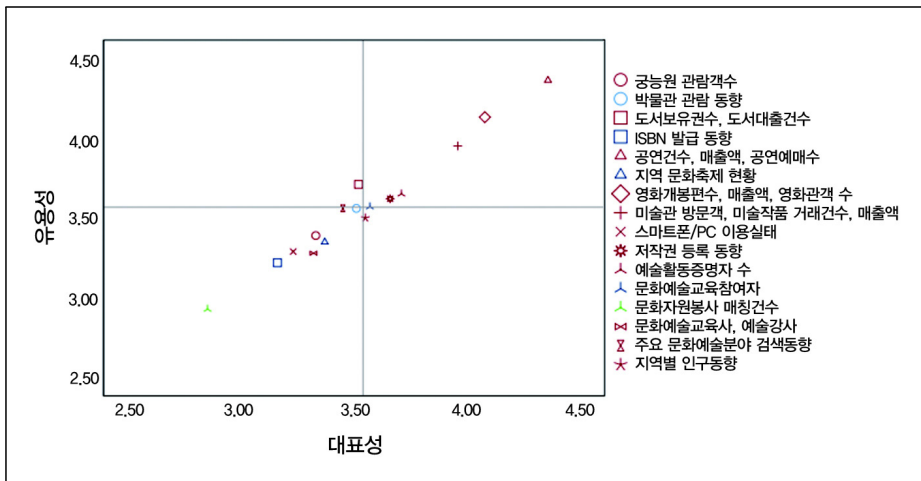
(단위 : 점)

문화분야	구분 지표명	평균	
		대표성	유용성
문화유산	공능원 관람객수	3.33	3.39
도서출판	도서보유권수, 도서대출건수	3.52	3.71
	ISBN 발급 동향	3.16	3.22
공연	공연건수, 매출액, 공연예매수	<b>4.36</b>	<b>4.36</b>
	지역 문화축제 현황	3.37	3.35
영화	영화개봉편수, 매출액, 영화관객 수	<b>4.08</b>	<b>4.13</b>
시각	미술관 방문객, 미술작품 거래건수, 매출액	<b>3.96</b>	<b>3.95</b>
	박물관 관람 동향	3.51	3.56
시청각/미디어	스마트폰/PC 이용실태	3.23	3.29
창조 서비스	저작권 등록 동향	<b>3.66</b>	<b>3.62</b>
인력	예술활동증명자 수	<b>3.71</b>	<b>3.65</b>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3.32	3.28
	문화자원봉사 매칭건수	2.85	2.93
교육	문화예술교육참여자	<b>3.57</b>	<b>3.57</b>
온라인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3.45	3.56
기초 공통	지역별 인구동향	3.55	3.50
평균		3.54	3.57

## 2)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IPA 결과

-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를 구성하는 각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IPA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X축과 Y축은 각각 지표의 대표성과 유용성을 의미함
  - 사분면의 경계를 나누는 회색선은 평균선을 의미함
  - (제1 사분면) 유용성과 대표성이 평균이상인 구역
  - (제2 사분면) 유용성은 평균이상이지만 대표성은 평균이하인 구역
  - (제3 사분면) 유용성과 대표성 모두 평균이하인 구역
  - (제4 사분면) 유용성은 평균이하이지만 대표성은 평균이상인 구역
- (제1 사분면) 공연건수·매출액·공연예매수, 영화개봉편수·매출액·영화관객 수, 미술관 방문객·미술작품 거래건수·매출액, 예술활동증명자수, 저작권등록동향,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등 총 6개의 지표가 포함됨
- (제2 사분면) 도서보유권수·도서대출건수가 포함됨
- (제3 사분면)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박물관 관람동향, 공능원관람객수, 지역 문화축제 현황, 스마트폰/PC이용실태, 문화예술교육사·예술강사, ISBN 발급 동향, 문화자원봉사 매칭건수 등 총 8개의 동향지표가 포함됨
- (제4 사분면) 문화예술교육참여자, 지역별 인구동향 등 총 2개의 동향지표가 포함됨

[그림 3-5]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IP분석 결과



### 3) 추가 의견

- 본 연구에서 조사한 지표에 대한 추가의견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났음

〈표 3-47〉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추가의견

구분		추가 의견
문화분야	지표명	
문화유산	공능원 관람객수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지표가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제안됨
도서출판	도서보유권수, 도서대출건수	전자책 이용 동향 등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
	ISBN 발급 동향	독립출판, 웹소설 등 ISBN을 받지 않는 출판물 증가도 고려해야함
공연	공연건수, 매출액, 공연예매수	공연 재원의 민간/공공 구분 필요 종사자 수, 단체에 관한 지표 추가 필요
	지역 문화축제 현황	지역문화 축제 현황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높아 문화예술지표에 적합하지 않음
영화	영화개봉편수, 매출액, 영화관객 수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영화 포함 고려 필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영화소비패턴 파악 필요
시각	미술관 방문객, 미술작품 거래건수, 매출액	미술관 관람동향과 미술시장 동향을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 필요
	박물관 관람 동향	관람객의 인구특성 파악이 중요하며, 전반적으로 국공립 박물관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안됨
시청각/미디어	스마트폰/PC 이용실태	미디어 문화예술 소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필요
창조 서비스	저작권 등록 동향	세부영역별로 저작권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것 필요
인력	예술활동증명자 수	지역별 현황 관리 필요,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많은 현실 반영 필요 주기에 따라 변화량이 없거나 미미하여 유용성이 낮음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강사수 만은 동향지표로 의미가 없음
	문화자원봉사 매칭건수	문화자원봉사의 세분화 필요
교육	문화예술교육참여자	지표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온라인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키워드 선정 작업이 중요
기초 공통	지역별 인구동향	지표의 목적과 유용성 확인 필요

- 전반적으로 빠른 주기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지표에 대한 관리 필요 의견과 세부적인 지표 구성을 통해 세부적으로 파악이 필요한 변수들에 대한 의견이 나타남

## 다.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 1)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의견 수렴 결과

- 문화산업기능 부문에 대한 지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추출필요성 뿐만 아니라 유용성 측면에서 소비측면에서는 ‘신용카드 지출액’(각각 3.85점, 3.88점) 고용측면에서는 ‘취업자 수’(각각 3.84점, 3.86점), 공급측면에서는 ‘사업자 수’(각각 3.82점, 3.85점)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8〉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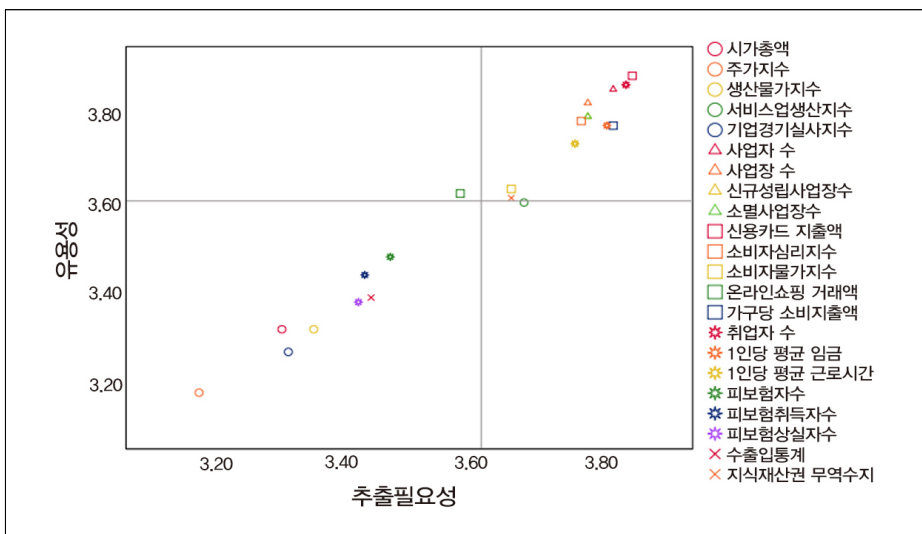
(단위 : 점)

가치기능	구분	평균	
		추출필요성	유용성
공급	시가총액	3.30	3.32
	주가지수	3.17	3.18
	생산자물가지수	3.35	3.32
	서비스업생산지수	<b>3.68</b>	<b>3.60</b>
	기업경기실사지수	3.31	3.27
	사업자 수	<b>3.82</b>	<b>3.85</b>
	사업장 수	<b>3.78</b>	<b>3.82</b>
	신규성립사업장수	<b>3.78</b>	<b>3.79</b>
수요	소멸사업장수	<b>3.78</b>	<b>3.79</b>
	신용카드 지출액	<b>3.85</b>	<b>3.88</b>
	소비자심리지수	<b>3.77</b>	<b>3.78</b>
	소비자물가지수	<b>3.66</b>	<b>3.63</b>
	온라인쇼핑 거래액	3.58	3.62
고용	가구당 소비지출액	<b>3.82</b>	<b>3.77</b>
	취업자 수	<b>3.84</b>	<b>3.86</b>
	1인당 평균 임금	<b>3.81</b>	<b>3.77</b>
	1인당 평균 근로시간	<b>3.76</b>	<b>3.73</b>
	피보험자수	3.47	3.48
	피보험취득자수	3.43	3.44
수출입	피보험상실자수	3.42	3.38
	수출입통계	3.44	3.39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3.66	3.61
	평균	3.61	3.60

## 2)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분석(IPA) 결과

-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를 구성하는 각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IPA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X축과 Y축은 각각 추출필요성과 유용성을 의미함
  - 사분면의 경계를 나누는 회색선은 평균선을 의미함
  - (제1 사분면) 유용성과 추출필요성이 평균이상인 구역
  - (제2 사분면) 유용성은 평균이상이지만 추출필요성은 평균이하인 구역
  - (제3 사분면) 유용성과 추출필요성 모두 평균이하인 구역
  - (제4 사분면) 유용성은 평균이하이지만 추출필요성은 평균이상인 구역
- (제1 사분면) 신용카드 지출액, 취업자 수, 사업장 수, 소멸사업장 수, 소비자심리지수, 1인당 평균임금, 가구당 소비지출액, 1인당 평균 근로시간, 소비자물가지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등 총 11개의 동향지표가 포함됨
- (제2 사분면) 온라인쇼핑거래액이 포함됨
- (제3 사분면) 피보험자수, 피보험취득자수, 피보험상실자수, 수출입통계, 시가총액, 생산자물가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주가지수 등 총 8개의 동향지표가 포함됨
- (제4 사분면) 본 조사결과에는 포함된 지표가 없음

[그림 3-6]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IPA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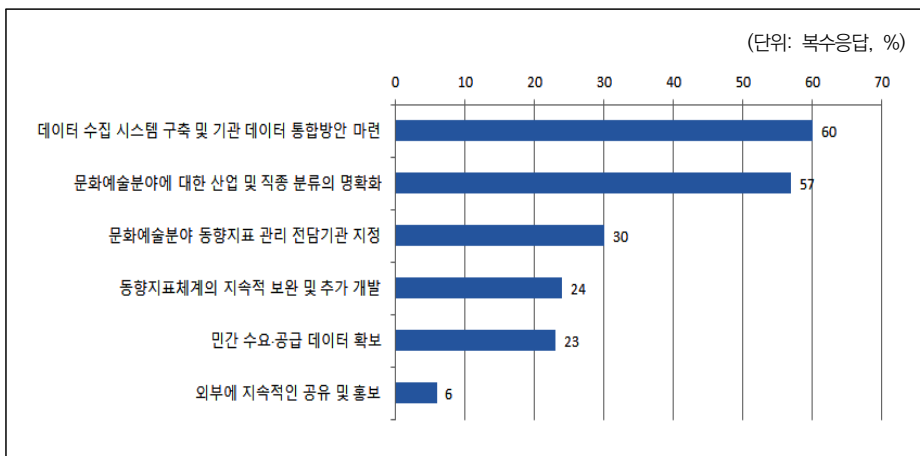
### 3) 추가 의견

- 문화산업기능별 지표에 대한 추가 의견으로는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기초 예술분야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사업체의 분류와 범위와 관련된 의견이 일부 제시되었음

## 라. 문화예술 동향지표 관련 정책수요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디지털화된 방식의 데이터수집 시스템 구축 및 기관데이터통합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함

[그림 3-7] 정책적 고려사항(1+2순위)



-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산업 및 직종 분류의 명확화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관리 전담기관의 지정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음



### 3. 요약 및 시사점

〈표 3-49〉 문화예술 동향지표 우선순위

구분	지표 우선순위
문화예술분야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 공연, 영화, 미술, (도서관), 문화예술교육</li> <li>• (기초) 예술인, 저작권</li> </ul>
문화산업기능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 신용카드지출액, 소비자심리지수, 가구당 소비 지출액, 소비자물가지수</li> <li>• (고용) 취업자수,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li> <li>• (공급) 사업장수, 소멸사업장 수</li> <li>• (국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li> </ul>

#### 가. 문화예술분야별

- 문화예술 분야별 지표의 우선순위는 대표성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보면, 공연, 영화, 미술, 도서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동향들이 우선적으로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초항목으로는 예술가 등록 동향, 저작권 등록 동향들이 지표로 관리되면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음  
 예술인 등록 동향은 단기주기로 빠르게 변화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단기 동향 지표에 사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저작권 등록 동향은 저작권위원회에서 데이터 관리를 동향지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데이터 관리를 안하고 있어 데이터관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표 3-50〉 문화예술분야별 주요 동향지표 항목

영역	동향지표	시스템 추출 가능항목
공연	공연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건수, 개막편수, 상연횟수</li> <li>• 매출액, 예매수</li> </ul>
영화	영화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영편수</li> <li>• 매출액, 관객수, 스크린점유율</li> </ul>
도서	도서관(대출)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대출수</li> <li>• 장르별, 연령별, 성별 도서대출</li> </ul>
미술	미술(전시)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전수를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음</li> <li>•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자료 확보 및 활용</li> </ul>

- 음악동향에 대한 전문가 수요가 높았으나, 현재 문체부 유관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적절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 콘텐츠산업통계에서 1년 단위 조사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핵심관리지표: 전문가의 의견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는 핵심관리 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나. 문화산업기능별

-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우선순위는 소비, 고용, 공급, 국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출해야 하는 지표들이 나타남
  - (소비) 소비와 관련해서는 소비관련 대부분의 지표에서 문화예술 소비부분을 추출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 고용영역에서는 취업자수와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이 우선적으로 동향지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급) 공급영역에서는 사업장수가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대표성과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제) 국제 무역에서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대표성과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1〉 문화예술분야 추출이 필요한 지수

영역	현재 수준에서 추출 가능항목
소비	• 신용카드 지출액 동향, 소비자심리지수, 가구당 소비 지출액,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	• 문화예술 취업자수, 문화예술 종사자 평균임금, 문화예술 종사자 평균근로시간
공급	• 문화예술 사업장수, 문화예술소멸사업장 수
국제	• 지식재산권(디자인권,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문화산업기능별 지표들은 사업체, 종사자, 소비, 저작권 등이 핵심이었으며 모두 외부데이터에서 추출이 가능함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제4장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시범적용



# 제1절 문화예술 동향지표 시범적용안 도출

---

## 1. 문화예술 동향지표 시범적용안 도출 기준

### 가. 지표의 우선순위

- 시범적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지표의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표 우선순위였음
- 지표의 대표성과 유용성에 의해 추출된 지표의 우선순위는 지표의 필요성을 나타내므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였음

### 나. 자료의 수집 가능성

- 지표추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현재 수준에서 자료 수집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지표의 우선순위가 높다하더라도 지표를 적용을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이 되지 않고 있으면 지표적용이 어려움
  - 현실적으로 지표의 단기적인 생산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료의 수집가능성임
  - 수집 가능한 자료이고 분야를 일정부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시범적용

### 다. 지표의 중복 여부

- 마지막으로 지표의 시범적용은 기존의 지표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미 생산·공표되고 있는 지표의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였음
  - 다만, 기존의 생산·공표되고 있는 지표 중 본 연구에서도 중요하다고 나타나는 내용은 <표 4-2> 제시하였음

## 라. 지표선정 기준 적용

### 1)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기준적용

- 기존의 생산·공표 지표와 중복을 제외하고 우선순위와 수집 가능성이 겹치는 지표는 도서관, 미술관, 문화예술교육참여자 등이 나타남
  - 따라서 일차적으로 세 가지 지표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략적인 동향지표로서의 적절성 및 품질 검토를 진행함

〈표 4-1〉 문화예술분야별 시범지표 선정 기준 적용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우선순위	단기주기 수집 가능성	기존 동향지표 중복여부
문화분야	지표명			
문화유산	공·농·원 관람 객수		○	○
도서출판	도서보유권수, 도서대출건수	△	○	
	ISBN 발급 동향		△	
공연	공연건수, 매출액, 공연예매수	○	○	○
	지역 문화축제 현황			
영화	영화개봉편수, 매출액, 영화관객 수	○	○	○
시각	<b>미술관 방문객</b>	○	△	
	미술작품 거래건 수, 매출액	○	○	
	<b>박물관 관람 동향</b>		△	
시청각/미디어	스마트폰·PC 이용실태		○	
창조서비스	저작권 등록 동향	○	×	
인력	예술활동증명자 수	○	○	○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	
	문화자원봉사 매칭건수		△	
교육	문화예술교육참여자	△	△	
온라인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	

- 도서관 관련 지표: 도서관 관련지표는 데이터의 품질 등이 높아 바로 동향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미술관 관련 지표: 미술관 관련지표는 통합적인 데이터가 부재하나 부분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부 시범적용이 가능함
- 문화예술교육참여: 현재 문화예술교육참여는 보조사업자 보고에 기초하는데, 보고 자료에 나타나는 참여자수는 대부분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참여자

수와 동일하여 동향지표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최종적으로 미술관 관람동향 지표만 생존하게 되는데, 시범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수집이 가능하고, 분야를 일정부분 대표할 수 있는 동향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대출동향, 스마트폰·PC 이용 동향, 문화서비스 검색 동향지표를 추가적으로 시범적용 하였음

## 2)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기준 적용

- 문화산업기능별로는 기본적으로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기존 동향지표와의 중복여부만 판단하였음

〈표 4-2〉 문화산업기능별 시범지표 선정 기준 적용

(단위: 점)

가치기능	구분		우선순위	기존 동향지표 중복여부
	지표명			
공급	시가총액			○
	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	○
	기업경기실사지수			○
	<b>사업자 수</b>		○	
	<b>사업장 수</b>		○	
	<b>신규성립사업장수</b>		○	
	<b>소멸사업장수</b>		○	
수요	신용카드 지출액		○	○
	소비자심리지수		○	○
	소비자물가지수		○	○
	온라인쇼핑 거래액		△	○
	<b>가구당 소비자출액</b>		○	
고용	취업자 수		○	○
	<b>1인당 평균 임금</b>		○	
	<b>1인당 평균 근로시간</b>		○	
	피보험자수			
	피보험취득자수			
	피보험상실자수			
수출입	수출입통계			○
	<b>지식재산권 수출입동향</b>		○	

주: 중복여부 검토는 문화관광연구원 동향지표를 기준으로 함

- 기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동향지표를 제외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문화예술 사업자수, 사업장수, 신규성립사업장수, 소멸사업장수, 가구당 문화예술 소비지출액, 문화예술 사업체 1인당 평균 임금, 문화예술 사업체 1인당 평균 근로시간, 지식재산 수출입 동향 등으로 나타남
  - 피보험자 관련 지표는 예술인고용보험 등 향후 정책에 주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범적용함

## 2.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시범적용안

### 가.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시범적용안

- 본 연구에서는 이미 동향지표 형태로 발표하고 있는 지표와 데이터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현재로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총 4종의 지표를 시범적용 하였음
  - 도서관 대출동향은 데이터의 품질이 우수하고 도서출판 분야를 일정부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함
  - 미술관 관람동향은 우선순위가 높았으므로 포함하되, 박물관을 포괄하여 시범적용 함
  - 스마트폰·PC 이용 동향과 온라인 검색동향은 최근 비대면 소비 확장을 고려하여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여 시범적용 함

〈표 4-3〉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및 시범적용 지표

문화예술분야별 시범적용 지표		내용
문화분야	지표명	
도서출판	도서관 대출 동향	도서관 정보나루에 가입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 도서관의 대출 일별 현황
시각	박물관·미술관 관람동향	박물관 미술관의 방문, 관람 등의 일별 현황
시청각/미디어	스마트폰·PC 이용 동향	스마트폰·PC의 월별 사용 현황
온라인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네이버 기준 주요문화서비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일별 검색 현황



## 나.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시범적용안

-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중에 최종적으로 시범 적용할 지표는 문화예술 사업체 동향, 문화예술 소비지출동향, 문화예술산업 고용의 질 동향, 지식재산 수출입 동향으로 설정하였음
  - 문화예술 사업체 관련 동향은 전문가 의견에서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으나, 기존의 문화예술 동향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연구에서 포함함
  - 문화예술 생산자물가는 대표성과 유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급 측면의 주요 지표라 판단하여 포함시킴
  - 문화예술산업 소비지출 동향은 기존의 신한카드 데이터 등 소비지출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분야가 기존의 산업분류에 더 적합하여 시범적용안에 포함
  - 문화예술산업 고용의 질 동향은 기존의 동향지표에서 취업자 수만 파악하고 있고, 취업자중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한 고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포함
  - 지식재산 수출입 동향은 기존의 수출입 통계에서 누락된 정보인 디자인권, 문화예술저작권의 무역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범적용에 포함

〈표 4-4〉 문화예술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시범적용 지표

이유	동향 내용	세부지표
공급	문화예술 사업장 동향	사업자 수
		사업장수
		신규성립사업장수
		소멸사업장수
	문화예술 생산자 물가	문화예술 생산자 물가
수요	문화예술 소비지출 동향	가계동향(가구당 소비지출)
고용	문화예술산업 고용의 질 동향	1인당 평균 임금
		1인당 평균 근로시간
		피보험자수
		피보험취득자수
		피보험상실자수
수출입	지식재산 수출입 동향	디자인권,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 제2절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시범적용

---

### 1. 도서관 대출 동향

#### 가. 개요

- 도서관 대출동향은 2020년 7월 기준으로 도서관정보나루에 가입한 도서관의 대출 동향을 시범적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 공공도서관은 총 1,041개임
  - 2019년 상반기 도서대출수와 2020년 상반기 도서대출수를 비교분석하여 2020년 도서대출수 추이를 분석함

#### 나. 도서관 도서대출

##### 1) 전국 도서대출수

-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도서대출수를 분석한 결과 총 28,994,394권의 도서가 대출됨
  - 2020년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수는 2019년에 비해 약 4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기대비 도서대출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시기는 3월로 2019년 8,083,463권에서 903,781권으로 7,179,682권(△88.8%) 감소함
  - 전반적으로 도서대출수의 증가(4월, 5월, 7월)와 감소(3월, 6월)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도서대출수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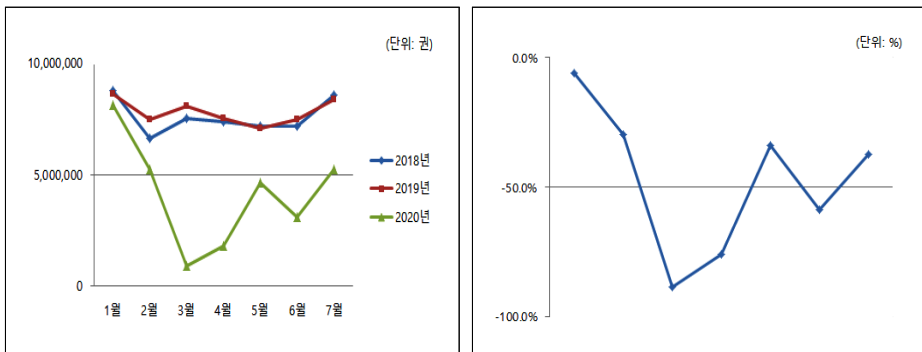
〈표 4-5〉 2018-2020년 상반기 도서대출수

(단위: 권, %)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감소율
1월	8,756,703	8,625,596	8,089,380	△6.2
2월	6,598,657	7,461,887	5,234,314	△29.9
3월	7,529,085	8,083,463	903,781	△88.8
4월	7,358,551	7,491,818	1,807,946	△75.9
5월	7,162,536	7,041,357	4,647,298	△34.0
6월	7,153,663	7,448,458	3,070,510	△58.8
7월	8,539,510	8,375,804	5,241,165	△37.4
합계	53,098,705	54,528,383	28,994,394	△46.8

출처: 도서관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원자료 재구성

[그림 4-1] 2018-2020년도 상반기 도서대출 추이 [그림 4-2] 2019년 대비 2020년 도서대출 감소율



## 2) 지역별 도서대출수

- 분석 기간(1~7월) 지역별 도서 대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의 도서대출 감소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약 79.6%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약 86.3% 감소함
  -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월 44,243권에서 3월에는 123권만이 대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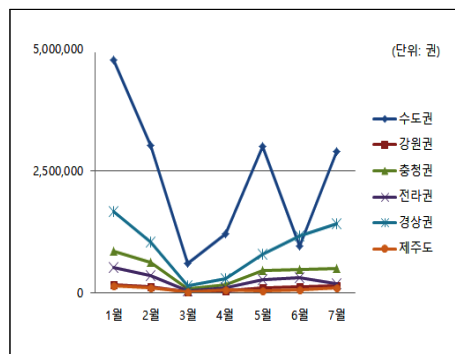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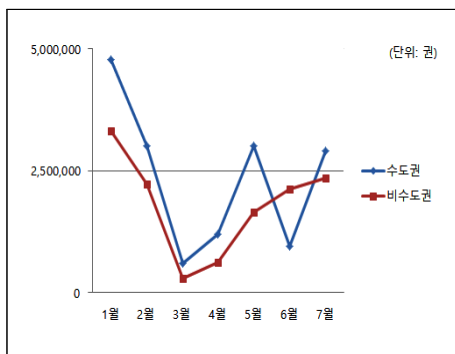
〈표 4-6〉 2020년 지역별 도서대출수

(단위: 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수도권	서울	1,813,092	805,485	135,530	327,086	1,179,987	319,690	1,274,375
	경기	2,780,263	2,100,736	442,775	837,005	1,702,382	561,312	1,452,700
	인천	176,222	107,043	24,924	32,705	123,699	69,702	174,881
강원권	강원	155,467	121,970	16,651	27,767	98,622	113,038	133,851
충청권	대전	256,238	179,612	17,010	55,158	191,104	127,589	70,941
	세종	62,591	44,243	123	688	7,199	12,186	19,150
	충북	276,357	207,436	31,302	68,789	98,463	162,734	208,132
	충남	262,124	187,357	19,427	35,655	164,342	176,134	204,207
전라권	광주	150,278	87,866	11,903	34,705	60,608	91,151	20,384
	전북	129,188	84,636	15,973	30,864	74,380	75,135	84,881
	전남	230,199	166,756	17,312	34,772	122,067	140,795	86,554
경상권	부산	611,040	376,604	48,411	83,956	319,813	472,405	475,993
	대구	348,385	201,260	7,175	38,096	73,280	193,985	291,043
	울산	196,979	139,049	37,282	60,811	137,666	161,090	193,222
	경북	231,746	138,697	15,943	27,606	97,841	154,441	188,234
	경남	271,357	186,046	37,531	65,403	157,196	183,230	256,010
제주도	제주도	137,854	99,518	24,509	46,880	38,649	55,893	106,607
합계		8,089,380	5,234,314	903,781	1,807,946	4,647,298	3,070,510	5,241,165

원자료: 도서관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원자료 재구성

[그림 4-3] 수도권/비수도권 2020년 상반기 도서대출 추이 [그림 4-4] 지역별 2020년 상반기 도서대출 추이



### 3) 성별 도서대출수

- 성별 도서대출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전년 대비 대출 감소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음
  - 전반적으로 도서 대출은 여성(1,763만 권)이 남성(1,136만 권)보다 많았고, 코로나로 인한 도서대출 감소 폭은 남성(△47.9%)이 여성(△4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서대출수가 가장 적었던 3월의 경우, 남성의 도서대출수는 2월 대비 99.0% 감소하였으며 여성은 8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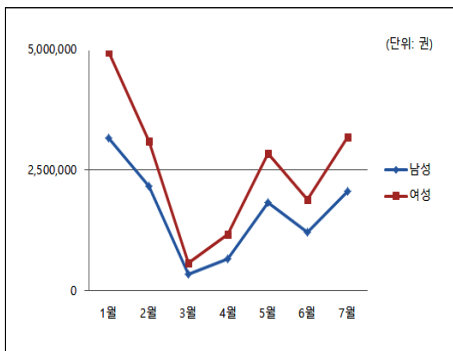
〈표 4-7〉 2018~2020년 상반기 남녀별 도서대출수

(단위: 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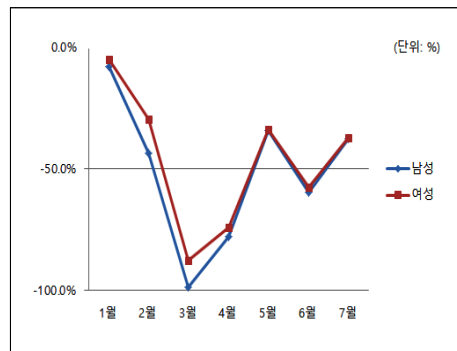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감소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월	3,574,268	5,182,435	3,444,404	5,181,192	3,162,499	4,926,881	△8.1	△4.9
2월	2,762,646	3,836,011	3,061,563	4,400,324	2,147,568	3,086,746	△43.7	△29.9
3월	3,072,046	4,457,039	3,284,768	4,798,695	328,601	575,180	△99.0	△88.0
4월	2,990,398	4,368,153	2,969,091	4,522,727	649,388	1,158,558	△78.1	△74.4
5월	2,872,979	4,289,557	2,771,329	4,270,028	1,820,778	2,826,520	△34.3	△33.8
6월	2,878,403	4,275,260	2,992,827	4,455,631	1,196,451	1,874,059	△60.0	△57.9
7월	3,419,746	5,119,764	3,304,176	5,071,628	2,057,491	3,183,674	△37.7	△37.2
합계	21,570,486	31,528,219	21,828,158	32,700,225	11,362,776	17,631,618	△47.9	△46.1

출처: 도서관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원자료 재구성

〔그림 4-5〕 2020년 남녀 도서대출 추이



〔그림 4-6〕 2019년 대비 남녀 도서대출 감소 추이



#### 4) 연령대별 도서대출수

- 연령대별 도서대출 수는 40대가 가장 높았고, 코로나로 인한 전년 대비 도서대출 감소율은 30대(△53.5%)에서 가장 높았음
  - 2020년 상반기 기준 30대 다음으로 아동(△50.9%), 20대(△48.7%) 등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의 도서대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7월 기준 도서대출 회복 속도는 아동, 초등학교생의 연령대에서 빠른 것으로 나타남

〈표 4-8〉 2019년 대비 2020년 연령대별 도서대출 추이

(단위: 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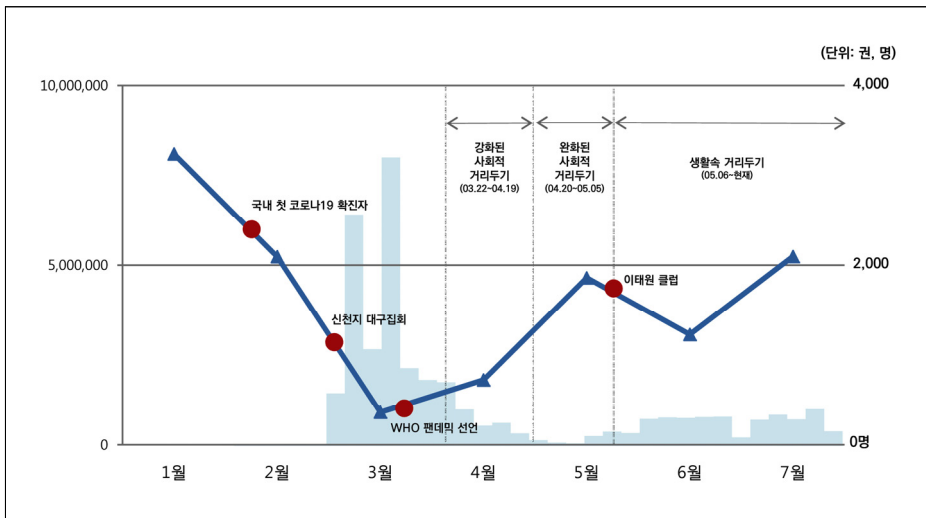
		8세 미만 (미취학 아동)	8세~13세 (초등학생)	14세~19세 (중·고등학생)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
1월	'19	56.2	161.8	56.2	51.3	171.3	297.2	70.4	32.4	13.1
	'20	50.7	151.7	48.1	44.2	149.2	286.4	69.3	32.7	13.2
	△	△9.9	△6.2	△14.5	△13.8	△12.9	△3.6	△1.6	0.7	0.9
2월	'19	50.9	136.0	43.5	42.5	149.8	257.2	63.8	29.8	12.0
	'20	33.3	96.2	30.2	30.2	93.9	183.0	48.2	22.5	9.3
	△	△34.7	△29.3	△30.7	△28.9	△37.3	△28.8	△24.5	△24.3	△22.4
3월	'19	63.0	139.1	34.9	42.6	172.7	284.7	68.4	31.3	12.9
	'20	5.5	15.8	4.9	5.1	16.6	33.7	6.9	2.6	1.0
	△	△91.3	△88.6	△85.9	△88.0	△90.4	△88.2	△89.9	△91.7	△92.5
4월	'19	62.9	124.6	25.3	40.8	167.6	261.0	62.8	28.8	11.8
	'20	12.5	32.2	7.7	9.7	34.9	68.5	12.7	5.0	2.0
	△	△80.2	△74.1	△69.4	△76.3	△79.2	△73.8	△79.8	△82.7	△83.0
5월	'19	58.4	110.1	33.5	39.6	154.8	241.9	60.6	27.3	11.3
	'20	34.0	90.2	21.3	24.8	83.3	165.1	36.6	17.0	7.0
	△	△41.9	△18.1	△36.4	△37.4	△46.2	△31.8	△39.5	△37.7	△37.9
6월	'19	62.6	123.7	30.2	42.3	163.3	256.0	61.2	27.9	11.3
	'20	25.4	58.4	12.7	16.4	59.9	105.0	23.3	11.7	4.6
	△	△59.5	△52.8	△57.9	△61.3	△63.3	△59.0	△61.8	△58.1	△59.4
7월	'19	68.0	137.3	53.0	47.9	177.7	282.5	67.2	30.8	12.2
	'20	46.0	104.1	19.7	27.0	100.1	181.5	38.5	19.4	7.7
	△	△32.3	△24.2	△62.9	△43.5	△43.7	△35.7	△42.8	△37.1	△36.7
합계	'19	422.1	932.7	276.8	307.0	1,157.3	18,80.5	454.4	208.2	84.5
	'20	207.3	548.7	144.6	157.4	537.9	10,23.3	235.5	110.8	44.8
	△	△50.9	△41.2	△47.7	△48.7	△53.5	△45.6	△48.2	△46.8	△47.0

출처: 도서관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원자료 재구성

## 다. 코로나19관련 주요사건과 도서대출의 변화

-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 이후, 도서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
  -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도서대출수가 감소(2월,  $\Delta 22.9\%$ )
  - 대구 신천지(2월 18일)발, 이태원 클럽(5월 8일)발 집단감염과 관련된 마스크 보도 후 도서대출 감소(각  $\Delta 88.8, \Delta 75.9$ )가 급격하게 발생
  -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도서대출수는 점차 추후 다시 회복하는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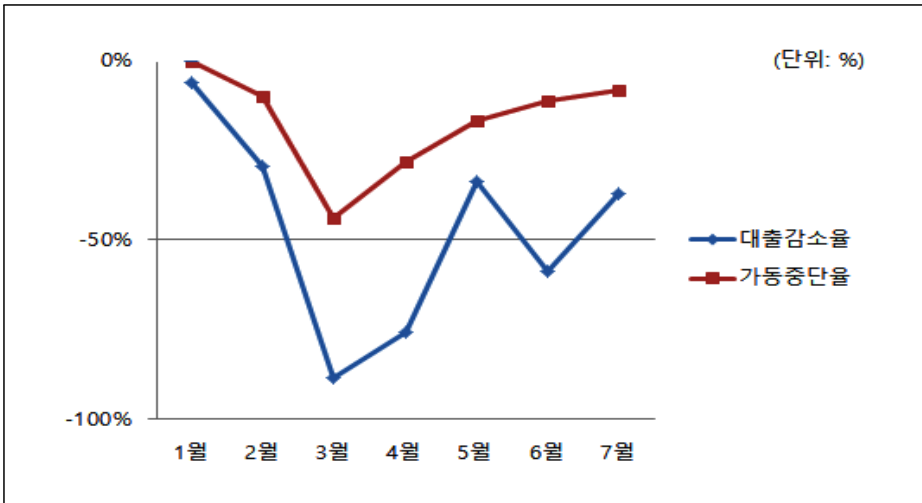
[그림 4-7] 코로나19 이슈 및 도서대출수 추이



## 라. 도서관 가동중단과 도서대출의 변화

- 코로나 19가 도서 대출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도서관 가동중단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심리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됨
  - 도서관 휴관 등 도서 대출이 제로인 경우를 가동중단으로 추정하고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가동 중단률( $\Delta 17\%$ )에 비해 전년대비 도서대출 감소율( $\Delta 47\%$ )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 4월을 지나면서 가동중단률과 도서대출 감소율이 간격이 줄어들고 있어 심리적 회피 성향이 다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4-8] 2019년 대비 2020년 도서대출 및 도서관가동 중단율 추이



- 국내 코로나19의 확진자수가 도서관 가동중단과 도서대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기간은 2020년 1월 첫째 주부터 7월 다섯째 주까지 총 36주간임
  -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별 확진자수를 주별로 합산하여 사용함
  - 도서관 휴관수(가동중단)의 경우, 한 주 동안의 도서대출수가 제로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함
  - 도서대출수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받은 주간 도서대출수의 자료를 사용함

<표 4-9> 도서대출 관련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코로나19 확진자수	36	398.2	661.8	0	3,170
도서관 휴관수	36	232.6	174.1	43	928
도서대출수	36	805,399.8	562,646.2	893	2,040,848

- 1주일 동안 코로나19의 확진자수가 100명 증가할 때, 약 22,097권의 도서가 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주일 동안 코로나19의 확진자수가 100명 증가할 때, 약 6군데의 도서관이 가동이 중단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남

〈표 4-10〉 코로나 19의 도서대출 영향 분석결과

	공공도서관 휴관수		도서대출수	
	Coef	Std. Err	Coef	Std. Err
확진자수	0.0627 <sup>+</sup>	0.0329	-220.9744*	93.3380
month	YES		YES	
week	YES		YES	
Constant	147.9420 <sup>+</sup>	54.4090	1,312,014***	154,506
F-statistics	7.52		10.31	
Adj R-squared	0.6908		0.7614	
Obs	36		36	

주) + p<0.1 \* p<0.05 \*\* p<0.01 \*\*\* p<0.001

## 2. 박물관·미술관 관람 동향

### 가. 개요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경기문화재단 데이터를 확보하여 박물관·미술관 관람동향을 시범 분석하였음
  -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경기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객 및 총수입 등의 현황을 분석함(박물관 4개, 미술관 2개 통합관리)

### 나.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 동향

#### 1) 총입장객 추이

- 2019/2020년 상반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객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약 70%가량의 입장객수가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박물관의 입장객수는 총 81,089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6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과 4월(△100.0%), 6월(△100.0%) 로 나타났으며 5월의 경우 92.5% 감소함
  - 전월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과 6월(△100.0%)로 나타났으며 2월(△80.5%)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5월에는 일시적으로 입장객수가 상승(3,494명)하는 추세였으나 6월에 다시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미술관의 입장객수는 총 16,860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7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과 4월(△100.0%), 6월(△100.0%) 로 나타났으며 5월의 경우 89.1% 감소함
  - 전월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과 6월(△100.0%)로 나타남
  - 5월에는 일시적으로 입장객수가 상승(1,847명)하는 추세였으나 6월에 다시 감소함

〈표 4-11〉 2019-2020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총입장객 추이

(단위: 명, %)

	총입장객					
	2019년		2020년		19-20 증감률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1월	28,987	10,174	64,922	11,051	124.0	8.6
	( - )	( - )	( - )	( - )		
2월	34,998	6,742	12,673	3,962	△63.8	△41.2
	(20.7)	(△33.7)	(△80.5)	(△64.1)		
3월	41,848	9,641	0	0	△100.0	△100.0
	(19.6)	(43.0)	(△100.0)	(△100.0)		
4월	44,825	12,559	0	0	△100.0	△100.0
	(7.1)	(30.3)	(0.0)	(0.0)		
5월	46,523	16,904	3,494	1,847	△92.5	△89.1
	(3.8)	(34.6)	-	-		
6월	49,629	12,220	0	0	△100.0	△100.0
	(6.7)	(△27.7)	(△100.0)	(△100.0)		
합계	246,810	68,240	81,089	16,860	△67.1	△75.3

주) 괄호 안의 수는 전월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 2) 총수입 추이

- 2019/2020년 상반기 박물관 및 미술관 총수입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약 50%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박물관의 총수입은 99,979,000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5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수입이 없었던 3월(△100.0%)과 4월(△100.0%), 6월(△100.0%), 5월(△96.0%) 등으로 나타남
  - 전월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로 나타났으며 2월(△95.6%)부터 박물관 수입의 감소가 확연하게 드러남
  - 5월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한 입장객수에 기인하여 2,486,000원의 수입을 기록하였으나 6월(△100.0%)에는 다시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미술관의 총수입은 1,195,000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4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월에는 전년 대비 628.7% 증가한 1,195,000원의 수입을 기록함
  - 2월부터 6월까지 총수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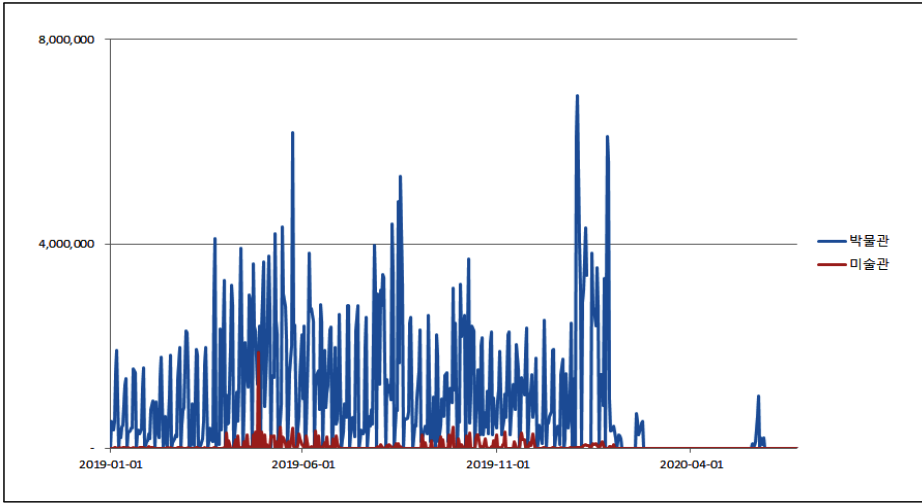
〈표 4-12〉 2019-2020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총수입 추이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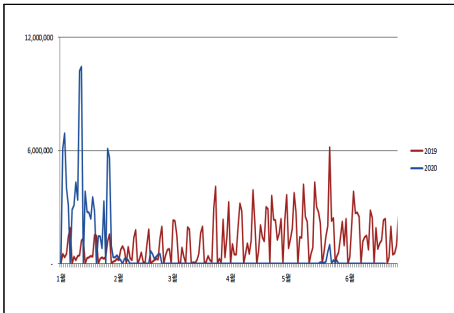
	총수입					
	2019년		2020년		19-20 증감률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1월	17,912,000	164,000	93,385,000	1,195,000	421.4	628.7
	(-)	(-)	(-)	(-)		
2월	17,138,000	84,000	4,108,000	0	△76.0	△100.0
	(△4.3)	(△48.8)	(△95.6)	(△100.0)		
3월	31,399,000	104,000	0	0	△100.0	△100.0
	(83.2)	(23.8)	(△100.0)	(0.0)		
4월	46,589,500	2,235,000	0	0	△100.0	△100.0
	(48.4)	(2049.0)	(0.0)	(0.0)		
5월	62,500,000	3,547,000	0	0	△100.0	△100.0
	(34.2)	(58.7)	(0.0)	(0.0)		
6월	40,900,000	1,913,000	0	0	△100.0	△100.0
	(△34.6)	(△46.1)	(0.0)	(0.0)		
합계	216,438,500	2,267,000	99,979,000	1,195,000	△53.8	△47.3

주) 괄호 안의 수는 전월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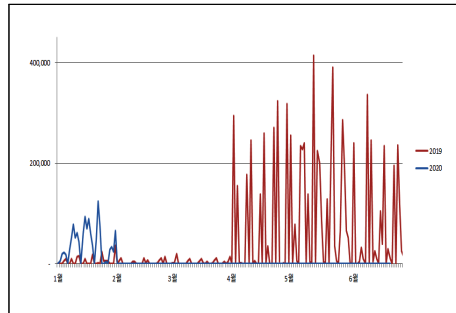
[그림 4-9] 2019~2020년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총수입 추이



[그림 4-10] 2019~2020년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총수입 추이



[그림 4-11] 2019~2020년 상반기 경기도 미술관 총수입 추이



### 3) 유료·무료입장객 추이

- 2019/2020년 상반기 박물관 유·무료입장객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각각 57.8% 및 72.5%씩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박물관의 유료입장객수는 총 26,999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5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과 4월(△100.0%), 6월(△100.0%)로 나타남

- 전월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 $\Delta 100.0\%$ )과 6월( $\Delta 100.0\%$ )로 나타났으며 2월( $\Delta 93.9\%$ )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5월에는 일시적으로 입장객수가 1,057명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6월( $\Delta 100.0\%$ )에 다시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박물관의 무료입장객수는 총 54,090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7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 $\Delta 100.0\%$ )과 4월( $\Delta 100.0\%$ ), 6월( $\Delta 100.0\%$ )로 나타남
  - 전월대 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 $\Delta 100.0\%$ )과 6월( $\Delta 100.0\%$ )로 나타났으며 2월( $\Delta 72.4\%$ )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5월에는 일시적으로 입장객수가 2,437명 상승하였으나 6월( $\Delta 100.0\%$ )에 다시 감소함
- 2019/2020년 상반기 미술관 유·무료입장객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각각 72.5% 및 75.4%씩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미술관의 유료입장객수는 총 587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7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월의 경우, 전년 대비 615.9% 증가하였으나 2월부터는 유료입장객수가 없음
- 2020년 상반기 미술관의 무료입장객수는 총 16,273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7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 $\Delta 100.0\%$ )과 4월( $\Delta 100.0\%$ ), 6월( $\Delta 100.0\%$ )로 나타남
  - 전월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 $\Delta 100.0\%$ )과 6월( $\Delta 100.0\%$ )로 나타났으며 2월( $\Delta 62.1\%$ )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5월에는 일시적으로 입장객수가 1,847명 상승하였으나 6월( $\Delta 100.0\%$ )에 다시 감소함

〈표 4-13〉 2019-2020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유료 입장객 추이

(단위: 명, %)

	유료입장					
	2019년		2020년		19-20 증감률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1월	9,629	82	24,447	587	153.9	615.9
	( - )	( - )	( - )	( - )		
2월	8,636	42	1,495	0	△82.7	△100.0
	(△10.3)	(△48.8)	(△93.9)	(△100.0)		
3월	11,786	52	0	0	△100.0	△100.0
	(36.5)	(23.8)	(△100.0)	(0.0)		
4월	10,531	546	0	0	△100.0	△100.0
	(△10.6)	(950.0)	(0.0)	(0.0)		
5월	12,097	892	1,057	0	△91.3	△100.0
	(14.9)	(63.4)	-	(0.0)		
6월	11,300	521	0	0	△100.0	△100.0
	(△6.6)	(△41.6)	(△100.0)	(0.0)		
합계	63,979	2,135	26,999	587	△57.8	△72.5

주) 괄호 안의 수는 전월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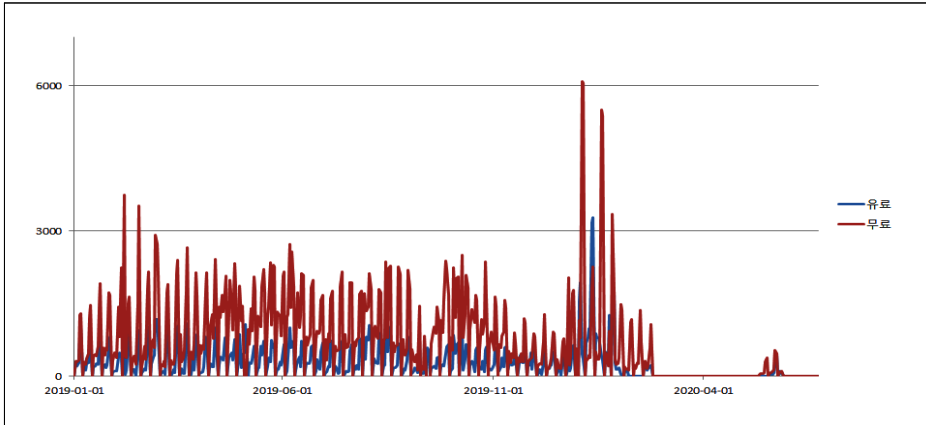
〈표 4-14〉 2019-2020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 입장객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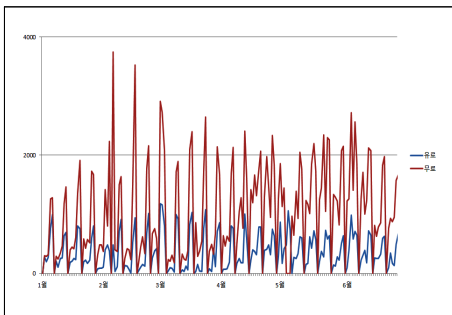
	무료입장					
	2019년		2020년		19-20 증감률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1월	19,358	10,092	40,475	10,464	109.1	3.7
	( - )	( - )	( - )	( - )		
2월	26,362	6,700	11,178	3,962	△57.6	△40.9
	(36.2)	(△33.6)	(△72.4)	(△62.1)		
3월	30,062	9,589	0	0	△100.0	△100.0
	(14.0)	(43.1)	(△100.0)	(△100.0)		
4월	34,294	11,995	0	0	△100.0	△100.0
	(14.1)	(25.1)	(0.0)	(0.0)		
5월	34,707	16,012	2,437	1,847	△93.0	△88.5
	(1.2)	(33.5)	-	-		
6월	38,329	11,699	0	0	△100.0	△100.0
	(10.4)	(△26.9)	(△100.0)	(△100.0)		
합계	183,112	66,087	54,090	16,273	△70.5	△75.4

주) 괄호 안의 수는 전월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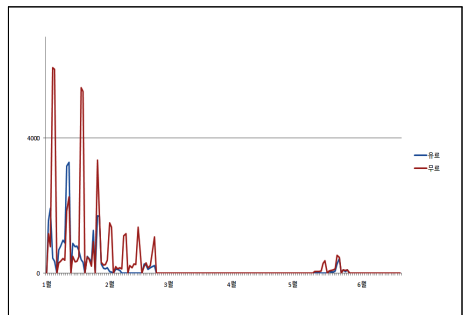
[그림 4-12] 2019~2020년 경기도 박물관 유·무료입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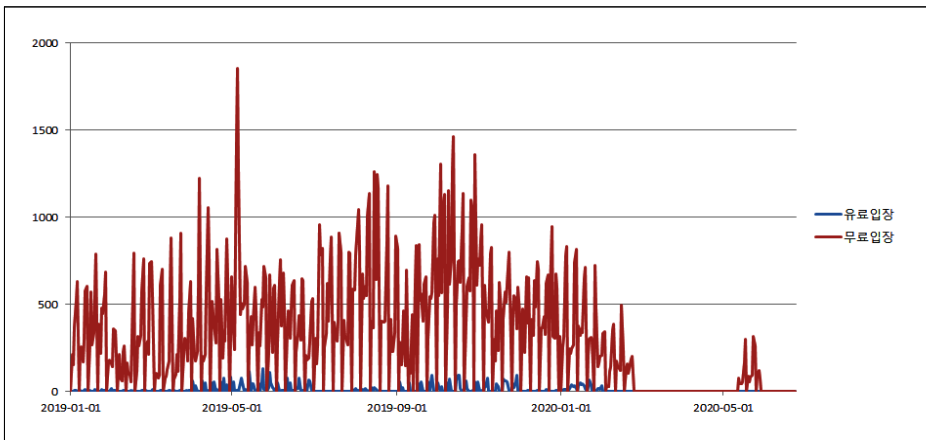
[그림 4-13]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유·무료입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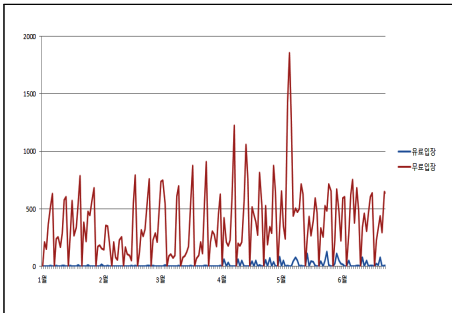
[그림 4-14] 2020년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유·무료입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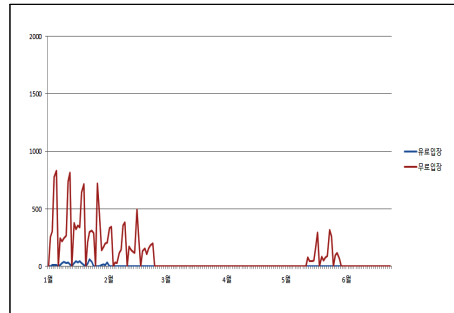
[그림 4-15] 2019~2020년 경기도 미술관 유·무료입장 추이



[그림 4-16]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미술관 유·무료입장 추이



[그림 4-17] 2020년 상반기 경기도 미술관 유·무료입장 추이



#### 4) 개인·단체입장객 추이

- 2019/2020년 상반기 박물관 개인·단체입장객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각각 57.9% 및 90.2%씩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박물관의 개인입장객수는 총 74,169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5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과 4월(△100.0%), 6월(△100.0%)로 나타남
  - 전월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과 6월(△100.0%)로 나타났으며 2월(△93.9%)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5월에는 일시적으로 입장객수가 3,494명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6월(△100.0%)에 다시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박물관의 단체입장객수는 총 6,920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9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과 4월(△100.0%), 5월(△100.0%), 6월(△100.0%)로 나타남
  - 전월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로 나타났으며 2월(△64.6%)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9/2020년 상반기 미술관 개인·단체입장객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각각 73.5% 및 92.7%씩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미술관의 개인입장객수는 총 14,195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7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과 4월(△100.0%), 5월(△100.0%), 6월(△100.0%)로 나타남
  - 전월 대비 감소 폭이 큰 시기는 3월(△100.0%)로 나타났으며 2월(△61.3%)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20년 상반기 미술관의 단체입장객수는 총 818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9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월에는 전년(1,981명) 대비 58.7% 감소한 818명을 기록함
  - 2월부터 6월까지 단체입장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5〉 2019-2020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개인 입장객 추이

(단위: 명, %)

	개인입장					
	2019년		2020년		19-20 증감률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1월	25,748	8,193	59,812	10,233	132.3	24.9
	( - )	( - )	( - )	( - )		
2월	29,449	6,307	10,863	3,962	△63.1	△37.2
	(14.4)	(△23.0)	(△91.8)	(△61.3)		
3월	34368	8,864	0	0	△100.0	△100.0
	(16.7)	(40.5)	(△100.0)	(△100.0)		
4월	28,201	9,138	0	0	△100.0	△100.0
	(-17.9)	(3.1)	(0.0)	(0.0)		
5월	28,774	12,934	3,494	0	△87.9	△100.0
	(2.0)	(28.6)	-	(0.0)		
6월	29,598	8,231	0	0	△100.0	△100.0
	(2.9)	(△36.4)	(△100.0)	(0.0)		
합계	176,138	53,667	74,169	14,195	△57.9	△73.5

주) 괄호 안의 수는 전월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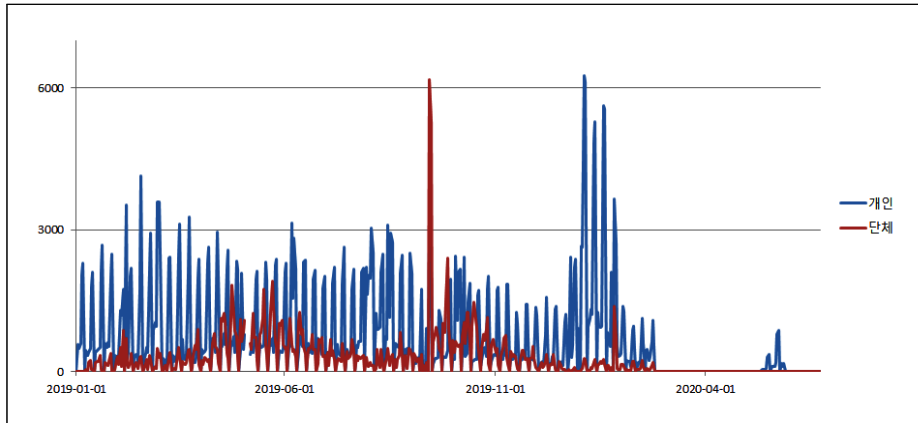
〈표 4-16〉 2019-2020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단체 입장객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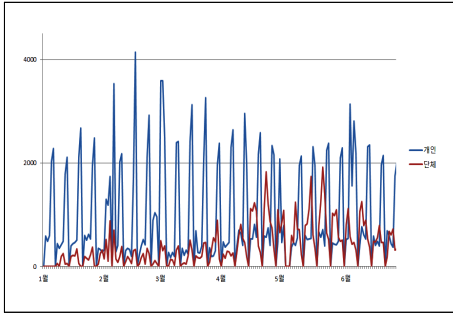
	단체입장					
	2019년		2020년		19-20 증감률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1월	3,239	1,981	5,110	818	57.8	△58.7
	( - )	( - )	( - )	( - )		
2월	5,549	435	1,810	0	△67.4	△100.0
	(71.3)	(△78.0)	(△64.6)	(△100.0)		
3월	7,480	777	0	0	△100.0	△100.0
	(34.8)	(78.6)	(△100.0)	(0.0)		
4월	16,624	3,421	0	0	△100.0	△100.0
	(122.2)	(340.3)	(0.0)	(0.0)		
5월	23,123	1,847	0	0	△100.0	△100.0
	(39.1)	(△46.0)	(0.0)	(0.0)		
6월	14,666	2,770	0	0	△100.0	△100.0
	(△36.6)	(50.0)	(0.0)	(0.0)		
합계	70,681	11,231	6,920	818	△90.2	△92.7

주) 괄호 안의 수는 전월 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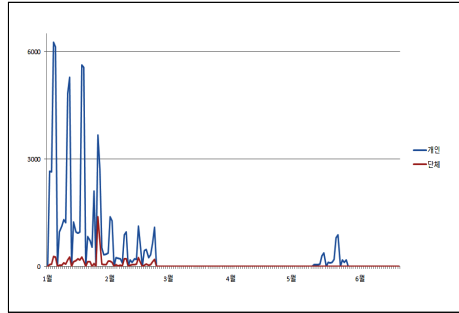
〔그림 4-18〕 2019~2020년 경기도 박물관 개인·단체입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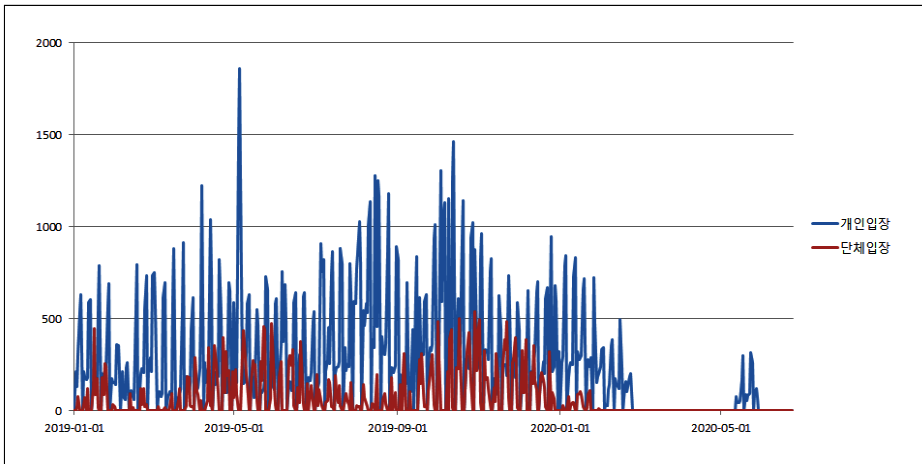
[그림 4-19] 2019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개인·단체입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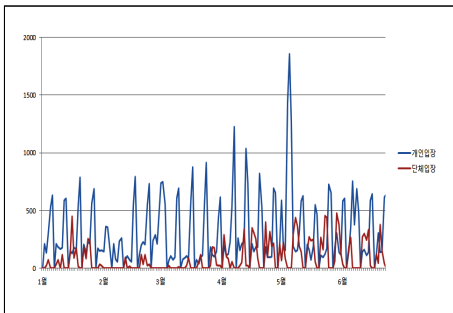
[그림 4-20] 2020년 상반기 경기도 박물관  
개인·단체입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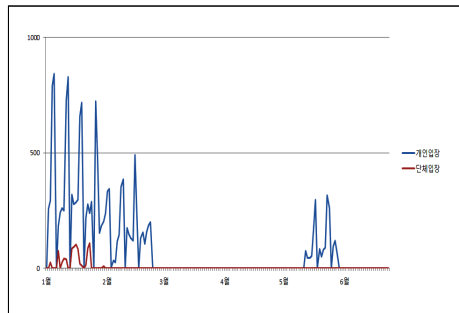
[그림 4-21] 2019~2020년 경기도 미술관 개인·단체입장 추이



[그림 4-22]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미술관  
유·무료입장 추이



[그림 4-23] 2020년 상반기 경기도 미술관  
유·무료입장 추이



### 3. 스마트폰·PC 이용 동향

#### 가. 개요

- 스마트폰 PC 이용현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달 공표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용 시간과 이용 서비스 등을 분석하였음

#### 나. 스마트폰 이용시간

- 스마트폰 이용시간 동향을 살펴보면 3월(8,263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이용시간 동향을 살펴보면 3월(1,699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스마트폰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이용시간 동향을 살펴보면 1월(124분)부터 5월(187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후 9월(147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4-17〉 스마트폰 이용시간 동향

(단위: 분, %)

분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스마트폰 이용시간	값	7,337	7,236	8,263	7,550	7,525	7,048	7,400	7,472	7,201
	A	-	△1.4	14.2	△8.6	△0.3	△6.3	5.0	1.0	△3.6
동영상	값	1,500	1,481	1,699	1,606	1,541	1,432	1,524	1,529	1,451
	A	-	△1.3	14.7	△5.5	△4.1	△7.1	6.5	0.3	△5.1
방송	값	123	146	171	181	187	178	177	162	147
	A	-	17.9	17.3	5.7	3.2	△4.5	△0.6	△8.7	△9.2
드라마 및 영화	값	16.8	25.4	24.6	30.6	28.4	24.4	24.3	18.0	15.5
	A	-	50.9	△3.1	24.3	△7.3	△14.0	△0.3	△26.0	△14.3
오락	값	55.3	63.0	80.7	76.7	87.5	87.5	82.0	73.0	67.4
	A	-	13.9	28.0	△4.9	14.0	0.0	△6.3	△10.9	△7.7
보도	값	32.4	37.0	47.7	54.8	44.2	40.3	42.8	43.2	41.8
	A	-	14.1	28.9	14.9	△19.4	△8.7	6.1	0.9	△3.1
정보	값	7.4	8.8	10.0	11.4	11.4	10.7	11.9	10.6	8.0
	A	-	20.1	13.7	13.1	0.6	△6.4	10.7	△11.0	△24.4

분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교육	값	0.0	0.1	0.1	0.0	0.1	0.0	0.1	0.1	0.3
	A	-	133.3	△28.6	△80.0	800.0	△100	-	18.2	92.3
어린이	값	1.8	1.8	1.2	2.2	2.1	1.5	1.3	1.9	0.8
	A	-	△3.3	△33.7	83.9	△2.3	△31.6	△12.4	52.8	△58.8
스무츠	값	9.5	9.7	6.7	5.2	13.0	13.5	14.9	15.0	13.2
	A	-	2.4	△30.4	△22.8	149.0	4.5	10.2	0.7	△12.1
기타	값	0.4	0.1	0.2	0.1	0.1	0.5	0.1	0.1	0.2
	A	-	△69.8	53.8	△60.0	25.0	430.0	△73.6	△7.1	53.8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PC방송프로그램 이용행태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 2) PC 이용시간

- PC 이용시간 동향을 살펴보면 1월(1,165분)부터 4월(1,381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후 감소와 증가추세가 반복되고 있음
- PC를 통한 동영상 이용시간 동향을 살펴보면 4월(368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PC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이용시간 동향을 살펴보면 1월(87분)부터 3월(142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후 9월(59분)까지 감소하는 추세

〈표 4-18〉 PC 이용시간 동향

(단위: 분, %)

분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PC 이용시간	값	1,165	1,284	1,316	1,381	1,354	1,134	1,257	1,185	1,210
	A	-	10.3	2.5	5.0	△1.9	△16.2	10.8	△5.7	2.1
동영상	값	258	320	256	368	350	238	349	214	241
	A	-	24.1	△19.9	43.6	△5.0	△31.9	46.7	△38.8	12.9
방송	값	87	123	142	141	136	77	71	67	59
	A	-	40.5	15.3	△0.2	△3.8	△43.5	△7.8	△4.8	△12.9
드라마 및 영화	값	17.4	25.4	23.0	24.5	24.4	11.0	8.2	8.6	8.3
	A	-	46.2	△9.2	6.5	△0.4	△54.9	△25.6	4.6	△3.8
오락	값	45.7	47.4	60.9	63.3	62.0	49.2	47.8	41.0	35.5
	A	-	3.9	28.5	3.8	△2.0	△20.7	△2.9	△14.1	△13.4

분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보도	값	6.7	8.1	8.7	12.8	8.8	4.9	4.4	4.8	5.6
	A	-	20.3	7.4	46.4	△31.1	△44.8	△9.3	9.3	16.8
정보	값	5.4	8.2	6.3	6.9	6.5	5.4	4.6	4.3	3.7
	A	-	53.4	△24.0	10.4	△5.7	△16.7	△15.3	△6.5	△14.0
교육	값	0.0	0.0	0.0	0.1	0.0	0.0	0.1	0.0	0.1
	A	-	△50.0	100.0	200.0	△83.3	0.0	+	△60.0	+
어린이	값	1.6	2.1	1.3	1.9	1.1	0.7	0.5	0.4	0.3
	A	-	29.3	△37.7	42.4	△40.4	△41.1	△22.7	△15.7	△23.3
스포츠	값	10.6	31.7	41.3	32.0	33.1	5.6	5.4	8.3	5.2
	A	-	200.0	30.6	△22.7	3.6	△83.0	△4.6	54.7	△37.7
기타	값	0.1	0.0	0.0	0.0	0.0	0.1	0.0	0.0	0.1
	A	-	△87.5	0.0	△100	-	+	△100	-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PC방송프로그램 이용행태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 4. 주요 문화서비스 검색 동향

### 가. 개요

- 문화서비스 검색 동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검색어 트렌드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관련 검색어 동향 지표에 대한 시범적용을 진행함
  - 분석 대상은 미술관(작품, 예술, 전시, 사진, 공간, 문화, 그림, 미술), 박물관(축전, 전시, 유물), 도서관(도서대출 책, 독서), 공연장(공연, 연극, 발레, 전통공연, 클래식, 뮤지컬, 씨어터), 영화관(영화, 개봉일, 스크린) 등의 문화예술관련 시설임
  - 분석 기간에 검색어가 가장 많았던 기간이 기준점(100p)이 되며, 기준점 기준으로 검색어의 변동량을 분석할 수 있음

## 나. 주요 문화서비스 검색 추이

〈표 4-19〉 문화예술분야 검색어 트렌드 현황

(단위: p. %)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미술관	값	81.3	75.9	91.8	100.0	94.4	89.0	87.6	77.7	90.0
	A	△1.3	△6.6	20.9	8.9	△5.6	△5.8	△1.5	△11.4	15.9
	B	△5.4	4.4	△4.0	15.5	8.9	7.2	8.5	△6.9	8.6
박물관	값	100.0	72.3	63.1	68.0	73.7	69.5	85.8	68.9	62.9
	A	3.6	△27.7	△12.6	7.8	8.4	△5.8	23.4	△19.7	△8.7
	B	0.9	△14.6	△35.0	△24.8	△16.1	△17.9	△7.7	△28.7	△25.2
도서관	값	79.4	73.5	96.0	100.0	98.8	88.9	89.6	91.7	86.1
	A	△3.6	△7.4	30.6	4.1	△1.2	△10.1	0.9	2.3	△6.2
	B	△3.1	11.4	10.6	29.1	33.6	14.1	8.7	7.0	19.5
공연장	값	70.6	43.9	43.7	44.0	41.4	39.2	56.6	50.4	36.8
	A	△29.4	△37.9	△0.3	0.6	△5.9	△5.3	44.6	△11.0	△27.0
	B	15.7	△17.3	△23.0	△12.5	△21.9	△26.5	△13.3	△44.4	△37.9
영화관	값	100.0	66.5	44.5	32.4	33.2	40.6	49.4	57.9	40.0
	A	6.2	△33.5	△33.2	△27.2	2.5	22.4	21.5	17.3	△30.9
	B	6.8	△22.1	△45.3	△54.3	△52.1	△41.2	△41.5	△39.3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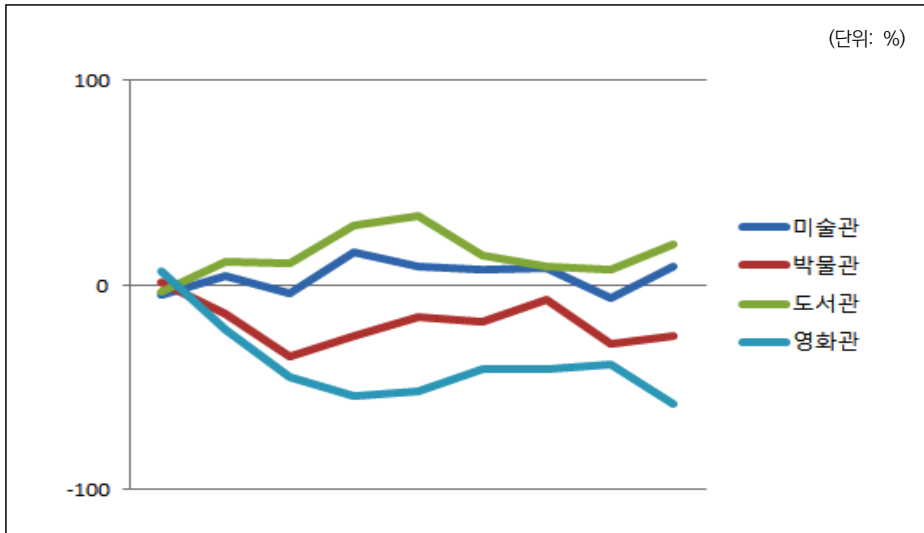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트렌드 분석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 미술관의 경우, 1월(81.3p)에서 4월(100.0p)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8월(77.7p)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후 9월(90.0p)에 다시 증가함
- 박물관의 경우, 1월(100.0p)에서 3월(63.1p)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5월(73.7p)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후 감소와 증가추세가 반복됨
- 도서관의 경우, 1월(79.4p)에서 2월(73.5p)까지 감소하였으며, 4월(100.0p)까지 증가함. 6월(88.9p)에 크게 감소한 후에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연장의 경우, 1월(70.6p)에서 6월(39.2p)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후 7월(56.6p)에 잠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후 9월(36.8p)까지 다시 감소함
- 영화관의 경우, 1월(100.0p)에서 3월(32.4p)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8월(57.9p)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후 9월(40.0p)에 다시 감소함

- 전년대비 기준으로 2020년 상반기 도서관과 미술관의 검색량은 각 19.5%, 8.6% 증가하였고,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의 검색량은 각 25.2%, 37.9%, 5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4] '19년 대비 '20년 문화예술 검색어 트렌드 증감율





## 제3절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시범적용

### 1. 문화예술분야 추출 기준 설정

- 문화예술분야를 설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산업분류가 가능해야 하는 상황이나, 현재 합의된 문화예술산업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문화정보원에서 구축하여 문화센터의 지표추출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산업분류를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음
  - 다만,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이미 독자적으로 산업화 되고, 산업의 규모가 타 문화예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영화, 방송, 게임 산업은 제외하였고, 문화예술분류로 적합하지 않은 체육 및 관광산업도 제외하고 문화예술분야를 설정하였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분야로 설정한 영역은 아래와 같음
  - (대분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만을 문화산업으로 분류함
  - (중분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문화산업으로 분류함
  - 중분류의 경우, 문화예술분야와 기타분야가 혼재된 경우가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비중이 작을 경우 문화예술산업에서 제외함
  - (소분류) 인쇄 및 복제, 기록매체 복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악기제조,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 영상 제작 및 배급, 오디오물 출판 및 녹음, 전문 디자인, 사진 촬영 및 처리,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도서관·사적지 및 여가관련 서비스 등 13개의 소분류를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함

〈표 4-20〉 본 연구의 문화예술산업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C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 및 복제
			기록매체 복제
		기타 제조 제품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악기제조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G	도매 및 소매업	소매업(제조업 제외)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J	정보통신업	출판업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상 제작 및 배급
			오디오물 출판 및 녹음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
			사진 촬영 및 처리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도서관·사적지 및 여가관련 서비스

- 분류기준은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분야 추출을 위해 사용된 기준이므로 분류기준의 적합성이 높은 것은 아닐 수 있음

## 2. 문화예술 사업체 동향

### 가. 개요

-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화예술 사업체의 수를 분석함
-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시스템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사업장의 현황데이터 분석이 가능함
  - 산업분류 소분류까지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예술 소분류 수준에서 분석하였음
  - 그리고 데이터 구조가 균질적이지 않아 전국단위 분석을 하기에는 데이터 조정을 위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울시만 추출하여 분석하였음

- 지역 내의 문화예술 공급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대표지역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분석대상 지역은 문화예술분야 사업체가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로 설정함

#### 나. 서울시 사업장수 동향

-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문화예술분야 사업장수 동향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4월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사업장수는 24,170개로 2019년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영상 제작 및 배급업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장수가 증가하여 9월에는 4,558개의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악기제조업으로 2월 기준 23개의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월에는 사업장수가 1월 대비 4.2% 감소하였으나 3월과 4월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4-21〉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 사업장 동향

(단위: 개, %)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값	23,845	23,992	24,161	24,170	24,199	24,387	24,562	24,697	24,712
	A	0.6	0.6	0.7	0.0	0.1	0.8	0.7	0.5	0.1
	B	△2.2	△2.6	△3.1	△3.7	△3.5	△2.5	△1.8	△1.6	△1.0
인쇄 및 복제	값	4,413	4,411	4,410	4,396	4,392	4,410	4,418	4,424	4,399
	A	0.1	0.0	0.0	△0.3	△0.1	0.4	0.2	0.1	△0.6
	B	△2.2	△2.6	△3.1	△3.7	△3.5	△2.5	△1.8	△1.6	△1.0
기록매체 복제	값	37	37	37	35	35	35	35	36	36
	A	2.8	0.0	0.0	△5.4	0.0	0.0	0.0	2.9	0.0
	B	△7.5	△9.8	△7.5	△12.5	△10.3	△7.9	△7.9	△2.7	0.0
귀금속 및 장신용품	값	916	920	921	915	909	911	919	924	918
	A	0.1	0.4	0.1	△0.7	△0.7	0.2	0.9	0.5	△0.6
	B	1.2	0.7	0.4	△0.3	△0.4	△0.7	0.2	0.3	1.2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악기제조	값	24	23	24	25	25	25	26	26	26
	A	0.0	△4.2	4.3	4.2	0.0	0.0	4.0	0.0	0.0
	B	14.3	9.5	14.3	19.0	19.0	13.6	18.2	8.3	13.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값	114	113	114	116	115	118	119	120	120
	A	3.6	△0.9	0.9	1.8	△0.9	2.6	0.8	0.8	0.0
	B	2.7	1.8	2.7	5.5	2.7	5.4	10.2	7.1	9.1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값	1,921	1,925	1,941	1,930	1,914	1,913	1,922	1,928	1,933
	A	0.5	0.2	0.8	△0.6	△0.8	△0.1	0.5	0.3	0.3
	B	△2.6	△1.9	△1.1	△2.0	△2.2	△1.9	△0.5	△0.4	1.3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	값	3,458	3,466	3,478	3,459	3,476	3,500	3,518	3,523	3,537
	A	0.3	0.2	0.3	△0.5	0.5	0.7	0.5	0.1	0.4
	B	△0.8	△0.7	△0.7	△1.2	△0.7	0.1	1.1	1.1	2.3
영상 제작 및 배급	값	4,198	4,251	4,311	4,353	4,365	4,429	4,474	4,529	4,558
	A	1.3	1.3	1.4	1.0	0.3	1.5	1.0	1.2	0.6
	B	10.9	10.4	10.4	10.0	9.1	10.1	10.7	10.9	11.7
오디오물 출판 및 녹음	값	526	530	537	537	543	553	553	559	561
	A	0.6	0.8	1.3	0.0	1.1	1.8	0.0	1.1	0.4
	B	7.3	7.9	8.7	7.8	7.7	8.0	6.3	7.7	8.9
전문 디자인	값	3,780	3,795	3,833	3,832	3,832	3,857	3,897	3,930	3,932
	A	0.6	0.4	1.0	0.0	0.0	0.7	1.0	0.8	0.1
	B	6.2	5.9	5.8	5.4	4.2	4.2	5.2	5.2	5.7
사진 촬영 및 처리	값	1,411	1,424	1,431	1,428	1,432	1,438	1,459	1,459	1,464
	A	1.3	0.9	0.5	△0.2	0.3	0.4	1.5	0.0	0.3
	B	5.5	5.1	4.1	3.9	4.4	4.2	5.1	5.5	5.9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값	2,089	2,118	2,147	2,170	2,186	2,200	2,219	2,229	2,227
	A	0.8	1.4	1.4	1.1	0.7	0.6	0.9	0.5	△0.1
	B	8.3	8.6	8.9	8.4	8.6	8.6	8.3	7.5	8.6
도서관·사적지 및 여가관련 서비스	값	958	979	977	974	975	998	1,003	1,010	1,001
	A	0.1	2.2	△0.2	△0.3	0.1	2.4	0.5	0.7	△0.9
	B	5.6	6.5	5.4	4.1	3.3	5.6	5.7	5.9	5.1

출처: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1)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는 기준 값이 0인 경우를 의미함

주3) +는 증가율이 300%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다. 서울시 신규성립사업장수 동향

- 문화예술분야 신규성립사업장수 동향을 살펴보면 3월부터 5월, 8월에는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5월의 경우, 신규성립사업장수가 535개로 분석기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성립사업장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영상 제작 및 배급업으로 2월의 경우, 149개의 사업장이 신규로 성립되었으며, 7월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후, 9월에 다시 증가함
- 신규성립사업장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기록매체 복제업이며, 1월, 4월, 8월에 만 각 1개의 신규사업장이 성립됨

〈표 4-22〉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신규사업장 동향

(단위: 개, %)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값	692	801	701	677	535	707	735	690	694
	A	18.1	15.8	△12.5	△3.4	△21.0	32.1	4.0	△6.1	0.6
	B	115.6	183.0	140.9	155.5	98.1	206.1	144.2	181.6	196.6
인쇄 및 복제	값	88	99	59	81	60	86	81	72	71
	A	29.4	12.5	△40.4	37.3	△25.9	43.3	△5.8	△11.1	△1.4
	B	95.6	241.4	96.7	252.2	200.0	681.8	+	278.9	273.7
기록매체 복제	값	1	0	0	1	0	0	0	1	0
	A	-	△100	-	-	△100	-	-	-	△100
	B	-	△100	-	-	-	-	-	0.0	-
귀금속 및 장신용품	값	9	16	9	12	6	13	15	12	10
	A	12.5	77.8	△43.8	33.3	△50.0	116.7	15.4	△20.0	△16.7
	B	80.0	△5.9	50.0	200.0	0.0	30.0	36.4	9.1	66.7
약기제조	값	3	3	1	1	0	0	2	1	3
	A	200.0	0.0	△66.7	0.0	△100	-	-	△50.0	200.0
	B	-	-	-	-	-	△100	-	△50.0	-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값	7	7	5	9	2	4	9	5	4
	A	△12.5	0.0	△28.6	80.0	△77.8	100.0	125.0	△44.4	△20.0
	B	-	+	66.7	-	100.0	-	+	66.7	+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값	96	95	115	106	77	93	105	98	96
	A	14.3	△1.0	21.1	△7.8	△27.4	20.8	12.9	△6.7	△2.0
	B	+	+	+	+	+	+	+	+	+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	값	55	62	53	40	46	60	52	50	59
	A	31.0	12.7	△14.5	△24.5	15.0	30.4	△13.3	△3.8	18.0
	B	96.4	169.6	82.8	73.9	100.0	200.0	92.6	177.8	227.8
영상 제작 및 배급	값	124	149	126	114	96	137	135	146	141
	A	30.5	20.2	△15.4	△9.5	△15.8	42.7	△1.5	8.1	△3.4
	B	57.0	86.3	82.6	56.2	31.5	168.6	80.0	131.7	127.4
오디오물 출판 및 녹음	값	8	12	9	8	10	8	8	14	10
	A	14.3	50.0	△25.0	△11.1	25.0	△20.0	0.0	75.0	△28.6
	B	△11.1	200.0	80.0	33.3	11.1	0.0	0.0	250.0	150.0
전문 디자인	값	108	104	110	96	92	101	124	109	108
	A	13.7	△3.7	5.8	△12.7	△4.2	9.8	22.8	△12.1	△0.9
	B	96.4	136.4	86.4	140.0	43.8	124.4	148.0	131.9	107.7
사진 촬영 및 처리	값	60	70	59	57	35	52	53	48	52
	A	33.3	16.7	△15.7	△3.4	△38.6	48.6	1.9	△9.4	8.3
	B	172.7	191.7	145.8	280.0	150.0	116.7	194.4	166.7	160.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값	65	94	71	68	48	84	79	65	71
	A	△8.5	44.6	△24.5	△4.2	△29.4	75.0	△6.0	△17.7	9.2
	B	41.3	224.1	129.0	51.1	60.0	147.1	68.1	109.7	317.6
도서관·사적지 및 여가관련 서비스	값	68	90	84	84	63	69	72	69	69
	A	9.7	32.4	△6.7	0.0	△25.0	9.5	4.3	△4.2	0.0
	B	+	+	+	+	270.6	+	227.3	+	+

출처: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1)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는 기준 값이 0인 경우를 의미함

주3) +는 증가율이 300%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라. 서울시 소멸사업장수 동향

- 문화예술분야 소멸사업장수 동향을 살펴보면 전월 대비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소멸사업장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소멸사업장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인쇄 및 복제업으로 2월에 97개의 사업장이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 소멸사업장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기록매체 복제업으로 4월(2개)과 5월(1개) 외에는 소멸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3〉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소멸사업장 동향

(단위: 개, %)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값	382	502	315	475	435	281	329	327	485
	A	△32.3	31.4	△37.3	50.8	△8.4	△35.4	17.1	△0.6	48.3
	B	146.5	+	205.8	292.6	139.0	67.3	7.5	168.0	18.9
인쇄 및 복제	값	62	97	49	70	62	43	51	46	88
	A	△31.1	56.5	△49.5	42.9	△11.4	△30.6	18.6	△9.8	91.3
	B	+	+	+	+	129.6	26.5	8.5	130.0	20.5
기록매체 복제	값	0	0	0	2	1	0	0	0	0
	A	-	-	-	-	△50.0	△100	-	-	-
	B	-	-	-	-	-	-	-	△100	△100
귀금속 및 장신용품	값	6	14	7	19	10	8	4	6	15
	A	△50.0	133.3	△50.0	171.4	△47.4	△20.0	△50.0	50.0	150.0
	B	50.0	75.0	133.3	+	11.1	33.3	△66.7	0.0	△25.0
약기제조	값	0	2	0	2	0	0	0	1	1
	A	△100	-	△100	-	△100	-	-	-	0.0
	B	-	-	-	-	-	-	-	-	-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값	1	4	2	3	1	2	4	4	4
	A	△83.3	+	△50.0	50.0	△66.7	100.0	100.0	0.0	0.0
	B	-	+	0.0	-	-	-	100.0	-	33.3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값	53	85	49	96	95	63	53	70	73
	A	△42.4	60.4	△42.4	95.9	△1.0	△33.7	△15.9	32.1	4.3
	B	152.4	+	226.7	+	+	231.6	51.4	+	65.9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	값	41	38	24	45	28	25	32	33	38
	A	△12.8	△7.3	△36.8	87.5	△37.8	△10.7	28.0	3.1	15.2
	B	78.3	192.3	20.0	181.3	21.7	31.6	△30.4	120.0	△13.6
영상 제작 및 배급	값	41	54	34	44	56	33	44	26	68
	A	△38.8	31.7	△37.0	29.4	27.3	△41.1	33.3	△40.9	161.5
	B	41.4	285.7	112.5	120.0	100.0	6.5	△22.8	36.8	0.0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오디오물 출판 및 녹음	값	5	6	3	8	5	4	3	6	6
	A	△44.4	20.0	△50.0	166.7	△37.5	△20.0	△25.0	100.0	0.0
	B	150.0	200.0	0.0	+	25.0	-	200.0	20.0	△14.3
전문 디자인	값	42	56	48	65	61	33	43	38	68
	A	△44.7	33.3	△14.3	35.4	△6.2	△45.9	30.3	△11.6	78.9
	B	31.3	250.0	+	182.6	134.6	37.5	0.0	90.0	7.9
사진 촬영 및 처리	값	19	43	27	38	38	20	39	37	41
	A	△62.7	126.3	△37.2	40.7	0.0	△47.4	95.0	△5.1	10.8
	B	280.0	+	285.7	137.5	137.5	150.0	77.3	+	57.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값	35	43	28	41	38	24	24	27	43
	A	△40.7	22.9	△34.9	46.4	△7.3	△36.8	0.0	12.5	59.3
	B	118.8	290.9	211.1	272.7	100.0	50.0	4.3	200.0	4.9
도서관·사적지 및 여가관련 서비스	값	77	60	44	42	40	26	32	33	40
	A	45.3	△22.1	△26.7	△4.5	△4.8	△35.0	23.1	3.1	21.2
	B	+	+	+	+	+	136.4	77.8	+	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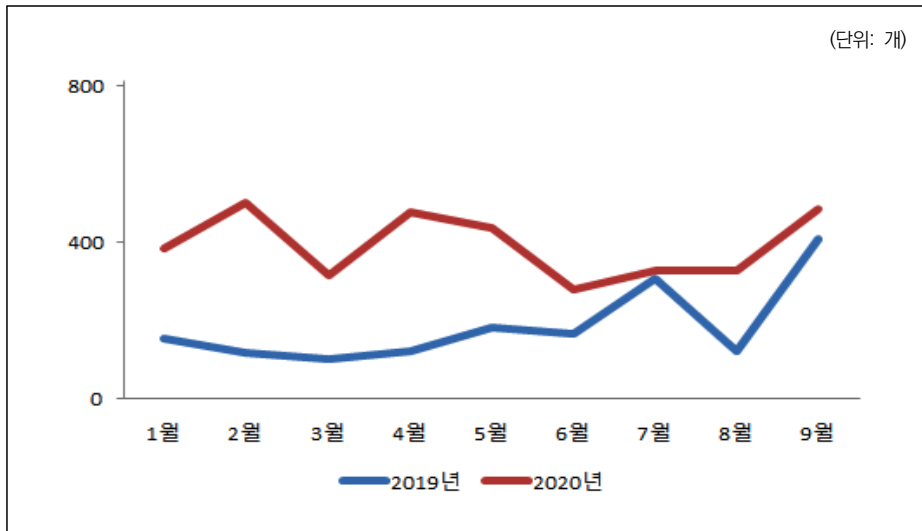
출처: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1)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는 기준 값이 0인 경우를 의미함

주3) +는 증가율이 300%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그림 4-25] '19-'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소멸사업장 추이 비교





### 3. 문화예술산업 생산자 물가 동향

#### 가. 개요

- 문화예술에 대한 생산물가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생산자 물가조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생산자 물가를 분석함
  - 생산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상품분류표의 세분류 중 문화예술산업에 속하는 신문 및 출판 서비스, 영상·오디오물 제작배급, 문화 및 여행관련 서비스 등 3가지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

#### 나. 문화예술산업 생산자 물가 동향

- 신문 및 출판서비스업과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업의 경우, 전월대비 큰 변화폭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문화 및 여행관련업은 2월에 4.7% 감소 후 7월에 5.9% 상승함
-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업은 2019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으나 신문 및 출판서비스업은 4월에 4.2% 증가한 후 유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문화 및 여행관련 서비스업은 4월부터 7월까지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중 6월의 경우 2019년 대비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4〉 2020년 문화예술분야 생산자물가지수 동향

(단위: p, %)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신문 및 출판 서비스	값	112.12	112.17	112.17	112.17	112.17	112.17	111.98
	A	0.1	0.0	0.0	0.0	0.0	0.0	△0.2
	B	-	-	-	4.2	0.3	0.2	△0.1
영상·오디 오물 제작배급	값	112.98	112.98	112.98	112.98	112.98	112.98	112.98
	A	0.0	0.0	0.0	0.0	0.0	0.0	0.0
	B	-	-	-	0.1	0.1	0.1	0.1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문화 및 여행관련 서비스	값	102.27	97.5	97.5	98.11	98.68	98.09	103.9
	A	3.8	△4.7	0.0	0.6	0.6	△0.6	5.9
	B	-		-	△8.5	△6.5	△18.8	△4.6

출처: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주1)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는 산업분류로 인해 산출불가능한 증감률을 의미함

## 4. 문화예술 소비지출 동향

### 가. 개요

- 문화예술에 대한 가구의 소비지출액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소비지출액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소비지출 동향을 분석함
  -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소비지출액은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 분류 중에서 개별소비지출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중분류까지 발표되고 있어 중분류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함

### 나. 가구당 문화예술 소비지출 동향

- 가계동향 조사 기준 오락·문화에 대한 가구당 소비지출액의 경우, 2019년 3/4분기에는 157,471원이었으나 2/4분기(128,852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가구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많은 문화예술 상품은 문화서비스로 나타났으며, 2019년 1/4분기(38,818원)에서 2020년 2/4분기(36,867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가구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적은 문화예술 상품은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로 나타났으며, 2019년 1/4분기(215원)에서 2020년 2/4분기(542원)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4-25〉 문화예술분야 가구당 소비지출액 동향

(단위: 원, %)

지역	구분	2019년				202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오락·문화	값	166,533	151,038	157,471	147,133	138,990	128,852
	A	-	△9.3	4.3	△6.6	△5.5	△7.3
	B	-	-	-	-	△16.5	△14.7
영상음향기기	값	5,498	4,560	6,154	6,756	6,011	9,189
	A	-	△17.1	35.0	9.8	△11.0	52.9
	B	-	-	-	-	9.3	101.5
사진광학장비	값	850	252	585	270	404	275
	A	-	△70.4	132.1	△53.8	49.6	△31.9
	B	-	-	-	-	△52.5	9.1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값	575	413	687	629	610	645
	A	-	△28.2	66.3	△8.4	△3.0	5.7
	B	-	-	-	-	6.1	56.2
오락문화 내구재	값	1,995	318	2,370	78	708	1,244
	A	-	△84.1	+	△96.7	+	75.7
	B	-	-	-	-	△64.5	291.2
악기기구	값	1,848	967	1415	1520	811	752
	A	-	△47.7	46.3	7.4	△46.6	△7.3
	B	-	-	-	-	△56.1	△22.2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값	215	244	477	703	269	542
	A	-	13.5	95.5	47.4	△61.7	101.5
	B	-	-	-	-	25.1	122.1
문화서비스	값	38,818	39,378	37,166	35,129	36,130	36,867
	A	-	1.4	△5.6	△5.5	2.8	2.0
	B	-	-	-	-	△6.9	△6.4
서적	값	12,012	7,213	9,118	7,217	9,775	9,152
	A	-	△40.0	26.4	△20.8	35.4	△6.4
	B	-	-	-	-	△18.6	26.9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1)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는 기준 값이 0인 경우를 의미함

주3) +는 증가율이 300%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5. 문화예술인력 고용의 질 동향

### 가. 개요

- 문화예술분야 고용의 질적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시간, 보험자 수 등을 분석함
- 임금 및 근로시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수준에서 발표하고 있으므로 예술 및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문화예술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함
- 보험자수와 관련된 분석의 경우, 고용행정통계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소분류 수준까지 발표하고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 분류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13개의 산업을 추출 분석함
- 또한 지역 내의 고용의 질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대표지역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분석대상 지역은 사업체 분석과 동일하게 문화예술분야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로 설정함

### 나. 1인당 평균 임금

- 문화예술분야 상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전반적으로 감소와 증가추세가 반복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달은 4월(263.1만원)로 나타남

〈표 4-26〉 2020년 문화예술분야 1인당 평균 임금 동향

(단위: 천 원, %)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예술 및 스포츠	값	3,173	2,787	2,931	2,631	2,682	2,705	3,120	2,719
	A	△4.5	△12.2	5.2	△10.2	1.9	0.9	15.3	△12.9
	B	6.3	1.9	8.7	△2.0	2.1	△1.0	10.6	△1.8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 다. 1인당 평균 근로시간

- 문화예술분야 상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은 7월 (163.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난 구간은 2월 (145.9시간)로 2019년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분야 상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시간은 4월 (142.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대비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7〉 2020년 문화예술분야 1인당 평균 근로시간 동향

(단위: 시간, %)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예술 및 스포츠	값	150.6	145.9	151.7	142.0	144.8	159	163.8	150.2
	A	△3.9	△3.1	4.0	△6.4	2.0	9.8	3.0	△8.3
	B	△8.2	9.3	△1.1	△13.3	△10.3	6.6	△2.4	△5.4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 라. 사업장 피보험자수

-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문화예술분야의 피보험자수 동향을 살펴보면 1월 (13.1만 명)부터 9월(12.6만 명)까지 전반적으로 피보험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피보험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으로 나타났으며, 2월 (35,403명)부터 9월(34,796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피보험자가 가장 적은 업종은 악기제조업으로 나타났으며, 1월(141명)부터 5월 (145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9월(139명)까지 감소함

〈표 4-28〉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피보험자 동향

(단위: 명, %)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값	131,129	130,915	128,712	126,065	125,193	125,078	124,906	125,928	125,961
	A	0.1	△0.2	△1.7	△2.1	△0.7	△0.1	△0.1	0.8	0.0
	B	0.0	△0.2	△2.2	△3.8	△5.1	△5.1	△5.6	△5.7	△4.9
인쇄 및 복제	값	19,828	19,660	19,545	19,244	19,037	18,923	18,741	18,545	18,505
	A	△1.0	△0.8	△0.6	△1.5	△1.1	△0.6	△1.0	△1.0	△0.2
	B	△2.2	△5.1	△5.8	△6.8	△7.8	△7.6	△8.1	△8.7	△8.3
기록매체 복제	값	219	223	224	214	211	214	212	214	213
	A	△2.7	1.8	0.4	△4.5	△1.4	1.4	△0.9	0.9	△0.5
	B	△35.2	△34.4	△30.9	△33.3	△29.2	△29.1	△28.6	△7.8	△7.8
귀금속 및 장신용품	값	3,460	3,461	3,386	3,337	3,305	3,273	3,284	3,271	3,264
	A	△1.0	0.0	△2.2	△1.4	△1.0	△1.0	0.3	△0.4	△0.2
	B	△0.6	△1.3	△4.5	△5.4	△6.2	△7.0	△6.6	△6.7	△6.7
약기제조	값	141	141	143	144	145	142	139	140	139
	A	△0.7	0.0	1.4	0.7	0.7	△2.1	△2.1	0.7	△0.7
	B	△5.4	△6.0	△2.7	△2.7	△0.7	△2.7	△3.5	△5.4	△4.1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값	432	439	435	447	443	447	444	448	614
	A	△5.3	1.6	△0.9	2.8	△0.9	0.9	△0.7	0.9	37.1
	B	△14.6	△12.4	△13.7	△4.3	△6.9	△3.0	△3.3	△2.6	34.4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값	7,970	8,061	7,900	7,724	7,830	7,844	7,864	7,897	7,791
	A	△0.4	1.1	△2.0	△2.2	1.4	0.2	0.3	0.4	△1.3
	B	△0.8	0.2	△2.2	△4.0	△3.2	△1.9	△1.2	△2.3	△2.9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	값	35,203	35,403	35,315	34,944	34,897	34,812	34,859	34,833	34,796
	A	△0.1	0.6	△0.2	△1.1	△0.1	△0.2	0.1	△0.1	△0.1
	B	△1.4	△0.8	△1.0	△1.8	△1.3	△1.5	△1.3	△1.6	△1.5
영상 제작 및 배급	값	31,042	30,474	28,695	27,076	26,391	26,263	25,912	26,929	26,795
	A	3.2	△1.8	△5.8	△5.6	△2.5	△0.5	△1.3	3.9	△0.5
	B	△0.4	△0.6	△6.7	△10.6	△14.7	△15.0	△17.4	△16.7	△14.7
오디오물 출판 및 녹음	값	2,024	2,042	2,068	2,071	2,102	2,117	2,124	2,122	2,117
	A	2.1	0.9	1.3	0.1	1.5	0.7	0.3	△0.1	△0.2
	B	11.9	11.8	12.8	10.5	10.6	9.6	9.5	9.0	10.0
전문 디자인	값	12,052	12,120	12,057	11,902	11,805	11,886	11,915	11,951	11,963
	A	△0.5	0.6	△0.5	△1.3	△0.8	0.7	0.2	0.3	0.1
	B	3.9	4.1	3.2	1.8	0.2	0.6	0.4	0.0	△0.9
사진 촬영 및 처리	값	2,718	2,770	2,784	2,782	2,781	2,761	2,763	2,752	2,755
	A	△0.2	1.9	0.5	△0.1	0.0	△0.7	0.1	△0.4	0.1
	B	2.5	3.7	6.1	4.6	5.3	5.3	4.9	3.4	3.6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값	10,129	10,122	10,147	10,047	10,063	10,179	10,227	10,387	10,642
	A	△2.0	△0.1	0.2	△1.0	0.2	1.2	0.5	1.6	2.5
	B	7.6	6.6	5.2	4.4	2.5	2.8	1.7	2.5	4.9
도서관·여가 관련 서비스	값	5,911	5,999	6,013	6,133	6,183	6,217	6,422	6,439	6,367
	A	△3.4	1.5	0.2	2.0	0.8	0.5	3.3	0.3	△1.1
	B	△0.7	0.5	△1.7	△1.0	△2.8	△3.2	0.5	0.4	△0.9

출처: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1)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는 기준 값이 0인 경우를 의미함

주3) +는 증가율이 300%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마. 피보험취득자수

-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문화예술분야의 피보험취득자수 동향을 살펴보면 1월(7,267명)부터 5월(3,234명)까지 감소한 후, 9월(5,115명)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추세로 나타남
- 피보험취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영상 제작 및 배급업으로 나타났으며, 1월(3,133명)부터 9월(1,685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6월(1,117명, 38.9%)과 8월(2,168명, 94.4%)은 전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피보험취득자가 가장 적은 업종은 악기제조업으로 나타났으며, 6월의 경우, 피보험취득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9〉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피보험취득자 동향

(단위: 명, %)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값	7,267	6,151	5,025	4,125	3,234	3,940	4,417	5,086	5,115
	A	52.1	△15.4	△18.3	△17.9	△21.6	21.8	12.1	15.1	0.6
	B	△15.4	21.5	△27.1	△32.4	△48.0	△17.1	△27.9	△22.8	5.1
인쇄 및 복제	값	489	610	519	379	291	397	359	326	449
	A	8.9	24.7	△14.9	△27.0	△23.2	36.4	△9.6	△9.2	37.7
	B	△49.7	21.3	△19.0	△34.8	△52.2	△11.4	△33.9	△30.6	15.1
기록매체 복제	값	6	6	8	2	1	5	5	6	5
	A	0.0	0.0	33.3	△75.0	△50.0	+	0.0	20.0	△16.7
	B	△57.1	△40.0	+	△66.7	△83.3	△54.5	△61.5	△14.3	△44.4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귀금속 및 장신용품	값	107	143	91	87	52	72	114	74	118
	A	24.4	33.6	△36.4	△4.4	△40.2	38.5	58.3	△35.1	59.5
	B	△26.7	△8.9	△40.9	△32.0	△58.7	△37.9	△14.3	△36.8	0.0
약기제조	값	4	1	3	4	1	0	2	2	3
	A	+	△75.0	200.0	33.3	△75.0	△100	-	0.0	50.0
	B	100.0	△50.0	50.0	100.0	△66.7	△100	△60.0	△66.7	△40.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값	12	19	6	19	6	10	16	11	182
	A	33.3	58.3	△68.4	216.7	△68.4	66.7	60.0	△31.3	+
	B	△57.1	35.7	△80.0	11.8	△77.8	0.0	45.5	0.0	+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값	458	496	403	261	226	305	347	368	337
	A	19.6	8.3	△18.8	△35.2	△13.4	35.0	13.8	6.1	△8.4
	B	△2.3	16.4	△27.3	△44.8	△44.9	△12.9	△11.0	△20.9	△19.0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	값	948	1,034	897	759	707	661	825	651	776
	A	37.6	9.1	△13.2	△15.4	△6.9	△6.5	24.8	△21.1	19.2
	B	△19.6	28.9	△11.8	△18.0	△12.3	△15.4	△1.6	△18.8	7.6
영상 제작 및 배급	값	3,133	2,040	1,356	1,193	804	1,117	1,115	2,168	1,685
	A	68.6	△34.9	△33.5	△12.0	△32.6	38.9	△0.2	94.4	△22.3
	B	△12.8	27.4	△46.4	△44.4	△66.7	△29.5	△54.5	△28.0	1.9
오디오물 출판 및 녹음	값	137	97	96	96	71	77	67	67	89
	A	117.5	△29.2	△1.0	0.0	△26.0	8.5	△13.0	0.0	32.8
	B	53.9	59.0	15.7	△16.5	△18.4	△4.9	△19.3	△15.2	36.9
전문 디자인	값	632	608	530	504	410	504	557	515	541
	A	48.4	△3.8	△12.8	△4.9	△18.7	22.9	10.5	△7.5	5.0
	B	4.6	7.4	△11.5	△13.0	△38.3	△7.5	△5.4	△6.9	△1.6
사진 촬영 및 처리	값	149	199	177	130	110	143	146	130	136
	A	△9.1	33.6	△11.1	△26.6	△15.4	30.0	2.1	△11.0	4.6
	B	△12.4	38.2	35.1	△27.8	△21.4	10.0	8.1	△17.2	10.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값	598	503	574	348	335	408	359	478	529
	A	37.2	△15.9	14.1	△39.4	△3.7	21.8	△12.0	33.1	10.7
	B	△7.4	4.4	△15.6	△38.2	△37.0	1.0	△33.9	△4.0	13.3
도서관·사적지·여가관련 서비스	값	594	395	365	343	220	241	505	290	265
	A	184.2	△33.5	△7.6	△6.0	△35.9	9.5	109.5	△42.6	△8.6
	B	△13.0	33.4	△22.7	△10.0	△44.7	△16.0	28.5	△29.1	△22.3

출처: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1)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는 기준 값이 0인 경우를 의미함

주3) +는 증가율이 300%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바. 피보험상실자수

-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문화예술분야의 피보험상실자 동향을 살펴보면 1월(7,036명), 3월(7,192명)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피보험자 취득자 추이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 상실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영상제작 및 배급 업종으로 나타남

〈표 4-30〉 2020년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피보험상실자 동향

(단위: 명, %)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값	7,036	6,322	7,192	6,308	4,135	4,084	4,631	4,021	5,003
	A	54.3	△10.1	13.8	△12.3	△34.4	△1.2	13.4	△13.2	24.4
	B	△8.3	19.2	14.3	2.7	△18.6	△15.7	△18.5	△24.5	△8.6
인쇄 및 복제	값	651	707	612	666	493	493	496	505	419
	A	29.9	8.6	△13.4	8.8	△26.0	0.0	0.6	1.8	△17.0
	B	△36.8	43.7	3.6	6.6	△10.0	△8.5	△21.9	△7.5	△14.5
기록매체 복제	값	11	3	7	12	4	2	7	4	6
	A	57.1	△72.7	133.3	71.4	△66.7	△50.0	250.0	△42.9	50.0
	B	△35.3	△66.7	△36.4	71.4	△50.0	△66.7	△63.2	△94.4	△33.3
귀금속 및 장신용품	값	141	140	157	132	85	101	109	96	116
	A	6.8	△0.7	12.1	△15.9	△35.6	18.8	7.9	△11.9	20.8
	B	3.7	1.4	40.2	△7.0	△30.3	△13.7	△19.9	△21.3	△3.3
악기제조	값	5	1	0	4	0	3	5	3	4
	A	+	△80.0	△100	-	△100	-	66.7	△40.0	33.3
	B	66.7	0.0	△100	100.0	△100	△50.0	0.0	50.0	0.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값	38	9	14	12	10	8	12	10	17
	A	245.5	△76.3	55.6	△14.3	△16.7	△20.0	50.0	△16.7	70.0
	B	52.0	△50.0	△41.7	△64.7	△44.4	△66.7	50.0	△28.6	41.7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값	500	429	575	436	260	292	326	337	406
	A	20.8	△14.2	34.0	△24.2	△40.4	12.3	11.6	3.4	20.5
	B	△8.6	10.3	16.2	△12.3	△25.3	△30.0	△23.8	2.1	△9.2
서적 및 기타인쇄물 출판	값	965	854	986	915	748	740	814	655	767
	A	27.1	△11.5	15.5	△7.2	△18.3	△1.1	10.0	△19.5	17.1
	B	△8.4	△0.5	△4.2	1.9	△6.3	△6.9	△7.1	△13.7	△1.9
영상 제작 및 배급	값	2,173	2,636	3,110	2,701	1,415	1,214	1,486	1,166	1,850
	A	46.2	21.3	18.0	△13.2	△47.6	△14.2	22.4	△21.5	58.7
	B	△21.2	27.0	28.1	7.5	△20.1	△25.7	△23.9	△41.7	△19.2

지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오디오품 출판 및 녹음	값	100	74	73	85	47	74	66	65	76
	A	58.7	△26.0	△1.4	16.4	△44.7	57.4	△10.8	△1.5	16.9
	B	44.9	94.7	1.4	37.1	△24.2	39.6	△22.4	△9.7	24.6
전문 디자인	값	687	546	603	613	485	457	528	475	511
	A	58.3	△20.5	10.4	1.7	△20.9	△5.8	15.5	△10.0	7.6
	B	9.4	11.4	20.1	14.6	△14.0	△14.4	△2.2	△1.2	23.7
사진 촬영 및 처리	값	156	144	169	132	99	163	139	135	131
	A	9.1	△7.7	17.4	△21.9	△25.0	64.6	△14.7	△2.9	△3.0
	B	△6.0	15.2	△6.6	△5.7	△34.4	12.4	12.1	6.3	15.9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값	800	500	552	392	307	317	353	301	417
	A	160.6	△37.5	10.4	△29.0	△21.7	3.3	11.4	△14.7	38.5
	B	35.4	25.6	7.6	△3.7	△13.0	△9.7	△25.8	△29.5	1.7
도서관·사적지· 여가관련 서비스	값	809	279	334	208	182	220	290	269	283
	A	167.9	△65.5	19.7	△37.7	△12.5	20.9	31.8	△7.2	5.2
	B	24.8	2.6	2.1	△26.5	△44.8	△2.7	△27.1	△27.9	△12.7

출처: 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1) A는 전월대비, B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주2) -는 기준 값이 0인 경우를 의미함

주3) +는 증가율이 300%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사. 취업자대비 피보험자 비율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와 고용행정통계의 피보험자수를 결합하여 피보험자 수 비율 추이를 분석함
- 분석단위는 전국단위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대분류로 제공되기 때문에 피보험자 비율 역시 대분류(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준으로 진행함
- 문화예술 분야의 취업자수는 약 50만 명이지만 피보험자 수는 평균 1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분야의 피보험자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2월 대비 3월에 5.4% 증가하였으나, 4월과 5월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후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표 4-31〉 2020년 문화예술 분야 피보험자 비율 추이

(단위: 만 명,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취업자수 (A)	50.7	50.7	47.4	48.3	51.1	51.2	50.7	51.5	50.6
피보험자수 (B)	14.9	15.0	14.8	14.8	14.9	15.0	15.1	15.2	15.2
피보험자 비율 (B/A)	29.3	29.6	31.2	30.6	29.1	29.2	29.8	29.6	30.0
전월대비 증감률	3.6	0.9	5.4	△1.9	△4.8	0.3	2.1	△0.8	1.3

## 6. 문화예술 지식재산 수출입 동향

### 가. 개요

- 최근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수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문화예술관련 지식재산권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
- 분석대상은 지식재산권 내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유형들을 선별하였으며, 산업재산권에서는 디자인권, 저작권에서는 문화예술저작권(음악·영상,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을 추출함

### 나. 문화예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동향

- 디자인권의 경우, 2019년 3/4분기와 2020년 1/4분기를 제외한 모든 분기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음
-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의 경우, 2019년 1/4분기부터 2020년 1/4분기까지 적자를 이어왔으나 2020년 2/4분기 흑자로 전환됨

〈표 4-32〉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분야	구분	2019년				202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디자인권	값	-30.1	-62.7	29.3	-21.4	37.8	-30.4
	A	△35.1	108.3	△146.7	△173.0	△276.6	△180.4
문화예술저작권	값	-77.0	-8.6	-51.5	-39.6	-51.8	127.6
	A	△74.6	△88.8	498.8	△23.1	30.8	△346.3
음악·영상	값	-48.8	-10.4	-61.8	-7.4	-26.2	111.8
	A	△466.9	△78.7	494.2	△88.0	254.1	△526.7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	값	-28.2	1.9	10.3	-32.2	-25.6	15.8
	A	△35.3	△106.7	442.1	△412.6	△20.5	△161.7

출처: 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A는 전기 대비 증감율을 의미함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제5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결론

## 1.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적용과 한계

### 가.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우선순위, 수집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도서출판, 시각, 시청각/미디어, 온라인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음
  -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함

〈표 5-1〉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보완사항

분야	지표명	보완사항
도서출판	도서관 대출 동향	• 지표의 대표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 • 방문객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필요
시각	박물관·미술관 관람동향	• 부분 데이터가 아닌 통합데이터 구축 필요 • 국립시설에서 공립시설도 단계적 확대 필요
시청각/미디어	스마트폰·PC 이용 동향	• 조사분야 및 장르의 확장 필요 • 기술, 소비행태 변화 반영 필요
온라인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 키워드 추출 정교화 등 필요

#### 1) 도서관 대출동향

- (자료수집의 간편화) 도서관 대출 데이터는 중 1년 주기 데이터를 제외한 짧은 주기의 데이터는 이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할 수 없으며 도서관 정보나루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데이터 제공요청이 필요하며, 데이터가 제공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됨

-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변수들을 결합하여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편을 고려해야 함
- (대표성 제고)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해 전수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함
- (신뢰성 제고) 도서대출수의 경우, 전체도서대출수와 남녀 도서대출의 합, 장르별 도서대출의 합이 일치하지 않고 전체도서대출수보다 작은 값이 도출됨
  - 이는 대출자의 개인정보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추측되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지표 내의 값들의 일치성을 제고할 방법을 마련해야 함
- (방문객 데이터) 현재 도서관 대출데이터는 도서관 핵심 서비스인 도서관 대출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도서관 핵심서비스 외에 도서관을 방문하는 방문객 데이터의 통합적 수집과 동향 파악이 필요함

## 2) 박물관·미술관 관람동향

- (통합데이터 부재) 시범적용에서 진행한 분석은 경기문화재단의 협조로 경기도에 한정되며,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님
  - 대표성 있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집단과 추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수집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14 개관), 국립현대미술관(3 개관)은 관람객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국립 박물관·미술관 관람동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추후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동향지표 범위를 공공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임



### 3) 스마트폰·PC 이용 동향

- (조사분야 및 장르의 확장) 해당 지표의 소관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방송 및 영상분야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문화예술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 및 분류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조사할 방법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소비행태 변화 반영) 스마트폰·PC 이용 동향은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DMB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영상콘텐츠의 소비행태가 전통적인 소비행태에서 동영상 플랫폼, OTT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용행태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4) 온라인 검색 동향

- (연관검색어 정교화) 시범적용 시에는 각 문화시설의 시설종류 및 연관검색어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함
- 소수의 검색어로는 해당 분야의 전체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연관용어 및 검색어의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나.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 공급, 수요, 고용, 수출입 등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각 동향지표의 지속가능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보완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5-2〉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 보완사항

분야	지표명	보완사항
공급	사업장수, 신규성립사업장수, 소멸사업장수	• 분석틀 추가 필요
고용	1인당 평균 임금, 1인당 평균 근로시간	• 분류의 세분화 필요
	피보험자수, 피보험취득자수, 피보험상실자수	• 분석틀 추가 필요
수출입	디자인권·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 저작권의 세분화 필요

## 1) 공급지표

- 공급측면에서는 기존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지표에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나타난 사업장수와 신규성립사업장수, 소멸사업장수 동향을 시범적으로 적용함
  - (전담인력) 데이터 추출 시 이용자가 파악하기 다소 어려운 형태로 자료가 출력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해당 원자료에서 문화예술분야 데이터 추출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함
  - (분석틀 추가) 현재는 생성되는 사업장과 소멸하는 사업장 원자료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경제지표들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지표를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고용지표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문화예술분야 고용과 관련해서는 취업자와 평균임금, 근로시간이 중요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최근 예술인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 등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화예술분야 피보험자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도 추가적으로 시범적용 하였음
- (소분류 자료 확보)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고용 관련 지표는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추출되었지만, 이는 문화예술분야의 단면의 정보만을 담고 있어 추후 고용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중분류, 소분류 자료를 확보하여 지표화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분류인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중분류로 세분화할 경우,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와 스포츠·오락분야를 분리하여 동향을 분석할 수 있어 보고자 하는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분석 틀 추가) 보험 신규가입자 수와 보험 상실자수와 같이 원자료를 비롯하여 추가적인 계산식에 의한 통계치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를 들어, 피보험 신규가입자와 상실자의 합계 혹은 시범적용에서 예시로 분석한 바와 같이 취업자수 대비 피보험자수의 비중 등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 소비지표

- 소비 측면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되는 신용카드 소비지출액외에 가구당 소비지출액을 추가하여 시범적용 하였음
  - 신용카드 소비지출액은 포괄적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소비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소비품목의 분류가 기존의 경제 지표체계와 상이하여 기존의 경기지표체계와 분류체계를 공유하는 가구당 문화예술소비지출 동향을 살펴본 것임
  - 향후 신용카드 소비지출액과 가구당 문화예술소비지출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거나, 두 지표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4) 수출입지표

- 수출입 측면에서는 문화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출입 통계에 문화예술 분야의 고유성이 잘 드러나는 디자인권·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를 추가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함
- (분야 세분화) 문화예술저작권이 ‘음악·영상’과 ‘어문·연극·미술·건축·사진·도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저작권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문화예술저작권 중에서 ‘음악·영상’의 경우, 음악분야와 영상분야 모두 최근 흑자추세를 보이며, 이는 한류열풍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음악콘텐츠와 영상콘텐츠는 소비목적과 이용행태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수출입에 미치는 결정요인 또한 상이함
  - 따라서, 적자와 흑자와 같이 단순한 해석 이상의 분석을 위해서는 저작권의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해당 저작권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함

## 2.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정책적 활용

### 가. 정책의 전략적 자산

- 본 연구에서 제안된 문화예술 동향지표는 완벽한 체계를 갖춘 지표체계는 아니지만, 실시간 정책 개입, 근거기반, 데이터 주도 정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반적으로 동향 데이터는 미래예측, 위기관리, 공공의 경쟁력 강화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표 5-3〉 데이터주도 정부의 목표

구분	내용
미래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현상, 현실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패턴분석, 미래전망</li> <li>•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및 유연한 대처</li> <li>• 다각적인 상황을 고려한 통찰력 제시</li> </ul>
위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이벤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위험 감지</li> <li>• 위기요소에 대한 선제적 분석, 민첩한 의사결정, 실시간 대응</li> </ul>
공공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기반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확대</li> <li>•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대안 서비스 개발 및 확산</li> </ul>

#### 1) 미래예측 및 위기관리

- 불확실성이 높고,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대응의 시작이 되는 것은 기초 데이터임
- 사람들의 요구, 사회/산업의 변화 양상, 위기 감지 등이 빨라질수록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발전에서의 문화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임

#### 2) 문화서비스 경쟁력 강화

- 문화서비스의 수급관리 및 적절한 공급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한편으로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문화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나. 실질적 정책 활용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의 존재 이유는 문화예술정책의 목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임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분야의 역할은 포괄적으로 국가발전 측면, 삶의 측면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할 수 있음

〈표 5-4〉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정책 활용(예시)

정책 영역	주요 정책 사업	활용 지표
국가발전	예술 창작인력 지원사업	• 예술인활동 증명자 수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고용의 질 개선 계획	• 문화예술 종사자 피보험 취득자수, 문화예술 종사자 임금 수준, 문화예술 종사자 근로시간
	문화예술산업 활성화 계획	• 문화예술 산업별 부가가치액, 문화예술 산업별 생산지수
	전통문화 보호와 활용 계획	• 궁능원 관람객수, 박물관 관람동향
	문화다양성 계획 수립	• 영화지표 중 국내 영화 점유율, 스크린 점유율 등 • 도서 ISBN 발급 동향
삶의 질	트렌드 파악, 맞춤형 정책	•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스마트폰·PC 이용 실태
	문화기반시설 수급계획수립	• 1관당 입장객
	문화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 분야별 입장객 동향
	문화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 문화예술 소비자 물가지수 • 공연, 영화 관람률
	지역별 수요자 맞춤형 정책추진	• 지역별 인구동향

- 국가발전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산업의 규모, 문화예술종사자수, 문화예술 종사자의 고용의 질, 전통문화산업 현황, 장르 점유율 등이 문화예술 정책적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삶의 질 측면에서는 문화예술 참여 여건, 문화예술 참여 트렌드, 문화서비스 시설 이용 동향 등을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정책적 접근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지표를 활용하고자 할 때 사업체 분류, 인구통계학적 구분 등을 구체화하고 교차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체 구분 혹은 인구통계 구분이 안 되면 정책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현실 파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문화예술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고, 저소득층의 민간 문화예술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동시에 파악하여 문화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음

#### 다. 정책적 활용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크게 문체부 유관기관 생산 데이터와 주요 경제부처 데이터임

〈표 5-5〉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의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쟁점	고려사항
분야별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빅데이터 등에서 주목받는 데이터는 실시간 수집이 가능한 수요데이터임</li> <li>• 문화예술 분야별로 데이터 수집 여부, 공유 가능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음</li> </ul>
다른 부처 데이터에서 문화예술 분야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산업측면의 동향지표는 모두 다른 부처 데이터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추출하는 데이터임</li> <li>• 데이터를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화예술산업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임</li> </ul>
온라인 활동 반영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온라인과 관련된 동향 파악을 할 수 있는 지표체계 부재</li> </ul>
데이터 전담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지속성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동향지표 연구관리 및 공표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함</li> </ul>

- 문체부 유관기관의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품질, 대표성 문제와 더불어 데이터의 공유부재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문체부 외부의 데이터에서 문화예술 부분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분야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으나, 향후 동향을 확인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영역임
  - 이는 전문가조사의 추가의견에서도 많이 제기된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문화예술동향지표의 지속가능성한 발전을 위해서는 동향지표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를 위한 과제

#### 가. 문화예술 데이터 수집 및 공유의 강화

-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주기가 빨라 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 거래(transaction) 데이터인 경우가 많음
- 문화예술 분야별 지표는 주로 상품 및 서비스 향유가 거래의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데, 분야별로 데이터 수집이 잘 되고 있는 곳과 잘되고 있지 않은 영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5-6〉 주요 문화상품/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현황

문화상품 서비스	거래 데이터 수집	전수 반영	공유
공연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으로 수집	• 전수 반영	• 전산망에서 공유
전시	• 통합수집체계 없음	• 국립현대미술관(3개관), 국립중앙박물관(14개관)에서만 일부 통합 수집	• 내부 고립
영화	•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으로 수집	• 전수 반영	• 전산망에서 공유
도서(책)	• 도서관정보나루로 수집	• 공공도서관 위주 반영 • 민간반영 안됨	• 정보나루에서 일부공유

- 공연, 영화, 도서 상품의 경우 거래데이터가 축적되고 공유되고 있지만, 전시와 관련된 데이터는 축적과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향후에도 문화예술 분야별 동향지표에도 핵심적으로 공연, 영화, 도서, 전시는 지속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시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공유 체계는 필수적임
  - 따라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도서관정보나루 등과 같은 ‘**전시관람통합전산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창조서비스,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 등은 주요 동향을 살필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음
  - 시청각/미디어 분야와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현실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기 주기 데이터 수집과 공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나. 문화예술산업분류의 명확화 필요

- 문화예술산업 동향지표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는 전부 타 부처에 존재하는 데이터임
- 따라서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데이터에서 문화예술분야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 예를 들면, 사업체 기초통계에서 문화예술분야 산업만 추출하면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동향지표가 되며, 해당 업체 종사자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가 되는 구조임
  -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에서 사용되는 사업체 분류에서 어떤 영역이 문화예술분야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있어야 하며, 해당 분류상의 값이 원출처 데이터에 존재해야 함
  -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문화예술분야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알 수 있음
- 현재 상황은 문화예술산업분류가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분류기준에 의해 데이터가 일관되지 않게 추출되고 있음
  - 이러한 분류체계의 일관성 부족은 동향지표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명확한 문화예술분야 산업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문화예술분야 데이터를 추출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지표값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표준산업준류 대분류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영역을 문화예술산업으로 보고 값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음
  - 대분류 수준 분류로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누락되는 데이터가 많아 문화예술산업의 현실 반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한편, 문화예술 분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분류까지 데이터가 존재하는 조사의 경우에도 외부에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이는 각 조사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을 추출 후 조사하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표준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세분류까지 조사가 되어도 중분류 혹은 대분류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음



- 또한 문화예술분야와 콘텐츠산업의 구분이 모호하여 분야의 중복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중복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두 분류를 나누게 되면 문화예술분야가 과소화될 수 있음
  - 문화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예술산업분류와 콘텐츠산업 분류를 비교해보면, 시각예술과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영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이 이미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포함되어 있음
  - 반대로 유네스코 문화통계 틀 상에 존재하는 시청각 및 미디어 영역은 문화예술에서는 제외되고 콘텐츠 산업으로 분류됨
  - 문화예술산업이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콘텐츠산업은 이미 특수분류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영역을 굳이 나누기보다는 각각의 정교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두 영역의 교집합의 비율과 여집합의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판단됨

〈표 5-7〉 문화예술산업분류와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비교

구분	문화예술산업분류	콘텐츠산업분류
문학	• 번역 서비스업, 문학인, 문학단체	-
출판	• 출판업, 인쇄업, 유통업	• 온라인 출판 유통업 • 만화산업 분류를 세분화
공연	• 연극, 무용, 음악, 기타공연 산업 • 음악 산업 세분화	• 음악 산업만 포함 • 노래연습장 등 포함
시각예술	• 미술, 디자인, 사진, 공예, 전시 • 공예 산업 세분화	-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 사적지, 문예시설, 도서관, 공연시설, 전시시설	-
시청각산업	-	• 영화산업, DVD 제작 유통 • 게임산업 • 애니메이션 산업 • 방송산업 • 광고산업 • 캐릭터산업
뉴미디어 산업	-	• 지식정보산업 • 콘텐츠출류션산업
기타	-	• 기타 공연산업(음악공연제외, 영화관제외)

## 다.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모니터링 체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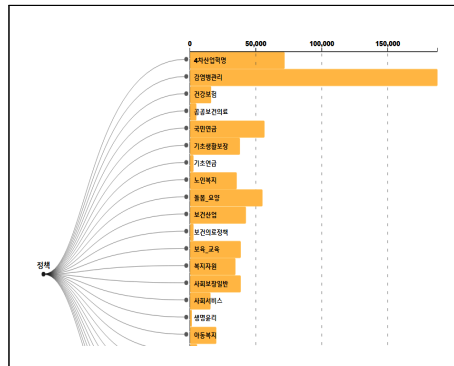
- 최근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지표들에서 확인되고 있음
- 코로나 19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던 중임
- 현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온라인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 데이터들은 오프라인에 머무르고 있음
- 이러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동향 파악을 하고 있음

[그림 5-1] 교육부 검색동향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그림 5-2] 보건복지부 검색동향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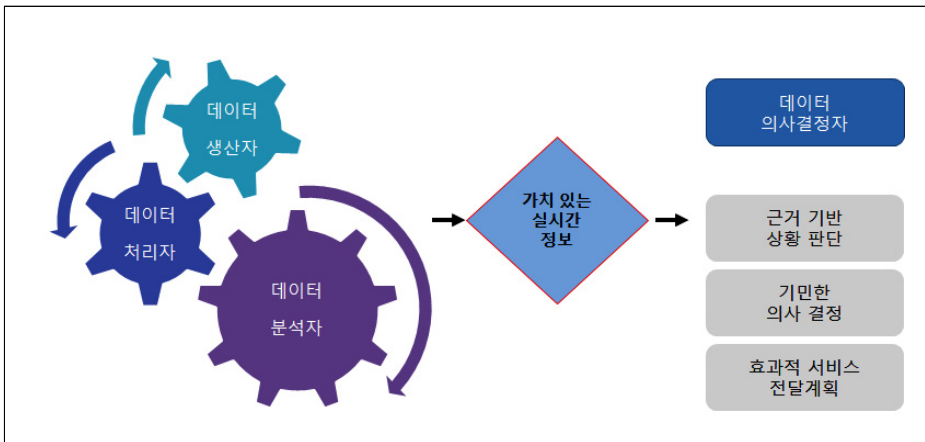
- 경제영역에서도 키워드 데이터들이 실물경기에 선행하는 지표로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도 발표하고 있음(이금희, 황상필, 2014)
- 이러한 검색데이터뿐만 아니라 온라인 문화활동은 제대로 정의도 되어 있지 않고,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향후 관련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전문가의 추가의견에서도 온라인 문화활동,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문화예술 상품의 유통 등에 대한 동향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 라. 동향지표 전담체계 필요

### 1) 전담조직

- 현재 수준에도 전체적인 문화예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으나, 데이터들이 흩어져 고립되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담체계의 부재에 기인함
- 또한 일반적으로 지표체계는 기술 및 사회 수요에 따라 수정 등의 변화가 존재할 수 있으며, 거듭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정교한 체계를 가지게 됨
-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을 조망하면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가공하여 공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그리고 전담조직에 필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그림 5-3] 데이터 가치 거버넌스의 효과



출처: 장훈(2020). 공공문화시설 수요 데이터 수집체계 수립 연구.

- 이미 일부 동향지표를 관리하거나 문화예술분야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공기관이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음
  - 문화예술 전체를 연구하는 공공기관으로 분야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현재 통계관리팀이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향지표 체계운영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 2) 동향지표 관련 시스템 체계 개선

- 추가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분야 데이터 및 동향관리 허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문화 센터가 대표적인 동향관리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산업영역의 데이터가 중심이 되어 제공되고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동향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추가적으로 동향지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동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주요 부처에서는 이미 부처 관련 주요 동향을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음
  - 문화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접근성은 문체부 누리집이 높음으로 관련 기능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문화센터는 현재 대부분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을 제공하고 있어 추후에 문화예술 분야별 동향도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 제2절 정책 제언

### 1. 시의성 있는 문화예술 동향지표 관리 필요

-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면서 다양한 의미에서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나 지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첫 번째로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두 번째로 코로나 19는 4차 산업혁명 등을 더욱 가속화 하는 계기로 작동하여 데이터 등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임
  - 그간 잘 갖춰진 데이터 기반, 데이터 관리 노력 등으로 인해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영역도 있음
- 문화예술분야는 공급의 특성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 이번처럼 유행성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피해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나 데이터가 미흡한 실정임
  - 일부 긴급하게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소에 관리되고 있는 동향지표체계가 존재하였다면 보다 기민하게 대처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판단됨
-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추세적으로 실시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에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 현실과 정책의 간격을 줄이고 적시 정책에 대한 수요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음
  - 실시간 의사결정이 아니더라도 축적된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음

- 다만, 데이터 자체로는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데이터가 현실의 어떤 영역을 반영하는지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는 이러한 의미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단면을 반영하거나, 국가 사무 전체에서 문화예술분야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체계로 이해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완벽한 문화예술 동향지표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현실의 한 부분이라도 더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몇 가지 지표를 도출하고 제안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 중요성을 확인한 시의성 높은 동향지표는 도서관 대출동향과 문화예술 사업장 동향, 문화예술 고용의 질 동향, 지식재산 수출입동향 등인데, 이러한 동향지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위기관리, 미래예측,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필요성과 유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미술관 관련, 전시 관련 데이터는 이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문화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온라인 문화활동을 정의하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지표체계를 생산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2. 민간과 공공 동향의 분리관리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지표체계를 구성하였지만, 문화예술정책은 공공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분리해서 보는 방식도 필요해 보임
  - 문화예술분야별 지표는 문체부 유관기관에서 자체 생산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동향지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체 식별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분리가 가능함

- 다만,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의 경우 대부분 총량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공공과 민간 구분이 가능한 구조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지 않음
-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적이거나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민간의 지표를 공공정책 수립에 고민 없이 차용하는 것은 신중함이 필요함
  - 민간의 데이터는 주로 전체적인 수준에서 해당 영역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수준에서 의미가 있고,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근거로 활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발생함
- 역으로 민간의 데이터를 활용한 전체적인 동향파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재는 민간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임
  - 예를 들면, 도서대출 동향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대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최근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책의 대출동향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공에 거의 없음
  - 서울도서관, 경기도서관 등 일부에서 전자책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부분적인 데이터로 전체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움
  - 한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음악과 관련 동향지표의 수요가 높았으나, 현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서는 제공하는 공연통계는 음악과 관련된 동향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 않음으로 외부 민간 데이터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표 검토도 필요해 보임

### 3. 문화예술 동향지표의 정교화 및 발전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모아 동향지표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탐색적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동향지표가 정교하게 구축된 것은 아님
- 본 연구를 통해 일부 확인한 바는 핵심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체, 고용, 소비부분**은 정교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임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는 주제별(국민소득·경기·기업경영, 산업활동·소비·투자, 고용·임금·가계, 통화·금융, 금리, 증권, 물가, 국제수지·대외경

래, 환율·외환보유, 경제관련사회통계, 주기별(일, 월, 분기, 년)로 100대 경제통계를 자체생산 혹은 연계 관리하고 있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지표 개발을 통해 구축한 것임
- 문화예술분야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지속적인 동향지표체계의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지표체계 구축 및 발전 필요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체계는 총량적 개념에 가깝게 구성하여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인 소규모성으로 인해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발생함
  - 예들 들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5인 이하의 사업체, 공식적 유통채널을 활용하지 않는 독립출판 등에 대한 동향파악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생산 및 지표구성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마지막으로 동향지표 혹은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향후 데이터의 중요성과 수요가 확장될 것이 예상되는바, 현재 수준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전담조직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2019),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국립국어원(2017), 2017년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 국무조정실, 한국정책학회(2015),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 김정석 외(2013), 지표체계안 개발을 위한 제언: 출산환경 및 행태지표를 중심으로.
- 대한출판문화협회(2020), 2019 한국출판연감.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국민체력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광고산업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기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근로자 휴가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9),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0),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국민여행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외래관광객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원(2015), 문화예술산업분류체계 연구 설명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19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집.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2011), 한국저작권산업특수분류.
- 박근화(2017), 문화체육관광산업의 규모 추정 방안 연구: 2014년 기준 사업체 행정 및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2016),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매뉴얼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
- 영화진흥위원회(2020), 2020년도판 한국영화연감.
- 이금희·황상필(2014),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기판단지표 개발: 네이버 검색 경기지수 작성과 유용성 검토, 경제분석 제20권 제4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장훈(2020), 공공문화시설 수요 데이터 수집체계 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통계개발원(2019), 지표 작성 방법론.
- 통계청(2019),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문화체육관광 주요지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문예연감 2019.
- 한국은행(2019), 2015년 산업연관표.
- Cobb, C. W., & Rixford, C. (1998), Lessons learned from the history of social indicators, San Francisco: Redefining Progress.
-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2019), Guidelines on producing leading, composite and sentiment indicators.
- UNESCO(2009),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고용행정통계: <https://eis.work.go.kr>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http://www.kopis.or.kr>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www.tour.go.kr>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
- 교육부: <https://www.moe.go.kr>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s://www.kspo.or.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 도서관 정보나루: <https://www.data4library.kr>
- 문화센터: <http://stat.mcst.go.kr>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방송통신위원회: <https://kcc.go.kr>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s://data.kihasa.re.kr>
- 소재부품종합정보망: <http://www.pmsd.or.kr>
-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s://www.kmrbs.or.kr>
- 영화통합전산망: <https://www.kobis.or.kr>
-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s://kccf.or.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s://www.kawfartist.kr>
-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https://pds.mcst.go.kr>
- 지역문화진흥원: <http://www.rcda.or.kr>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http://www.kpipa.or.kr>
- 통계청: <http://kostat.go.kr>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
-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s://kccf.or.kr>
- 한국문화정보원: <https://www.kcisa.kr>
- 한국문화진흥: <http://www.kcpi.co.kr>
- 한국보건산업정보원: <https://www.khidi.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ttp://www.ssis.or.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 Council of Europe: <https://www.coe.int>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UNESCO: <https://www.unesco.or.kr>



---

# ABSTRACT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urrent Indicators in the Cultural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current indicator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that can monitor the culture and arts ecosystem in real time, and to apply some current indicators on a pilot basi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alysis of current status related to cultural and art indicators, and collection of expert opinions were conducted. Through this process,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current indicators, the range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fields, the selection of external indicators that can extract the cultural and artistic fields, and the prioritie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indicators were set.

As a result of analysis of trends related to domestic and foreign culture and arts indicators, the current indicators for each culture and arts field were 15 indicators including 'Cultural Heritage', 'Books and Publishing', 'Performing Arts', 'Films', 'Visual Arts', 'Audio-Visual and Media', and 'Creative Services', 'Common and other status' and current indicators for each cultural industry value chain were 22 external indicators were selected to extract 'supply', 'demand', 'employment', and 'export/import' as trend indicators for each cultural industry value chain.

A survey was conducted for expert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on the cultural and artistic current indicators. As a result, 90% of experts responded that the current indicator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was 'necessary',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current indicator of culture and arts was 'clarity of indicator purpose (90%)'. In addition, 'music (81%)'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genre needs indicator.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with the highest priority was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The cultural industry current indicator with the highest priority is the amount of card consumption for culture and arts.

Next, considering the priority of the indicators, the possibility of collecting the indicators, and overlapping with the indicators already announced, 4 current indicators for culture and art field and 5 current indicators for culture and arts industry value chain were selected. The current indicators for culture and arts field that were applied as a pilot were library loan trends, museum/art museum visits, smartphone/PC usage trends, and major cultural service search trends. And the current indicators for culture and art value chain were the number of businesses, producer prices, consumption expenditure, employment qual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import and export trends.

In conclusion, the problems identified during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current indicators of culture and arts in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improvement were discussed. In order for current indicators to become sustainable and develop in the mid to long term, the necessity of a collection system of high quality data, clarific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culture and arts industries, research on indicators that can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a dedicated organization that manages the indicator system was discussed.

### **Keywords**

Arts and Culture Current Indicators, Arts and Culture, Current Index, Indicator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부록**





## 【부록1】 전문가 의견조사지 양식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체계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https://www.kcti.re.kr>)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의거, 문화예술의 발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으로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관광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동향지표 체계 수립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란, 문화예술 서비스의 상황을 1년 미만의 기간에서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의미하며, 문화예술분야와 문화산업기능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체계적이고 대표성있는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 분석과정에서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오니 성심 성의껏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책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장훈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수행기관   GLOBAL RESEARCH™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A. 일반 현황

※ 문화예술분야의 동향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잘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p>◎ 지표의 정의</p> <p>- 지표(指標)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방향이나 목표,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이지만, 물가 지표, 주가지표 등과 같이 <b>특정 분야의 상태나 상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척도</b>를 의미함</p> <p>◎ 동향지표의 정의</p> <p>- 문화유산, 공연예술, 시각예술, 도서출판, 시청각/미디어, 디자인 및 창조 서비스의 상황을 1년 미만의 기간에서 <b>변화추이를 파악</b>할 수 있는 지표체계</p>
---

문1-1. <동향지표의 필요성 인식> 귀하는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동향지표의 구성 요소> 귀하는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를 구성할 때,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순위 까지 선택)

구분	내용
목적의 명확성	- 지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 적용 대상의 범위의 명확성
타당성	-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현상)을 반영할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신뢰성	- 측정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타당성 있는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유용성	- 관찰 대상에 대한 설명력이 높는지 여부
시의성	- 발표 주기가 짧은지에 대한 여부

1순위	번	2순위	번
-----	---	-----	---

- |                |           |
|----------------|-----------|
| ① 목적의 명확성      | ② 대상의 구체성 |
| ③ 타당성          | ④ 신뢰성     |
| ⑤ 유용성          | ⑥ 시의성     |
| ⑦ 기타 ( _____ ) |           |

문1-3. <동향지표의 대상 범위> 귀하께서는 다음 중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장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문학
- ② 미술(응용미술 포함)
- ③ 음악
- ④ 무용
- ⑤ 연극
- ⑥ 영화
- ⑦ 연예
- ⑧ 국악
- ⑦ 사진
- ⑧ 건축
- ⑨ 어문
- ⑩ 출판 및 만화
- ⑪ 문화유산
- ⑫ 문화시설
- ⑬ 독립예술
- ⑭ 기타(\_\_\_\_\_)

## B. 동향지표 체계 - 문화분야 부문

※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중 문화분야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2-1.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화재청의 '공·능·원 관람객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1	문화유산	공·능·원 관람객수	문화재청	매월	○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분	내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2.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관람 동향’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2	문화 유산	박물관 관람 동향	국립중앙박물관	매일	x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3.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도서관정보나루의 ‘도서보유권수, 도서대출건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3	도서 출판	도서보유권수, 도서대출건수	도서관 정보나루	매일	o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4.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국립중앙박물관의 'ISBN 발급 동향'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4	도서 출판	ISBN 발급 동향	국립중앙 박물관	매일	x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5.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공연건수, 매출액, 공연예매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5	공연	공연건수, 매출액, 공연예매수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매일	o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6.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공공데이털포털의 '지역 문화축제 현황'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6	공연	지역 문화축제 현황	공공데이털 포털	매일	x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7.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개봉편수, 매출액, 영화관객 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7	영화	영화개봉편수, 매출액, 영화관객 수	영화진흥위원회	매일	o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8.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의 '미술관 방문객, 미술작품 거래건 수, 매출액'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8	시각	미술관 방문객 미술작품 거래건 수, 매출액	한국 미술시장 정보 시스템	매년	○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9.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PC 이용실태'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9	시청각 미디어	스마트폰·PC 이용실태	방송통신 위원회	매월	○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10.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동향'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10	창조 서비스	저작권 등록 동향	저작권 원회	1년	o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11.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자 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11	인력	예술활동 증명자 수	예술인 복지재단	매월	x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12.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12	인력	문화예술 교육사, 예술강사	한국 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매월	x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13.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문화자원봉사 매칭건수'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13	인력	문화자원봉사 매칭건수	한국문화원 연합회	매월	x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14.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참여자'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14	교육	문화예술 교육참여자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매월	x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15.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15	온라인	주요 문화예술분야 검색동향	인터넷 포털사이트	매일	o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2-16.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행정안전부의 '지역별 인구동향'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안) 문화분야 부문

문화예술분야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2-16	기초 공통	지역별 인구동향	행정 안전부	매월	○	대표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대표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위 동향지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중 문화산업기능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체계(안) 문화산업기능 부문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3-1	공급	시가총액	한국거래소	매일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2		주가지수		매일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추출필요성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수립을 위해 제시된 지표의 추출 필요성에 대한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중 문화산업기능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체계(안) 문화산업기능 부문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3-3	공급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조사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4		서비스업생산자수	서비스산업동향조사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5		기업경기실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추출필요성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수립을 위해 제시된 지표의 추출 필요성에 대한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중 문화산업기능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체계(안) 문화산업기능 부문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3-6	공급	사업자 수	사업자 현황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7		사업장 수	고용행정통계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8		신규성립사업장수	고용행정통계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9	소멸사업장수	고용행정통계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추출필요성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수립을 위해 제시된 지표의 추출 필요성에 대한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중 문화산업기능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체계(안) 문화산업기능 부문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3-10	수요	신용카드 지출액	신한카드 데이터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11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동향조사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12		소비자물가지수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13	온라인쇼핑 거래액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14	가구당 소비지출액	가계동향조사	분기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추출필요성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수립을 위해 제시된 지표의 추출 필요성에 대한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중 문화산업기능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체계(안) 문화산업기능 부문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3-15	고용	취업자 수	경제활동 인구조사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16		1인당 평균 임금	사업체 노동력조사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17		1인당 평균 근로시간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18	피보험자수	고용 행정동계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19	피보험취득자수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20	피보험상실자수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추출필요성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수립을 위해 제시된 지표의 추출 필요성에 대한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 중 문화산업기능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문화예술분야별 동향지표체계(안) 문화산업기능 부문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항 번호	문화 분야	지표명	출처	주기	공표 현황	항목	매우 높음	약간 높음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①	②	③	④	⑤
문3-21	수출입	수출입통계	수출입무역통계	매월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문3-22	수출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분기	○	추출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유용성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내 용
추출필요성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수립을 위해 제시된 지표의 추출 필요성에 대한 정도
유용성	제시된 '지표'가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로 활용되기에 유용한 정도

문3-23.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문화산업기능별 지표 전반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4-1. <정책적 고려사항> 문화산업기능별 동향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순위 까지 응답)

1순위	번	2순위	번
-----	---	-----	---

- ①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 관리 전담기관 지정
- ② 데이터수집 시스템 구축 및 기관데이터 통합방안 마련
- ③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산업 및 직종 분류의 명확화
- ④ 동향지표체계의 지속적 보완 및 추가 개발
- ⑤ 민간 수요·공급 데이터 확보
- ⑥ 외부에 지속적인 공유 및 홍보
- ⑦ 기타 (\_\_\_\_\_)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3장, 5장, 연구총괄

### 공동연구

이학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제3장, 제4장

## 문화예술분야 동향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발행인 김 대 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856-0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47>

www.kcti.re.kr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urrent Indicators in the Cultural Secto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47>

Jang, Hoon

